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

대학생의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경로 분석

A Path Analysis of Career Anxiety,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Controlled Career Motivation, Person-Major Fit and Career Identity Status Type of University Students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민 지 식

대학생의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경로 분석

지도교수 최 수 정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민 지 식

민지식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이 찬
부 위 원 장 최 수 정
위 원 정 진 철
위 원 주 민 호
위 원 이 종 범

국 문 초 록

대학생의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경로 분석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년

민 지 식

이 연구의 목적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을 분류하고,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 대비를 통해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의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해 구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진로정체감과 관련된 문헌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이를 명명한 후 지위 유형에 자율적·통제적 동기, 전공 적합성이 영향을 미치고 변인 간의 관계에서 진로불안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에 따라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으로 설정하였으며, 총 20개(수도권 학교 10개, 비수도권 학교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여 71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과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및 전공 적합성 도구를 포함한 설문지 형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조사하여 활용하였다. 문항은 총 80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설계를 제안하였다. 먼저 자료를 정제한 뒤 첫 번째 단계로 '진로정체감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을 투입하여 도출된 6개 지위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때 진로불안은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과 진로정체감 유형을 매개하는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다. 또한 내생변인을 통제하

는 경로를 설정하여 성별과 지역을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는 첫째, 4년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6개의 지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전체 분류 비율은 각각 8.86%(성취), 36.15%(유예), 7.45%(유실), 9.56%(혼미), 5.35%(탐색유예), 32.63%(미분화)로 나타났다. 둘째, 경로모형을 통해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과 함께 관련변인인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 변인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변인의 영향은 분석 모델에 따라 상이하였다. 진로불안은 진로정체감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서 지위 유형의 분류에 대체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모델 4(혼미 대비 탐색유예)에서만 유의하지 않았다. 자율적 진로동기는 모든 모델에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에 정적(+)인 영향이 있어 자율적 동기가 높은 경우에 혼미 대비 타 지위 유형의 분류에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동기는 모델 2(혼미 대비 유예)에서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혼미 지위 유형과 비교하여 유예 유형에 분류될 확률에는 통제적 동기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경로모형에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과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간의 관계에 진로불안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 역시 모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련 요인들을 함께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학에서의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전통적인 4개 지위 유형(성취, 유예, 유실, 혼미)외 에 더하여 최근 추가로 제안되고 있는 '탐색유예'와 '미분화'지위 유형을 더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로 다른 방법론을 통해 분석된 유형화 결과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각 구성요소에 대한 개별적 해석과 함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적극 확인하여야 한다. 넷째, 연구문제에 따라 통제적 진로동기는 자율적 진로동기와 구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추가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정적인 지위 유형과 관련하여 진로불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여섯째, 진로탐색이나 몰입 차원에서의 개입에서 효과적인 방식과 시기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공 적합성과 관련하여 대학 입학 이전 단계의 진로지도가 더욱 강조된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위 유형의 분류에서 혼미와 유예, 미분화 지위 유형의 분류 비율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후속 연구를 통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단적 연구를 통해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따른 성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K-VISA 도구의 타당화 연구가 다양한 대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 진로불안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선행요인이나 관련변인이 있는지 탐색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주요어: 대학생,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진로정체감, 진로불안, 자율적 진로동기, 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경로분석

학번: 2020-37455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4
3. 연구 문제 ····· 4
4. 용어의 정의 ····· 6
5. 연구의 제한 ····· 8

II. 이론적 배경 ····· 9

1.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 9
2. 진로불안 ····· 56
3.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 63
4. 전공 적합성 ····· 72
5.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관계 ··· 79

III. 연구방법 ····· 93

1. 연구 설계 ····· 93
2. 연구 대상 ····· 97
3. 조사 도구 ····· 102
4. 자료 수집 ····· 120
5. 분석 방법 ····· 121

IV. 연구 결과 ····· 129

1.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 129
2.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 직접효과 ····· 145
3.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 관계에서 진로불안의 매개효과 ···· 159
4.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 164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76

1. 요약 ····· 176
2. 결론 ····· 178
3. 제언 ····· 179

참고문헌 ·····185

[부록 1] 문항개발 수정표(진로정체감) ····· 232

[부록 2] 조사 도구 ····· 238

[부록 3]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 기술통계 ····· 248

<표 차례>

<표 Ⅱ-1> 3차원(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재고) 기반 지위 유형 분류(국내) ····· 21
<표 Ⅱ-2> 진로정체감 연구의 주요 측정도구 종합(Holland 기반) ····· 38
<표 Ⅱ-3> 진로정체감 연구의 주요 측정도구 종합(Marcia 전통) ····· 40
<표 Ⅱ-4> 직업정체감 지위 측정도구(VISA) 원 문항 ····· 43
<표 Ⅱ-5> 2000년대 진로정체감 연구의 주요 측정도구 종합 ····· 45
<표 Ⅱ-6> 진로정체감의 주요 영향요인 - 성격적, 심리적 요인 ····· 50
<표 Ⅱ-7> 진로정체감의 주요 영향요인 - 사회심리적, 맥락적 요인 ····· 54
<표 Ⅱ-8> 진로 · 취업불안의 주요 측정도구와 구성요소 ····· 62
<표 Ⅱ-9> 자기결정성 진로동기와 유사한 맥락의 진로 관련변인 ····· 69
<표 Ⅱ-10> 국내 전공 적합성 및 관련 측정도구 문항 비교 ····· 78
<표 Ⅱ-11> 변인 간 관계 선행연구 종합 ····· 92
<표 Ⅲ-1> 2021년 기준 대학 수 및 재학생 수(명) ····· 98
<표 Ⅲ-2> 조사도구 구성 ····· 103
<표 Ⅲ-3> 진로정체감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 105
<표 Ⅲ-4> 진로불안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 106
<표 Ⅲ-5>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 107
<표 Ⅲ-6> 국내 전공 적합성 도구 비교(2010~2021) ····· 111
<표 Ⅲ-7> 전공 적합성 예비문항(1차) 작성 프로세스 ····· 114
<표 Ⅲ-8> 전공 적합성 내용·안면타당도 검증 대상 ····· 115
<표 Ⅲ-9> 최종 수정 후 전공 적합성 도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117
<표 Ⅲ-10> 전공 적합성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 118
<표 Ⅲ-11> 적합도 판단 지표 ····· 128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29
<표 Ⅳ-2> 분석자료의 기술통계량 ····· 131
<표 Ⅳ-3> 경로모형 투입 변인의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 ····· 132
<표 Ⅳ-4> 진로정체감,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구성요소 간 상관행렬 · 133

<표 Ⅳ-5> 진로정체감 유형화 기준 및 적정 지위 유형 수 (구성요소 간 상관 지정) ····· 136
<표 Ⅳ-6> 지위 유형별 할당 확률 평균 ····· 137
<표 Ⅳ-7>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별 기술통계 ····· 138
<표 Ⅳ-8>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 ····· 144
<표 Ⅳ-9>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별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차이 ···· 148
<표 Ⅳ-10> 최종 경로분석 적합도 지수 ····· 152
<표 Ⅳ-11> 직접효과 분석 결과 (혼미 대비 성취) ····· 154
<표 Ⅳ-12> 직접효과 분석 결과 (혼미 대비 유예) ····· 155
<표 Ⅳ-13> 직접효과 분석 결과 (혼미 대비 유실) ····· 157
<표 Ⅳ-14> 직접효과 분석 결과 (혼미 대비 탐색유예) ····· 158
<표 Ⅳ-15> 매개효과 분석 결과 (혼미 대비 성취) ····· 160
<표 Ⅳ-16> 매개효과 분석 결과 (혼미 대비 유예) ····· 161
<표 Ⅳ-17> 매개효과 분석 결과 (혼미 대비 유실) ····· 162
<표 Ⅳ-18> 매개효과 분석 결과 (혼미 대비 탐색유예) ····· 163
<부록 표 1>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 기술통계량 ····· 248

<그림 차례>

[그림 Ⅱ-1] 자아정체감 지위 유형(status)의 2차원 모델 ····· 10
[그림 Ⅱ-2] 진로재고 차원을 포함한 자아정체감 지위 유형의 3차원 모델 ····· 12
[그림 Ⅱ-3] Waterman(1982)의 자아정체감 지위 유형(status) 발달 모형 ····· 29
[그림 Ⅱ-4] Keijzer 외(2020)의 진로정체감 영향요인 고찰 모델 ····· 48
[그림 Ⅱ-5] 자기결정성 동기의 선형 모델 ····· 68
[그림 Ⅱ-6] 개인-환경 적합성 상호작용 모델 (ICR model) ····· 88
[그림 Ⅲ-1] 연구 설계 ····· 94
[그림 Ⅲ-2] 진로정체감 유형화 단계 연구모형 ····· 95
[그림 Ⅲ-3] 경로분석 단계 연구모형 ····· 96
[그림 Ⅲ-4] 층화표본추출 방법 및 절차 ····· 102
[그림 Ⅲ-5]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109
[그림 Ⅲ-6] 4년제 대학생의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 119
[그림 Ⅲ-7] 자료 분석 절차 ····· 121
[그림 Ⅲ-8] 모집단 내 잠재집단 형성의 개념도 ····· 122
[그림 Ⅳ-1]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별 프로파일 (Z-Score) ····· 142
[그림 Ⅳ-2] 분석모형 ····· 150
[그림 Ⅳ-3] 모델 1(혼미 대비 성취) 분석 결과 ····· 154
[그림 Ⅳ-4] 모델 2(혼미 대비 유예) 분석 결과 ····· 156
[그림 Ⅳ-5] 모델 3(혼미 대비 유실) 분석 결과 ····· 157
[그림 Ⅳ-6] 모델 4(혼미 대비 탐색유예) 분석 결과 ····· 159
[부록 그림 1] 여학생의 진로불안 히스토그램 ····· 248
[부록 그림 2] 남학생의 진로불안 히스토그램 ····· 248
[부록 그림 3] 여학생의 통제적 진로동기 히스토그램 ····· 248
[부록 그림 4] 남학생의 통제적 진로동기 히스토그램 ····· 24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생애 첫 직업을 결정하는 시기로, 이 시기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이후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가치관이 정해질 수 있다(노윤신, 정철영, 2016). 이러한 관점을 통해 본다면 진로정체감은 미래의 잠재적인 진로 방향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써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진로정체감은 Erikson(1968)이 자아정체감 개념을 제안한 이후 진로 측면에 적용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현대사회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된다(Meijers, 1998).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학업에 대한 부분과 관계적인 부분, 진로준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송윤정, 조규판, 2016), 대학생활 안에서의 적응과 진로준비와 관련된 활동, 계획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강신철, 권경인, 2015; 오미진, 김봉환, 2021; 이지원, 이기학, 2017; 한미옥, 조규판, 2021). 선행연구들은 진로정체감을 적절하게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 개인 전체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성인기로의 심리사회적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서유란, 이상희, 2012; 오보영, 이상희, 2013; 임은미, 2011).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역시 직업세계로의 전환(transition) 과정에서 이러한 명확한 진로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박진경, 2017; Meijers, 1998). 이는 개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개인 정체감 형성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Chávez, 2016; Solomontos-Kountouri et al., 2008).

이처럼 진로교육 분야에서는 진로정체감을 진로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 왔으며, 특히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유형화'를 통한 접근 방식을 많이 활용하였다. 진로정체감 연구에서 이러한 유형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정체감 개념이 하나의 단일한 차원을 통해 설명되기 어려우며, 연구 결과를 실천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웠기 때문이다(Porfeli et al., 2011). 유형화 연구들은 각국의 상황과 문화적 맥락, 다양한 시점, 다양한 대상을 고려해 유형화를 통한 분류 결과를 체계화해 왔으며, 진

로정체감 지위 유형이 보편적으로 통용될만한 개념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Hirschi, 2011; Keijzer et al., 2020; Salami, 2008; Song et al., 2016; Xu & Lee, 2019; Zhang et al, 2019). 이러한 방법은 현재 대학생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여 이후의 발달 과정을 확인하기에 상당히 적절한 방법이었다.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은 어떠한 것인지 밝히는 것은 진로교육 측면에서 개별화된 교육과 개입, 상담을 제공하는 데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는 근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고홍월, 2020). 최근에는 진로정체감 연구들에서 전통적인 도구를 개선하여 유형을 세분화하고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다수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학술적 움직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자료의 구축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이보라 외, 2014).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아래 기존의 유형화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하고 추가적인 연구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이라는 교육환경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진로정체감 연구들은 정체감의 형성에 주로 맥락적인(context) 요인이 관여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Chávez, 2016). 성별이나 사회적 환경과 같은 변인들이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증거로서 이러한 맥락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진로정체감은 특정한 경험들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학 입학 후 해당하는 전공 분야에서의 경험은 직무 및 직업세계에 대한 간접적 경험으로서 제공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김진희, 2014). 특히 전공 수준에서 학습과 실제 직무의 미스매칭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전공에서의 경험에 대한 인식은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대학생이라는 대상의 대학 생활 및 경험으로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이라는 환경 안에서의 개인의 '전공(major)'이라는 개인적 환경 변화 및 경험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즉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과연 진로정체감의 지위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제안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의 영향에 대한 것이다. 일부 국외 선행연구들과 국내 문헌은 이러한 진로정체감의 지위 유형 분류가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도 보고하고 있다(Song et al., 2016; 박진경, 2017; 강혜정, 202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설정코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일에 대한 동기'를 설정하였다. '직업세계에 진입하고자 하며 노동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동기가 높은 개인은 맥락적인 요인과는 다른 측면에서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선행요인들의 영향만을 보고자 하였을 때 '입학 후 졸업까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의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지위 형성에 정서적인 과정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체감 이론의 설명에 착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진로정체감의 형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안과 같은 정서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체감의 변화를 가져온다(Dorn, 1992). 불안(anxiety)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부터 관심을 받아 온 정서적 영향요인으로, 이 연구에서는 졸업에 임박한 3-4학년들이 흔히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는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진로정체감 유형을 구분짓는 선행요인들을 탐구하기 위해 적절한 연구모형을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 안에서의 개인의 적응을 나타내는 전공 적합성과 '일'이라는 측면에서의 개인의 동기, 즉 진로동기가 진로정체감의 형성과 지위 유형 구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공 적합성과 진로동기는 진로불안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 적합성은 낮을 경우 진로불안을 가중시키고 부정적인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으로 분류될 확률을 높일 것이며, 진로동기의 경우 높아질수록 진로불안을 낮추고 긍정적으로 이해되는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으로 분류될 확률을 높일 것이다. 진로동기의 경우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 보았을 때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가 모두 진로결정 상황에서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는 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변인은 각자 구분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Howard et al., 2021; 정은교, 2021).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진로정체감 관련 연구들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결정 유예, COVID-1

9로 인한 경제적 불황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적 맥락을 바탕으로 진로정체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다양한 선행요인과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박정규, 2021; 이준범, 2015; 이필남, 2016; 조규형 외, 2016). 더욱이 대학생들의 대학 내 학습의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학 내의 지원 프로그램 역시 2000년대에 비해 증가하였고,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으나(김정희 외, 2017; 진미석 외, 2010) 여전히 대학생들은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숙정, 유지현, 2008). 이 연구 결과가 앞으로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진로 장면에서의 개입 및 정책적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을 분류하고,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 대비를 통해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과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의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해 구명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유형화한다.

둘째,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 관계에서 직접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 관계에서 진로불안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4년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1-1. 4년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은 진로정체감 구성요소에 따라 몇 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1-2. 4년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4년제 대학생의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4년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따라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2. 4년제 대학생의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과 진로불안,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 경로모형 적합도는 적절한가?

2-3. 4년제 대학생의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과 진로불안,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에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진로불안은 4년제 대학생의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과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가?

3-1. 4년제 대학생의 자율적 진로동기는 진로불안을 매개하여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3-2. 4년제 대학생의 통제적 진로동기는 진로불안을 매개하여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3-3. 4년제 대학생의 전공 적합성은 진로불안을 매개하여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이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을 '개인이 인지하는 미래의 잠재적인 진로 방향이나 직업과 관련하여 발전하는 정체감 구조'로 정의하였다. 이는 Erickson(1963)의 자아정체감 이론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진로(career)'라는 개념에 적용하여 정체감의 전 영역에서의 변화가능성을 정의한 것으로 Meijers(1998)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이란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진로정체감 지위 점수의 양상을 유형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진로정체감 지위 점수는 진로정체감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측정되며,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은 이를 바탕으로 유형화된 각각의 유형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Porfeli 외(2011) 도구인 VISA(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차원의 6가지 구성요소(전반적 진로탐색, 심층적 진로탐색, 진로몰입확신, 진로일체감. 진로자기의심, 진로유연성)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하여 각 지위 유형의 특성과 명칭을 제안하였다.

나. 진로불안

진로불안(career anxiety)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의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 또는 정서적 상태로 정의된다. 불안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느낌과 걱정(worried), 비판적 사고'를 의미하며, 이것이 진로결정 상황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Fouad, 2007; Saka et al., 2008; Shin & Lee, 2019). 하위요인은 책임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과정에 대한 불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 진로불안은 민경희와 김봉환(2014)이 개발한 도구에 응답한 평균값으로 측정된다.

다. 자율적 진로동기

자율적 진로동기는 자기결정성 이론(SDT: Self-Detemination Theory)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진로와 관련된 동기로서 개인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동

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보경, 2012). 자율적 진로동기는 일반적인 자기결정성 동기의 하위요인을 따라 구성되며, 이 연구에서는 진로동기 중에서 자율적 동기(autonomous)와 통제적(controlled) 동기를 구분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각각의 변인은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자율적 동기는 내재적 동기, 동일시 조절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Dec & Ryan, 2000).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율적 진로동기는 정은교(2021)가 개발한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도구에 응답한 값 중 '내재적 동기'와 '동일시 조절'에 해당하는 문항에 응답한 값의 평균으로 측정된다.

라. 통제적 진로동기

통제적 진로동기 역시 자기결정성 진로동기에 기반하여 제안된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진로와 관련된 동기로서 개인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이지만 개인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동기라기보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동기부여나 외부 맥락이 내재화된 동기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부과된 조절, 외재적 동기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Dec & Ryan, 2000).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통제적 진로동기는 정은교(2021)가 개발한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도구에 응답한 값 중 '부과된 조절'과, '외재적 동기'에 해당하는 문항에 응답한 값의 평균으로 측정된다.

마.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PM fit: Person-Major fitness)은 개인-환경 적합성(PE fit: Person-Environment fit)과 개인-직무 적합성(PJ fit: Person-Job fitness)의 연구 전통에서 제안된 것으로, 개인-환경 적합성에서의 환경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적합성 개념 중 하나이다(윤경신, 2019). 이 때 적합성은 "구성원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구성체와 잘 맞는다고 믿는 개인의 주관적 지각 정도"를 의미하며, 따라서 전공 적합성은 개인이 소속된 전공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된다(조윤형 외, 2013). 이 연구에서는 박정아(2019)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구성한 척도를 연구자가 수정하여 구성한 도구에 응답한 값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의 확인을 위해 연구 대상을 4년제 대학생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전체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연구 대상을 4년제 대학생 전 학년으로 표집하고, 성별의 비율도 실제 대학 재학생의 성비와 유사하게 남녀가 각각 절반 정도씩 표집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연구에서는 표집 방법의 한계로 비교적 여성의 비중이 높게 표집되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이것이 연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별도로 확인하고, 투입한 주요 변인들과 통제변인 수준에서 확인하고, 내용을 추가적으로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범주형 종속변수를 다루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에 대한 사전지식을 요한다. 그동안 진로교육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방법론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분석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은 연구방법과 연구 결과에 보다 상세히 서술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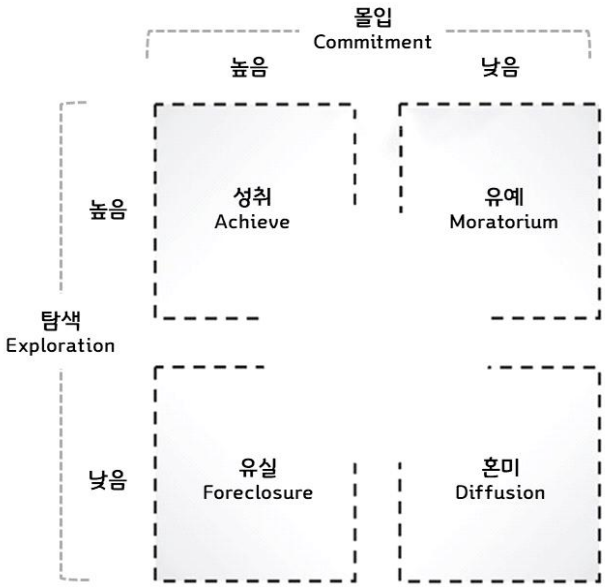
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구분

이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이라는 개념을 연속적인 형태의 변수로서 활용하지 않고, 유형화 방식을 거쳐 도출된 지위 유형(status type)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Marcia(1980)를 시작으로 하여 본격화된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진로정체감 유형화 연구들은 대체로 '진로정체감 점수'를 통한 연구 방식과는 다르게 '지위 유형(status)'이라는 일종의 유형을 통한 연구가 의미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위 유형은 유사한 진로정체감 개념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유형화를 통해 정체감을 점수화하여 측정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없는 세부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실증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진로정체감 측정도구의 측정방식 자체가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Kroger, 2005). Marcia(1980)는 정체감 성취(achievement), 유예(moratorium), 유실(foreclosure), 혼미(diffusion)의 기본적인 4가지 지위 유형을 진로 분야에서의 정체감, 즉 진로정체감 분야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지위 유형의 구분 모델은 진로정체감뿐만 아니라 근간이 된 자아정체감(ego identity) 연구 전반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Hirschi, 2010). 이 모델은 상술하였듯이 진로에 대한 '탐색(exploration)'과 '몰입(commiment)'의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미나 유예 상태에서 시작하여 다른 세 단계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이처럼 탐색과 몰입, 2개의 차원에 근거한 4가지 유형 분류는 다음 [그림 Ⅱ-1]과 같이 설명된다(Balistreri et al., 1995, Marcia, 1993; Schwartz, 2001; Porfeli et al., 2011).

두 차원 중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이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흥미, 가치관, 신념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을 말한다(이보라 외, 2014 재인용). Porfeli 외(2013)에서는 진로에 대한 탐색을 일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Marcia(1980)를 비롯한 초기 연구들은 탐색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차원으로 보았으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이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그러한 특성에 잘 맞는 구체적인 직업 선택이나 대안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전반적 진로탐색은 다양한 대안에 대해 고민하면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미성숙한 진로선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심층적 진로탐색은 몰입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몰입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박진경, 2017). 그밖에도 진로탐색에서 심층적 진로탐색에 대한 부분은 진로에 대한 호기심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Porfeli & Skorikov, 2010).

진로몰입(commitment)은 특정한 직업적 상에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러힌 이미지에 일치하도록 개인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Porfeli et al., 2013). 몰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Porfeli 외(2011)에서는 진로선택에서의 확신(making), 동일시, 또는 일체감(identification)를 구분하고, 이를 2가지 구성요소로서 진로정체감에 포함시켰다(Blau, 1988). 이에 따르면 결정(decision)은 사고의 범주이고, 선택(choice)은 행동(behavior), 몰입(commitment)은 이에 한 단계 더 나아가 개인의 결정과 선택에 대한 "개인적인 연결(connection)"이다(Porfeli et al.,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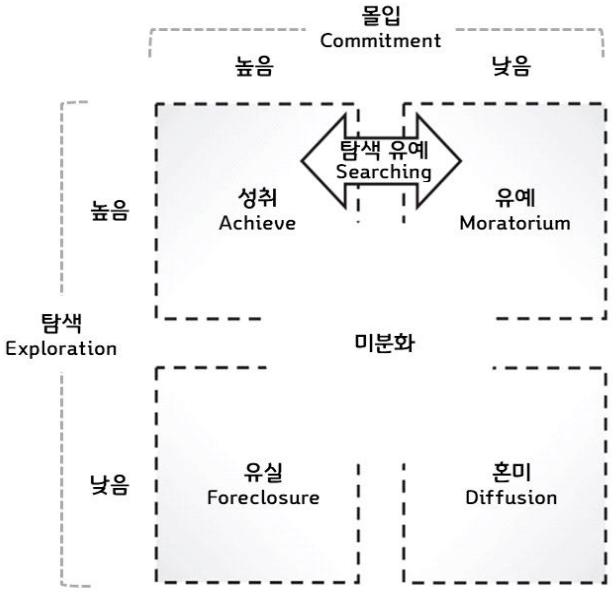


[그림 Ⅱ-1] 자아정체감 지위 유형(status)의 2차원 모델

출처: Porfeli et al. (2011)을 연구자가 수정

최근에는 소위'현대적 진로정체감' 모델이라고 지칭되기도 하는 진로정체감 지위 분류를 위한 '3차원 모델'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Porfeli et al., 2011),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진로재고(reconsideration)'라는 새로운 차원을 통한 지위 유형 분류이다. 진로재고란 기본적으로 몰입(commtment)의 재검토를 의미한다. 이는 현재 몰입하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서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선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대안을 새로이 탐색하고, 다시 몰입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진로재고는 청소년기 이후 정체감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성취나 유실 등의 지위 유형에서 더 나아간 과정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Crocetti et al., 2008b; Crocetti et al., 2008c; Crocetti et al., 2009). 진로재고를 포함한 세 가지 차원의 진로정체감 개념은 경력 의사결정 분야의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어 왔다(Porfeli et al., 2013).

진로재고라는 새로운 차원이 제시되기 이전에도 Berzonsky(2003)를 비롯한 연구들에서 이러한 두 차원으로 분류되는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과는 다른 유형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으나(Côté & Levine, 2002; Schwartz, 2001), 기존의 유예 지위 유형을 탐색유예(searchin moratorium)와 같은 다른 지위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미분화(undiffentiate)와 같은 무경향성의 지위 유형이 추가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3차원 모델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들은 이러한 새로운 지위 유형들이 미래 진로에 대한 관점에서 성취, 유예, 유실, 혼미 지위 유형과 확실히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진로재고는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진로재고는 진로몰입 측면과 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적절한 재고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으로의 탐색과 몰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osma와 Kunnen(2001)는 진로재고가 정체감 발달의 동적인 특성을 보여 준다고 보았다. [그림 Ⅱ-2]에서의 탐색유예 지위 유형의 양방향 화살표는 이러한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Porfeli et al., 2011).



[그림 Ⅱ-2] 진로재고 차원을 포함한 자아정체감 지위 유형의 3차원 모델

출처: Porfeli et al. (2011)

1) 성취(achievement) 지위 유형

전통적인 Marcia 이론의 설명에 의하면 성취(achievement) 유형의 개인은 높은 탐색과 높은 몰입 정도를 가지는데, 이는 가장 발전적이며 선호되는 상태이다(Marcia et al., 1993). 성취 상태에 있는 개인은 깊이 탐색하고,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며 몰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재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취 지위 유형의 경우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맥락적 요인과의 관계 중 대표적인 것이 불안인데, 허경민과 이기학(2017)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불안이 '불확실성'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이 해결되었을 경우에 진로정체감의 성취 지위 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몰입의 경우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울증, 불안와의 부적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진로일체감' 구성요소의 경우 더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Porfeli et al,. 2011). 진로적응성 측면에서도 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orfeli & Savickas, 2012). 또한 진로성과나 개인의 웰빙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여겨진다(Waterman, 2007). 기존의

2차원적 지위 유형 구분에 따르면 성취 지위 유형은 '높은 수준의 진로탐색', '높은 수준의 진로몰입'으로 설명되지만 진로재고를 포함한 3개 차원으로는 '높은 진로탐색', '높은 진로몰입', '낮은 진로재고'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취 지위 유형은 어느 정도 고정된 지위 유형처럼 보이지만, 다른 지위 유형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 진로재고를 포함한 3차원적 모델이며, 어느 정도 진로정체감이 확립된 이후에도 다양한 경력경로를 통해 새로운 진로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이덕현 외, 2014). 이보라 외(2014)에 따르면 최근의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여 이러한 경향은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3차원 모델에서는 이를 진로재고를 통해서 설명하며, 이러한 측면은 탐색유예(searching moratorium) 지위 유형을 바탕으로 설명된다. 최근 국내 연구 중에서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연구한 강혜정(2021)의 연구에서 성취 지위 유형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잘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성취 지위 유형의 분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나, 이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의 경우에 대학생보다 오히려 비율이 낮았으며,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성취 지위가 한 명도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재고 가능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 유예(moratorium) 지위 유형

유예(moratorium) 지위 유형은 탐색은 이루어졌으나 몰입 수준이 어느 정도 달성되지 못한 일시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 탐색의 유무를 위기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한 초기 연구들에서는 위기상황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진로재고 측면의 관점을 포함하면 유예 유형의 개인은 보다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낮은 몰입과 중간 수준의 심층적 탐구, 높은 재고 수준을 보인다. 3차원 모델에서는 (Porfeli et al., 2011). 유예 지위 유형은 위기(crisis)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서의 적응과 부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uyckx et al., 2006a). 따라서 유예 지위 유형은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지위 유형으로 인식되어 왔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높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Boo et al., 2021; Meeus, 1996). 그러나 유예 지위 유형 역시 진로정체감의 발달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유예 지위 유형에 속한 개인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지속적인 탐색을 통해 몰입할 수 있는 적절한 진로대안을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유실과 성취 지위 유형과 같은 비교적 긍정적인 상태로 이어지는 '일시적'인 상태로 여겨진다(Porfeli et al., 2011).

유예 지위 유형에서는 비교적 낮은 진로몰입이 주요 특성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진로탐색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는 같은 진로탐색 측면의 구성요소인 '전반적 진로탐색'과 '심층적 진로탐색'을 각기 다르게 살펴볼 수 있다. VISA와 같은 6요인 측정도구를 통해 지위 유형을 분류할 경우에 특히 그러한데, 진로탐색과 진로몰입 내에서도 각 구성요소가 다소 다른 측면에서 다른 구성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반적 진로탐색은 진로정체감 성취 지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이보라 외, 2014), 국내 연구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유예 지위 유형에서는 '전반적 진로탐색'의 경우 중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심층적 진로탐색'의 경우 중간 수준이거나 다소 낮은 수준을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오보영, 이상희, 2013; 정지후, 이상희, 2014; 이보라 외, 2014; 이상희, 심희준, 2014; 이은비 외, 2020; 고홍월, 2020). 이러한 부분은 기존 진로정체감 지위에서 심층적인 탐색이 없이 전반적인 탐색만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자신감 하락과 같은 부정적 결과와 관련될 수 있다고 본 것과 유사하다(Porfeli & Skorikov, 2010).

3) 유실(foreclosure) 지위 유형

유실(foreclosure) 유형에 해당하는 개인은 적절한 탐색이 없는 상태로, 탐색의 수준은 낮지만 진로와 관련된 특정한 목표, 가치관, 신념에 몰입하는 사람이다(Waterman, 1982). 이는 내재적이지 않고 외부에서 비롯되는 몰입을 가정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깊은 탐색이나 재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간 정도의 몰입 수준을 특징으로 한다(Crocetti et al., 2014; Porfeli et al.,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실 지위 유형은 긍정적인 심리적 변인들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지위 유형 분류에

서는 성취 다음으로 바람직한 지위 유형으로 여겨졌다(Porfeli et al., 2009; 2011). 국내 연구에서도 진로성숙도의 경우 유실 지위 유형이 성취 유형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서유란, 2012). 유실 지위 유형은 '성취' 지위 유형과 같이 폴리애나(pollyanna)적으로 느껴지는, 또는 낙관적인 직업적 감정가(work valence)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Porfeli et al., 2011). 따라서 동기부여 수준은 비교적 낮을 것으로 이해된다. 유실 지위 유형에는 가정적인 배경이나 사회적 환경과 같은 요인의 설명이 따르곤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가장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위 유형이기도 하다(Bosma & Kunnen, 2001). Waterman(1982)은 개인이 청소년기 이전이나 청소년기에 노출되는 정체성 대안의 '범위가 넓을수록' 정체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얼마나 사회가 이질적인지, 정체감 발달과 관련된 선택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별, 개인이 속한 사회, 가정, 문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개인은 '보다 더' 유실 지위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체감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건강하게 분리되는 과정을 달성하였다고 보았다(Goossens, 1995).

4) 혼미(diffusion) 지위 유형

혼미 지위 유형은 성취 지위 유형과 가장 반대되는 지위 유형으로, 최소한의 탐색과 몰입을 특징으로 하며 적절하게'참여(disengaged)하지 못하거나 표류(drifting)하는 상태'로 정의된다(Marcia, 1980 , Marcia, 1993). 혼미 지위 유형에 속한 개인은 대체로 가장 부정적인 결과로의 이행을 보인다(Waterman, 2007). Meeus 외(1999)은 가장 낮은 심리적 웰빙 수준을 보이는 지위 유형이 유예 지위 유형이며, 혼미, 유실, 성취 순으로 높아진다고 하였다. Erikson(1968)은 장기적으로 명확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개인이 '혼미' 지위 유형에 있다고 보았으며, 우울과 자신감이 낮다고 설명하였다. 전통적인 진로정체감의 2차원 모델에서 혼미(diffusion) 유형은 낮은 진로탐색과 진로몰입을 특징으로 하며, 진로재고를 포함한 3차원 모델에서는 낮은 진로탐색과 낮은 진로몰입, 중간 이상의 진로재고 수준을 나타낸다.

일부 연구에서는 '확산된(diffused) 혼미'와 '무관심(carefree) 혼미'와 같이 혼미 지위 유형을 더 세분화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확산된 혼미 지위 유형은 일반적인 혼미 지위 유

형과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지만, 무관심 혼미는 부정적 심리변인과는 명확한 관계가 없어(이보라 외, 2014), 미분화 지위 유형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기도 하였다(Luyckx et al., 2005, 2008). 국내 연구에서는 최근 Porfeli 외(2011)의 VISA 도구를 기반으로 유형화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일부 연구(유혜승, 2016)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형태의 지위 유형이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Ⅱ-1〉 참조).

5) 현대적 진로정체감 모델에서의 지위 유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arcia가 제안한 4가지 기본적인 지위 유형은 후속연구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인되어 왔으나. 3차원 모델이 새로이 제시되면서 추가적인 지위 유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 역시 기존의 지위 유형 구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까지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지위 유형은 '탐색유예(Searching moratorium)'와 '미분화(Undifferentiated)' 지위 유형이다.

탐색유예 지위 유형은 '성취'와 '유예' 지위 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이 지위 유형에 속하는 경우는'과거에 성취 지위 유형이었으나 기존의 결정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고를 하는' 개인을 의미한다(이상희, 오보영, 2014). Porfeli 외(2011)의 연구에서는 탐색유예 지위 유형이 성취와 유예의 사이에 존재하는 진로에 대한 탐색과 몰입 수준은 높으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재고를 반복하는 진로재고 수준이 높은 상태로 정의된다. 현대사회와 같은 직업세계에 대한 안정적인 예측이 어려운 시대에는 성취 지위에 도달하였어도 진로에 대한 재고 기회가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으며(이보라 외, 2014 재인용).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유예-성취 사이클(MAMA 사이클: 유예(Moratorium)-성취(Achievement)-유예-성취)로 불리는 성취와 유예 지위 유형 사이의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특성을 가진 지위 유형으로 탐색유예 지위 유형이 제안되었다는 것이다. MAMA 사이클이란 개인이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성취와 유예 지위 유형 사이를 순환하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Stephen, Fraser, & Marcia, 1992). MAMA 사이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과 진로발달'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또한 탐색유예 지위 유형은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의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는데, 정체감의 결과변인로서 측정된 웰빙 수준은 상당히 낮았고, 불안 수준은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Porfeli et al., 2011). 대조적으로 전공만족도는 높고(박진경, 2017), 이후 '성취' 지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강혜정(2021)의 연구에서는 직업에 대한 호기심이 성취와 탐색유예 지위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학에서의 적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오보영, 이상희, 2015; Luyckx et al., 2005).

성취 지위 유형에서 유예 지위 유형으로 전환되는 것은 부정적인 단계로의 회귀로 이전부터 설명되어 왔으나(Waterman, 1982), 과거의 2차원 모델과는 달리 3차원 모델에서는 이를 진로탐색과 진로몰입이 높지만 진로재고 수준 역시 높은 새로운 지위 유형으로 제안한 것이다.

그 밖에도 탐색유예 지위 유형은 일부 Luyckx 외(2008)의 연구에서와 같이 유예 지위 유형에 속한 개인을 '적응적 유예'와 '비적응적 유예'(이상희, 심희준, 2014) 등으로 구분하는 연구들과도 비교될 수 있다. 적응적 유예와 탐색유예 지위 유형은 '진로자기의심' 측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김유리, 이제경, 2016),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유예 지위 유형에서의 추가적인 지위 유형 분류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측면이 있다. 일부 국내 연구에서는 탐색유예 지위 유형이 '진로자기의심' 수준이 낮은 경우들 역시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오히려 '적응적 유예'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이상희, 심희준, 2014; 박한샘, 조희진, 2014, 고홍월, 2020; 손영미, 박정열, 2021).

탐색유예가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되어 온 것과는 달리 미분화 지위 유형에 대한 연구들은 그동안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미분화 지위 유형은 진로탐색과 진로몰입 차원에서의 '무경향성'을 나타내는 지위 유형이다. 유예 지위 유형과 미분화 지위 유형은 유사하지만 유예 지위 유형에서 경향성이 더 두드러진다(Porfeli et al., 2011). 이보라 외(2014)의 연구에서는 미분화 지위 유형에서 우울과 불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주요 특징을 보고한 바 있다. Porfeli 외(2011)의 설명에 따르면 유예와 미분화 지위 유형은 공통적으로 미래 직업이나 진로가 절대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지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belief). 또한

이 연구에서는 유예와 미분화 지위 유형에서의 공통적인 측면이 일에 대한 기대정서(work affectivity)(이보라, 2019)와 기대경험(work experience), 그리고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 스트레스(stress) 등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미분화 지위 유형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장 다양한 형태로 보고되고 있는 지위 유형이다. 미분화 지위 유형은 탐색유예 지위 유형과 더불어 비교적 최근에 제안되었으며, 아직까지 공통적인 프로파일로 설명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미분화 지위 유형을 모든 측면에서 낮은 수준을 보고한 유형으로 보고한 경우(Rhee et al., 2016; 정지후, 이상희, 2014; 김유리, 이제경, 2016; 이상희, 심희준, 2014; 심희준, 이상희, 2016; 백소희, 2019; 고홍월, 2020)는 미분화 지위 유형의 부정적인 측면이 보다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진로탐색과 진로몰입 측면이 중간 정도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경우(서유란, 이상희, 2012; 이상희, 오보영, 2014; 박진경, 2017; 이은비 외, 2020)도 다수 확인되었다. 반면 Mancini 외(2015)의 연구에서는 Crocetti 외(2010. 2011, 2014)에서 발견되는 현대적 모델의 지위 유형 분류가 유사하게 발견되었지만, 미분화 지위 유형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미분화 지위 유형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 특징들이 국내외 연구들에서 다소 다르다고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손영미, 박정열(2021)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VISA 기반의 도구로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을 연구하였는데, 미분화 지위 유형의 특징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개념적으로 동일한 무경향성의 지위 유형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동일한 접근이었지만, 그 안에서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6)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 비율

지위 유형의 분류 비율은 대체로 연구들에서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자료조사 대상과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Mancini 외(2015)와 같은 국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가 성취(22.2%) 유예(10.7%), 탐색유예(24.95%), 유실(22.43%), 혼미(19.71%)로 탐색유예 및 유실 유형에 속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유예 유형에서였는데, 이 경우 심층적 탐구와 더불어 몰입 측면의 응답 점수는 낮았으나, 몰입에 대한 재고가

상당히 높았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들 역시 전통적인 4개 유형에서 추가적인 분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서유란과 이상희(2012)의 연구에서는 성취(13%), 유예(32.2%), 유실(32.2%), 혼미(25.2%) 4개의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유예단계에 속한 대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라 외(2014)는 Porfeli 외(2011)의 도구를 번안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 VISA-K 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성취, 유예, 유실, 혼미, 탐색유예, 미분화 등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6개 유형의 분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기존의 국외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원 도구의 측정 목적대로 유형의 분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Rhee 외(2016)의 연구 역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하개 6개 유형을 보고하였으며, 결과변인으로 계획된 우연기술(planned happenstance career skills)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오보영과 이상희(2013)의 연구에서는 성취(15.9%), 유예(17.3%), 탐색유예(21.7%), 유실(10.3%), 혼미(11.9%), 미분화(22.9%)로 미분화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탐색유예의 비중이 큰 것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한 미국 대학생의 유형 비중 차이(탐색유예와 유실 비중 차이)를 한국의 대학생들이 처한 상황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유형 간에는 자아존중감, 우울, 진로성숙, 대학적응 변인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취, 유실, 탐색유예 지위 유형의 경우 높은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 대학적응 수준과 함께 낮은 우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후, 이상희(2014)의 연구에서는 이보라 외(2014), 박진경(2017)의 연구와 같이 6개 유형이 관찰되었으며 선행연구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으나(오보영, 이상희, 2013), 성취 유형이 약 34.1%로 상당히 높았으며, 유예(18.9%), 탐색유예(5.9%), 유실(11.1%), 혼미(7.8%), 미분화(22.2%)로 기존의 연구와 상당히 다른 분포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전공(인문, 이공계) 분포의 차이로 보았으며, 국외 연구와는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각 유형은 진로신념과 우연기술 변인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혼미 유형, 미분화 유형과 같은 부정적 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성취, 유실, 유예 유형의 진로신념과 우연기술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경(2017)의 연구는 사범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게

성취, 탐색유예, 유실, 혼미, 미분화 5개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기존의 유예 유형 외에 새로이 방치형이라는 유형을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 경우에도 성취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약 14.8%로,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하게 15% 내외의 결과를 나타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강혜정(2021)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K-means 군집 분석을 활용한 것과 달리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활용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독특하게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함께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은 5개로 분류되었는데, 성취(8.7%), 탐색유예(13.0%), 혼미(19.8%), 재고하는 미분화(22.2%), 무관심 미분화(27.9%)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보고되었다. 강혜정(2021)의 연구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함께 분석하여 면밀히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전통적인 유예(탐색↑/몰입↓)와 유실(탐색↓/몰입↑) 집단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진로정체감 유형화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 에 대한 해석에 여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적인 연구들로부터 시작하여 국내외 연구들에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비교적 최근 제안되었다고 볼 수 있는 미분화, 탐색유예와 같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을 구분하는 선행요인과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이론적 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는 Marcia(1980)가 제안한 4가지 분류에서 최근 점차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유형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Kroger et al., 2010). 또한 이러한 지위 유형 분류의 해석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종단적 연구들인데, 최근에도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개인의 행복, 만족도, 성과 등의 결과변수가 차이를 보이는지에 제한적으로 관심이 있었으며 몇몇 연구들만이 종단적 자료를 통해 이론적으로 제안된 정체감 유형의 변화가 실제로 관찰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성공하여 여전히 이러한 지위 유형 분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Dietrich et al., 2013; Waterman & Waterman, 1971; Whitbourne & Tesch, 1985; Wu, 1994).

〈표 Ⅱ-1〉 3차원(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재고) 기반 지위 유형 분류(국내)

연구자	전체 비율(%)(여성인 경우 비율%)							비고
	성취	유예	유실	혼미	탐색유예	미분화	기타유형	
서유란, 이상희(2012)	13	32.2	32.2	25.2				탐색/몰입 별도사용
오보영, 이상희(2013)	15.9	17.3	10.3	11.9	21.7	22.9		VISA
정지후, 이상희(2014)	34.1	18.9	11.1	7.8	5.9	22.2		VISA
이상희, 오보영(2014)	19.6	31.7	21.4	27.3				4요인 VISA
	16.1	15.6	9.6	17.5	24.5	16.8		6요인 VISA
이보라 외(2014)	13.3	19.7	17.5	21.1	6.8	21.6		잠재프로파일분석 VISA-K
이상희, 심희준(2014)	20.4	28.8	23.0	27.7				4요인 VISA
	11.3	17.8	9.9	14.9	23.2	22.9		6요인 VISA
Rhee 외(2016)	19.6	13.2	13.0	11.8	13.2	29.1		VISA
박한샘, 조화진(2016)	10.1	24.4	16.3	14.7	11.4	23.1		VISA-K
심희준, 이상희(2016)	20.5	16.9	20.5	16.9	13.6	11.6		VISA
유혜승(2016)	20.9	30.3	12.4	16.3 1)			20.1 2)	VISA
김유리, 이제경(2016)	13.3	28.1	16.8	8.7	13.5	19.6		VISA
박진경(2017)	14.8 (13.7)		12.4 11.8	18.4 18.1	20.2 21.8	20.8 (24.0)	13.4 3) (10.6)	잠재프로파일분석 VISA-K
백소희(2019)	8.3 (7.9)		3.0 (4.8	8.0 (7.3)	31.0 (23.6)	49.7 (56.4)		잠재프로파일분석 VISA-K
이은비 외(2020)	11.5 (9.6)	24.8 (26.3)	16.4 (15.2)	10.3 (11.6)	5.7 (5.1)	31.3 (32.3)		VISA-K
고홍월(2020)	10.7	24.2	8.56	13.2	22.9	20.3		VISA
강혜정(2021)	8.7 (10.7)			19.8 (16.9)	13.0 (14.9)	22.22 4) (30.6)	27.9 5) (26.9)	잠재프로파일분석 VISA-K
손영미, 박정열(2021)	10.7	24.6	9.9	12.4	18.9	23.3		한국 대학생 대상 VISA-K
	21.6	12.8	16.4	13.1	5.9	30.2		미국 대학생 대상 VISA

주1) 확신된 혼미(diffused diffusion) / 주2) 무관심한 혼미(carefree diffusion) / 주3) 방치
주4) 재고하는 미분화(reconsidering undiffrentiate) / 주5) 무관심한 미분화(carefree undiffrentiate)

나. 정체감 이론과 진로정체감

1) Erikson의 정체감 이론

진로정체감의 유형화 연구는 Marcia(1980)의 연구 전통에서부터 전개된 것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정체감(identity)에 대한 개념은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다. Erikson은 1960년대 정체감, 또는 자아정체감(ego-identity) 개념을 제안하였고, 이후 진로 분야를 포함하여 이러한 정체감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장되어 온 것이다. 이후 대부분의 정체감 이론은 Erikson(1968)이 제안한 '정체감 이론(identity theory)'에 입각하여 전개되었다.

자기심리학 관점에서 정체감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self)에 대한 질문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자아상, 가치체계 등에 대한 통합에서 오는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기의식(self conscious)를 의미한다. 이 이론에서는 정체감이라는 개념을 '개개인을 독특한 자기(self)로 정의하는 구조'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국외 연구를 통틀어 Erikson의 정체감 이론은 다양한 정체감 이론과 관련 실증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되어 왔다. 초기 정체감 이론은 이론적인 구성요인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정체감의 현상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자아개념의 통합성, 안정감, 명확성 등의 주관적 인식을 통해 나타난다(박진경, 2017). 이러한 관점에서 정체감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다(Meijers, 1998).

정체감이라는 표현은 일반 서적이나 학술적 문헌 모두에서 대체로 "identity"라는 표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나, 진로교육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정체성(正體性)과 정체감(正體感)이란 표현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성질(性質)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체감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학술적으로 같은 개념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초기 Erikson(1968)의 연구에서 정체감을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conscious sense of individual identity)으로 표현하여, 인지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한 '감각'이라는 점을 번안하는 과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박아청, 1996a; Lounsbury et al., 2005; Waterman, 1982). 결과적으로 정체감(感)이라는 표현이 진로교육 분야에서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중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대부분 'identity'를

정체감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김예림, 202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체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정체성(identity)'이라는 표현이 심리학을 비롯한 타 분야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의 '정체감'이 '정체성'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2) 진로정체감의 개념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은 Erickson(1968)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개념을 진로발달과 연결시켜 제시한 것이다. 국내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Holland와 Marcia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진로정체감을 정의하고 있었다(김보경, 2017; 박완성, 2005; 박진경, 2017; 서유란, 이상희, 2012; 손연아 외, 2014, 이보라 외, 2014; 이지혜, 2013; 이현주, 2008) Holland 외(1980a)는 진로정체감을 "개인이 현재 자신의 진로를 얼마나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로 정의하였으며(이보라 외, 2014 재인용) Marcia(1980)는 진로정체감을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picture)"으로 정의하였다(이보라 외, 2014 재인용). 이는 공통적으로 전체적인 자아정체감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진로정체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진로정체감은 관련된 여러 이론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연구(Holland, 1985; Marcia, 1980)에 기반한 전통적 진로정체감 연구의 관점 역시 진로정체감의 개념적 정의 외에 학술적인 의미, 연구 방법, 연구 결과 해석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Meijers, 1998). 이러한 문제는 진로정체감 뿐 아니라 정체감 연구에 있어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이며, 조작적 정의에 따라 다양한 측정방법과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한다(김아청, 2003). 예를 들어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을 자신의 성격, 흥미, 목표, 재능 등에 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상(image)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Holland가 제시한 진로정체감 개념에 가깝다. 그러나 Meijers(1998)가 언급한 대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관심을 두는 Marcia 전통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의는 비교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Holland 연구의 출발점은 선호하는 활동이나 가치에서 온 것이며, 흥미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나 심리적 구조보다

는 현재의 상태, 그리고 직업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성격 유형을 고려하여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확한 상(picture)'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는데, 개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과 관련된 목표, 흥미, 재능 등에 대한 뚜렷하고 안정적인 인식을 의미한다(Holland et al., 1993).

이 연구를 비롯하여 정체감 유형화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Marcia(1980)의 진로정체감 개념이다. Marcia(1980)와 Holland(1980a, 1985)는 공통적으로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에 대한 정의에서 정체감의 인지적 측면을 부각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Marcia(1980)는 기존의 이론들에서 제안된 정체감 개념을 자기구조(self-structure)로서 재해석하여 제시하였으며, 이 구조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보완되어 왔다(Bosma & Kunnen, 2001; Crocetti et al., 2008b; Luyckx et al., 2008). 이들의 연구에서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정체감이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지위 유형(status)'으로 나타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후 유형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으며, 이 연구에서 역시 이러한 연구 전통에서 도출된 유형에 대한 맥락을 해석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의 결과물로서 개인의 정체감 형성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개념으로서 진로정체감을 활용하고자 한다. 즉 진로정체감은 개인적 정체감, 사회적 정체감, 역할 정체감 측면에서 모두 해석이 가능하며,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진로에 국한하지 않고 정체감 유형에 대해 제시한 Marcia(1980)의 초기 연구에서의 방식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Savickas의 진로정체감 연구에서도 유사한 정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진로정체감은 정체감으로 대표될 수 있는, 자기개념과 직업(occupation)개념에 관련된 "내적 구조"라는 것이다(Jordan, 2018). 따라서 아직 직업과 같은 진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대학생이라는 대상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을 Meijers(1998)가 종합한 정의를 참고해 '개인이 인지하는 미래의 잠재적인 진로방향이나 직업과 관련하여 발전하는 자기개념의 구조'로 정의하고자 한다. 진로정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게 잘 맞는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진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어려움이나 좌절을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er, 1996).

3) 진로정체감 이론의 발전

초기 정체감 이론의 제안 이후 정립된 진로정체감의 개념은 기존의 정체감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하나의 구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체감 형성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제안된 것에 가까웠으며, 이후 Vondracek(1992)을 비롯한 학자들을 통해 확장되어 왔다. 따라서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의 모든 요소와 관련이 있으며, 정체감 관련 이론들에서 제시하는 정체감의 여러 범주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정리에 기반하여 정체감 이론에서 발전시켜 온 이론들과 진로정체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의 정체감 이론 모델은 정체감의 자기구조적인 성격을 중요하게 여겨 정체감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사회적 정체감(social identity)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정체감(personal identity)이다(Cheek & Brigges, 1982). 개인의 정체감에 대한 구조적 개념은 이후 다른 정체감 이론들과 후속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정체감이 제안되는 토대가 되었다(Carter & Mangum, 2020). 구성주의적 관점(constructivism)을 비롯하여 후대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체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체감들은 복합적인 정체감을 형성한다는 관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위 '다차원적 정체감'의 관점은 기존의 이론들에서 제시한 다양한 다양한 형태의 정체감을 구분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Côté, & Levine, 2014).

진로정체감 역시 이러한 '다차원적'인 정체감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 나아가 진로정체감은 직업적(Vocational)인 측면에서의 자아정체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진로발달 이론 관점에서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진로발달 연구의 초기 학자 중 하나인 Tiedman과 O'Hara(1963)는 진로정체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바로 진로발달의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복합적인 정체감의 형성으로부터 차츰 진로정체감이 형성되어 가며, 진로정체감이 개인의 목표나 흥미, 재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인식임을 의미한다(박진경, 2017). 진로정체감이 높은 사람은 이후 경력기회에 대한 열망이 높고, 경력성공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또한 고등학생과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직업 관련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정신적 웰빙 등의 결과변수들

과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 Cho, 2016; Porfeli et al, 2011; Strauser et al., 2008; 문지은 외, 2015).

또한 개인이 사회 안에서 특정한 '역할'에 대한 정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관점은 역할 정체감(role identity) 이론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 역시 진로정체감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Stet과 Burke(2014)는 정체감의 기반을 사회적 정체감, 개인적 정체감, 역할 정체감으로 구분하면서 개인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의미로 역할 정체감을 정의하였다. 역할 정체감은 또한 특정한 사회적 역할과 연결된 개인이 그 역할을 위해 고려하는 성격이나 행동 방식, 존재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한 개인의 관점으로 정의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역할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동일시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미 부여에 있어서의 독특성이 중요하다(Carter & Mangum, 2020). 또한 역할 정체감은 타인과의 구별로서 의미가 부여되는 개인적 정체감과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적 정체감과 달리 역할과 관련된 행동과 수행에 대한 의미부여를 강조한다. 이는 사회학적, 심리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Burke & Stet, 2009). 진로정체감 역시 좁은 의미에서 '특정한 역할'로서 개인이 갖는 직업에 대한 정체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 정체감 이론과의 접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과 진로발달

지금까지 많은 정체감 연구들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이 과연 발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발달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Bosma & Kunnen, 2001). 진로발달적 측면에서 진로정체감을 이해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다양한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발달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종단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문제를 갖게 되며 관련 연구들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종단적인 변화를 직접 측정하여 종단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유형의 변화를 탐색하였다(Dietrich et al., 2013, Luyckx et al., 2010; Luyckx et al., 2011; Kaplan & Garner, 2017). 이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연구들을 고찰하여 각 유형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회심리학적 변인들이 유형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과 유사한 측면에서 이해되며, 발달(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자아정체감 관련 이론에서도 비교적 익숙하게 다루어져 왔던 개념이다. Marcia(1980)는 정체감이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시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의 경험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진로정체감을 비롯한 정체감 이론이 기본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Holland et al., 1980a). 개인의 정체감은 항상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지향하며 개인의 과거, 현재, 사회적 세계를 의미부여를 바탕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정체감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변화와 연속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Josselson,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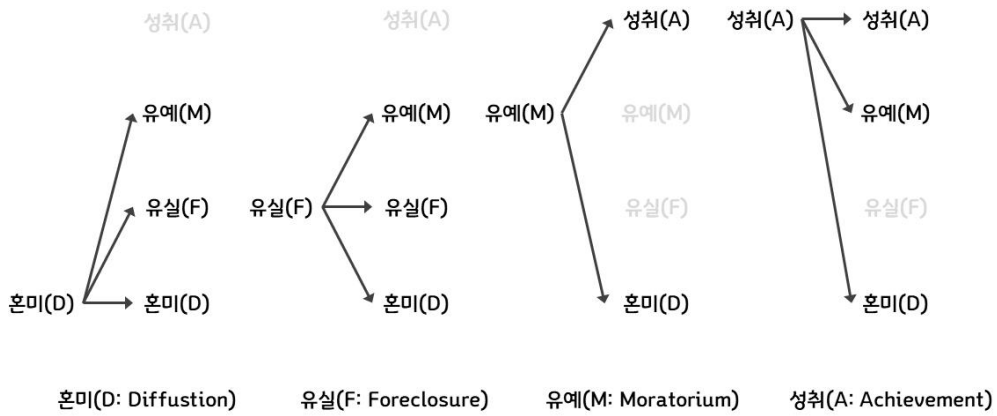
많은 연구들은 진로정체감의 발달적인 측면을 연구하면서 Marcia(1980)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을 참고하였다. Marcia가 제시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은 초기에는 발달적인 측면을 다루지 못하였으나, 개념 자체가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들은 유형 변화를 통해 진로정체감의 발달적인 측면을 연구하면서 진로정체감의 발달에 대한 개념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정체감 유형의 변화는 성인기로의 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정체성의 점진적 강화를 수반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Waterman, 1993). 초기 연구들에서는 각 유형 간의 순서는 없으며 발달 모델로서 지위 유형을 다루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후에는 유형 간의 이동을 가정한 모델들 역시 제시되었다(Mancini et al., 2015; Schwartz, 2001; Waterman, 1982).

특히 진로정체감은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는 변인으로서 더욱 중요하다. 초기의 정체감 연구들과 더불어 최근까지 직업의 선택과 관련된 경험이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계 전반에서 지지되고 있다. Chávez(2016)는 직업에 대한 정체감인 진로정체감이 없으면 통합적인 자아정체감을 이룰 수 없으며, 성취된 통합적 정체감 없이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심리사회적 전환이 불가능하다고도 설명한다(Kroger & Haslett, 1991; 서유란, 이상희, 2012).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은 높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 발달에 중요하지만, 진로정체감의 발달 역시 이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서유란, 이상희, 2012). 직업과 관련 있는 정체감의 발달은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이며, 이후 실증연구들을 통해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 왔다(Blustein, 1994, Blustein et al., 1989 Kroger et al., 2010).

어떤 연구들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유형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이를 실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Waterman(1982)의 연구는 진로발달 관점에서 Marcia의 자아정체감 유형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체성 혼미 유형에 속한 사람은 다양한 정체성 대안을 진지하게 탐구하면서 유예 유형으로 변화할 수 있고,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연스럽게 유실 유형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실 유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다른 진로방향에 대한 '대안적 가능성(alternative possibilities)'을 고려함으로서 유예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

Kroger 외(2010)은 Waterman이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정체성의 초기 형성이 혼미 유형과 함께 때로는 유예 유형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혼미 유형에서의 발달적 변화가 유예로부터 시작하는 형성 과정에 비해 비교적 더 일찍 일어날 것임을 가정하면서, 밀접한 타인(대부분의 경우 부모)과 관련된 가치와의 동일시와 몰입을 동반하는 초기 유형으로서 유예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유예-성취 사이클(MAMA cycle: 유예(Moratorium)-성취(Achievement)-유예-성취)로 불리는 유형 간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이러한 발달 과정은 Stephen 외(1992)의 연구에서도 MAMA 사이클의 연속적인 프로세스 모델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정체감의 유형 변화가 반드시 선형적으로,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발달적 측면에서 이상적인 형태는 있을 수 있으나 변화 자체는 순서에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다(Marcia, 2002; Al-Owidha, 2009).



[그림 Ⅱ-3] Waterman(1982)의 자아정체감 지위 유형(status) 발달 모형

일부 연구들은 이러한 설명과는 대조적으로 정체감 지위 유형을 통한 변화 모델이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고 하였다(Goossens et al., 1995). 이들은 이러한 유형의 변화가 발달 상태와 일치한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후대의 연구들은 유형을 더 세분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였으며, 비교적 "확실한" 유실 상태와 "발달적" 유실 상태를 구분하는 등의 설명을 제안하였다(Flum, 1994). 이러한 설명들은 결과적으로는 '몰입(commitment)' 측면의 차이를 통해 지위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몰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는 "더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더 확실해지거나 더 유연해질 수 있으며 몰입 자체의 내용도 변할 수 있다"는 표현을 통해 설명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몰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탐색 측면과는 다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Bosma, 1992; Bosma & Kunnen, 2001).

기존 연구들은 또한 이러한 지위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사회적인 맥락과 문화와 같은 원격 영향요인(distal factor)과 보다 가까운 관계에서의 근접 영향요인(proximal factor) 등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Bosma와 Kunnen(2001)은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진로정체감을 비롯한 정체감 유형의 차이가 크게 경험에 대한 개방성, 환경에 대한 지원, 이전의 경험과 발달 결과 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대안의 확대는 정체성 구조의 적응과 발달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Marcia, 1980). 유실과 유예, 혼미와 같은 성취되지 못한 지위 유형은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자아인식 사이의 심리적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 등을 통해서 시작되며, 점차 발달해 나간다(Song et al., 2016).

라. 유사개념과의 비교

1) 직업적 정체감 및 전문직 정체감

직업적 정체감(vocational identity)이라는 표현은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이라는 표현과 흔히 병행하여 사용되는 표현이다. 후술하겠지만 국내에서는 '진로정체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대응하는 영어 원문 표현으로 'caree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상황에서 개인이 갖는 직업에 대한 정체감'이라는 맥락에서 '직업적 정체감'이라는 표현을 같은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Poerfeli와 Savickas(2012), Gupta 외(2015)와 같은 경우이다. 다른 사례들도 있으나 특히 이 두 연구는 모두 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라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Johnson et al., 1995). 이 두 연구는 연구 제목에 "vocational identity"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첫 번째 경우 요약(abstract)에서의 내용 설명에서, 두 번째 경우는 결론부 내용 해석에 "career identity"라는 표현을 설명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연구들은 연구 제목에 vocational identity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른 연구의 결과나 다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소개하면서 career identity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제목과 달리 정체감 유형 또는 지위 유형(status)이라는 표현을 설명할 때 마찬가지로 "career identity status"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Baňasová et al., 2011; Hirschi, 2011; Macht Jantzer et al., 2009; Wendling & Sagas, 2022).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처럼 두 용어를 혼용하여 쓰기는 하나 대부분 청소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진로(career)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는 초기 성인(emerging adults)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Stringer, 2008). 그러나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확인된 바 없었다.

Meijers(1998)의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과 직업적 정체감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직업적 정체감(vocational identity)이라는 표현을 Holland로부터 제안된 직업 관련 정체감 개념에만 국한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Holland의 '직업적' 정체감의 관점은 '진로' 정체감에서 다루는 탐색과 같은 활동과 동기적 측면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은 청소년기를 포함하는 발달적 과정에서 직업적 정체감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었다. Stringer와 Kerpelman(2010)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업적 정체감 척도(vocational identity scale)는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의 탐색(exploration)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여 연구자들이 대체로 이러한 기준을 통해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lib과 Aun(2010)의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 두 용어를 같은 것으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 이러한 논의는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adolescence), 대학생,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진로정체감과 직업적 정체감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학술적으로는 대상이나 개념, 연구 목적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Keijzer 외(2020)의 연구에서 정리된 내용에서는 기존의 직업적 정체감 연구들 중 '직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을 중요한 그룹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다소 연구의 관심사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성을 고려한 사례로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경로모형과 같이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선행연구들 역시 기존의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진로정체감과 직업적 정체감에 대한 문헌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Praskova et al., 2015). 또한

종합하면, 해외 연구에서는 대부분 '직업적(vocational)' 또는 '직업에 대한' 정체감이라는 의미에서 직업적 정체감을 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이는 진로정체감이 포함하는 개념보다 직업적 정체감이 더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진로정체감은 유형 분류를 통해 지위 유형(status)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이 수행되는 데 반해 직업적 정체감은 실제로는 경력개발 측면이나 특정 직업을 가지게 된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수준(level)에 초점을 두고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관련자료를 고찰할 때 진로정체감과 직업적 정체감을 함께 고찰하되, 해당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

제와 대상을 확인하여 이 연구의 맥락에 적절한 경우만을 인용하였다.

전문직 정체감이라는 용어는 앞서 설명한 진로정체감과 직업적 정체감과는 다르게 특별히 '전문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특정 직업군에서 주로 사용된다. 전문적 자격이 필요하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대표적으로 교사(김정희 외, 2004; 채현순, 장유진, 2016), 간호사(김정희 외, 2010), R&D 기술인력(이승윤 외, 2012), 대학원생(Sweitzer, 2009) 등이 있다. 때로 '전문직업적' 정체감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었다(차명진, 제석봉, 2009).

이러한 경우는 '전문직'이라는 대상을 별도로 설정하여 활용하는 경우로,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과의 연관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체계적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권한과 자율성을 지니는 직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박미란, 2009). 그러나 간호학 분야와 같이 일부 졸업 후 전문직으로의 취업이 전제되어 있는 전공의 경우 이러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정민아 외, 2017; 전현진, 2017; 홍민주 외, 2021). 이 경우에는 기존의 진로정체감, 직업적 정체감 연구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나, 측정도구의 구성요소가'자율성에 대한 신념', '서비스에 대한 신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준거로서의 전문조직 활용'과 같이 나타나 기존의 진로정체감 연구와는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정체감에 대해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동일하였다(김민정,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문직 정체감에 대한 연구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문헌고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진로적응성

진로구성이론(CCT: Career Construct Theory)에서 제안된 진로적응성(career adabt ability) 개념은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의 직업적 과업(task)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를 위해 개인적인 자기조절적(self-regulatory)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심이 있다(Duffy et al., 2015; Savickas & Porfeli, 2012). '적응(adapt)'이라는 표현은 라틴어 '어울리다' 또는 '결합하다'에서 온 것으로, 적응력(adaptability)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때 적응력을 자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직업적인 과업과 같은 낯설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기조절적인 능력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제시되는 적응성(adaptivity), 또는 적응적 성향의 경우 '심리적 스타일'로 표현되며, 적응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으로 여겨진다. 이는 성격 특성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적응성은 적응력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표소휘, 양은주, 2020). 진로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사람은 변화하는 외부의 조건에 대처하는 행동을 기꺼이 할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적응이 기대된다(Savicaks, 1997).

Jordan(2018)은 이러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CCT에서는 진로적응력과 진로정체감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정과 결과 면에서 두 가지를 구분한다는 것이다. 정체감 발달은 탐색이나 몰입과 같은 '과정'과 이로 인해 도출되는 정체성 지위 유형(status)인 '적응 결과'에 관한 것이고, 적응력은 이러한 과정에 이용 가능한 심리사회적 자원임을 보다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다. 최근 Savickas는 Hall(1996)의 경력이론을 통해 진로정체감과 진로적응력을 아우르는 메타이론적 해석이 가능함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진로 전반에 걸쳐 진로정체감과 진로적응력이 두 가지 핵심 역량임을 강조하였다.

진로적응력은 다양한 측정도구를 통해 측정되어 왔으며, 관련 문헌에서는 구성요소 수준에서도 진로정체감과의 유사성이 언급되고 있다. 진로적응력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초기에는 이론적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여 각기 다른 요인을 구성요소로 제안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외 연구들에서 Savickas가 이론화한 진로적응력 척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CAAS: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AAS는 12개국에서 타당화된 연구(Savi

ckas & Porfeli, 2012)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상으로 타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Nye et al., 2018; Xu et al., 2021). 이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적응력의 요인을 정체감 측정의 주요 차원과 함께 연구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Haibo 외(2017)와 같은 연구에서는 Hall(1996)의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진로정체감과 진로적응력을 한 모델에서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진로정체감과 진로적응력이 조절적(moderate)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진로적응력이 높은 개인이 진로정체감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를 상정하여 결과변인인 경력성공, 이직, 직무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Rudolph 외(2017)의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기존의 연구들이 적응성(adaptivity), 적응자원(resources/adaptability), 적응행동(response)를 거쳐 적응 결과로서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분석 결과 진로적응력은 진로정체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r_c = .43).

Porfeli와 Savickas(2012)는 CAAS-USA의 타당화 연구에서 진로적응력이 진로정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진로적응성의 4개 구성요소(관심(concern), 통제(control), 호기심(curiosity), 확신(confidence))와 Porfeli 외(2011)에서 도출된 진로정체감의 6개 구성요소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특히 진로적응력은 심층적 탐색, 몰입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성취에서 혼미에 이르기까지 유형의 분류와도 명확한 부적 영향관계가 있어 적응자원의 감소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Negru-Subtirica 외(2015)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점 연구를 통해 진로적응력(CAAS 척도)과 진로정체감(VISA 척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진로적응력의 구성요소 중 관심(concern) 요인이 탐구와 몰입에 상당한 예측력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몰입은 다음 시점의 진로적응력(통제, 호기심, 확신)에 상당한 영향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진로정체감과 진로적응력 간에는 분명한 개념적 차이가 있으나. 동일 선상에서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마. 진로정체감의 측정 및 구성요소

‘정체감 이론과 진로정체감’ 절에서 다루었던 진로정체감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진로정체감에 대한 측정 역시 학자들마다 의견이 상이한 편이다. 진로정체감을 어떤 방법으로 명확하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역시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진로정체감 연구는 상당히 오랜 시간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의 기존 측정 도구들은 개념적인 한계나 측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Skorikov & Vondracek, 2007a). Waterman(2015)의 연구에서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발달 심리학에 기반한 정체성 연구의 측면에서(Neo-Eriksonian으로 불리는) 새로운 측정도구 개발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의 측정 도구를 기준으로 괄호 안의 세 가지 경향의 측정 방식을 고찰하였으며 결론적으로 가장 최근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개선 모델 도구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① Holland 기반의 진로정체감 측정, ② Marcia 기반의 진로정체감 측정, ③ Marcia 기반 진로정체감 측정의 개선 모델).

1) Holland 기반의 진로정체감 측정

‘진로정체감의 개념적 이해’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연구 전통을 살펴본 것과 같이 전통적인 측정도구 역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형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진로정체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Holland가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의 하위척도인 직업흥미도 검사(VI: Vocational Identity) 척도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맥락을 갖는 도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개념적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정체성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Holland 외(1966, 1980a)의 VI 척도가 진로정체감을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도구는 목표, 관심사, 재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에 가까우며 이러한 종합적인 개인의 정체감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VI 척도 개발과 관련된 MVS 검사는 이분법적인 응답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항 내용에 대해 중립적인 상황을 가정하지 못하며,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같은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 역시 있었다(Reise et al, 2000; Gupta et al., 2015). VI 척도 역시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응답을 ‘그렇다’ 혹은 ‘아니

다'로 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몇 개의 문항에 응답하였는지를 합계 점수로 하여 점수가 도출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Holland et al, 1980a). 국내에서는 김봉환(1997)이 VI를 4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 번안 척도는 이후 국내에서 꾸준히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었다(김헌수 등, 2004; 양진희, 김봉환, 2008; 유순규, 김은주, 2016; 임은미 등, 2011). VI척도는 국내외의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 그 신뢰도나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문항 수가 많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Leong & Morris, 1989). 이는 MVS 도구의 하위척도로서 실제 상담 현장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Holland et al, 1993).

'진로정체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활용된 도구 중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조은주(2001)의 도구가 있다. 이는 박아청(1984)의 도구를 기반으로 한 진로정체감 검사로 해당 검사도구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안정성, 목표 지향성, 독특성,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등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Holland의 전통적 개념과 유사하나 이론적으로 상당히 다른 구성요인을 적용한 것이었다. 이 검사도구는 일부 구인에서 다소 낮은 신뢰도(α = .63)를 보였으며, 이보라 외(2014)의 연구에서는 이 도구가 "진로정체감의 발달에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보다는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성격의 측정에 더 가깝다고 비판하였다. 문항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진로에 관한 나만의 독특한 성격, 적성,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다.", "나에게 강한 매력을 주는 특정 전공분야가 있다" 와 같이 개인의 선호와 관련된 문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부산 지역에서의 2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실시했다는 점 때문에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태선(2003)의 연구 역시 VI를 수정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이 타당화한 것으로서 원 문항에서 1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타당화를 위해 성별, 연령 등의 기준을 활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체 신뢰도(α = .77)가 다소 낮으며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김신정과 김성회(2012)는 비교적 최근에 도구를 새로 개발하였는데, 기존의 여러 이론을 종합하여 정서, 행동, 인지의 3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초기부터 제시되어 온 정체감 이론의 개념에 근거하여 진로정체감에 인지·정서적인 측면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행동 측면에서 실질적 관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Waterman, 1982). 또한 행동적

측면에서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자기상의 정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지·정서와 함께 행동적 측면까지 포함한 안정적인 요인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도구는 기존의 이론적 전통과는 상당히 다른 맥락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만 활용되어 기존의 연구 결과와의 비교나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Gupta 외(2015)의 연구는 VI가 가지는 심리측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척도인 VIM(Vocational Identity Measure) 개발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Holland(1966)의 개념적 정의에 기반하여 단일차원의 구성요인을 가질 것으로 가정하고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 cronbach-α 값은 .97로 상당히 높았다. 이 연구의 장점은 이론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 연구들과의 연결성을 중시하였으며 likert 척도를 사용해 기존 도구의 단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도구에 비해 얼마나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증분타당도를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가 수행되었고, 아직 여러 국가의 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아 이 연구에서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이처럼 MVS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도구의 직업정체성 하위척도는 우수한 심리측정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념적으로 '경력 몰입(commitment)' 중심의 척도이며 경력 탐색을 거의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Porfeli et al., 2011). 그 밖에도 이러한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직업훈련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Heinemann과 Rauner(2008)의 도구같은 경우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도구는 독특하게 질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도제제도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Klotz et al., 2014).

〈표 Ⅱ-2〉 진로정체감 연구의 주요 측정도구 종합(Holland 기반)

도구명	주요 연구	구성요소	특징
VI(Vocational Identity)	Holland et al. (1980a)	◆ 단일차원	이분형 문항
진로정체감 척도	김봉환 (1977)	◆ 단일차원	-
진로정체감 척도	조은주(2001)	◆ 안정성 ◆ 목표지향성 ◆ 독특성 ◆ 자기주장 ◆ 자기존재의식	기존 문항 종합 박아청(1984)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척도	김신정, 김성회 (2012)	◆ 정서요인 ◆ 행동요인 ◆ 인지요인	기존 문항 종합
VIM(Vocational Identity Measure)	Gupta et al. (2015)	◆ 단일차원	

2) Marcia 기반의 진로정체감 측정

다음으로는 Marcia(1980)가 제시한,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과 진로몰입(career commitment)를 두 축으로 하는 연구를 고찰하였다. Marcia(1980)의 연구는 이후 이루어진 유사한 방식의 유형화 연구들의 이론적 기반으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도구들이 Marcia(1980)의 연구와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측정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김아청(1996b; 2003)에 따르면 국내에 최초로 소개된 정체감 척도는 Dignan(1965)의 정체감 도구이나, 이후 Marcia(1966)의 도구가 번안되어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연구들은 Marcia의 ISI(Identity Status Interview) 도구를 번안해 사용하기는 했으나, 반구조화된 면접법을 활용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박아청, 1994; 배제현, 1984; 김순화, 1983). 이 도구의 특징은 상술하였듯이 정체감의 유형화를 통해 측정 대상의 정체감 지위 유형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전부터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어 온 측정도구 중 Adams 외(1979)이 개발한 OM-EIS(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

atus)과 같은 경우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대표적인 도구이다. 그 밖에도 국외 도구 중에서는 Grotevant와 Adams(1984)가 EOM-EIS의 확장된 버전으로 개발한 EOMEIS-2, 이를 개선하고자 Balistreri 외(1995)이 제안한 EIPQ(Ego Identity Process Questionnaire) 조사도구와 Berzonsky 외(2013)의 ISI(Identity Style Inventory) 등의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다.

Marcia(1980) 기반의 도구들은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정체감 유형을 두 개의 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측정도구 역시 이러한 관점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탐색(exploration)과 몰입(commitment)의 2개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탐색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흥미, 가치관, 신념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이다. 탐색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특성에 잘 맞는 직업대안에 대한 학습을 위해 자신과 직업세계를 탐구한다. 이러한 설명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탐색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Porfeli et al., 2013).

몰입(commitment)은 특정한 정체감에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이 그린 자기의 모습에 일치하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진로에 대한 몰입이란 단순한 선택보다도 선택과 더불어 스스로가 내린 선택에 동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Porfeli 외(2013)는 결정(decision) 자체는 사고(thought), 선택(choice)은 행동(behavior), 몰입은 개인의 결정과 선택에 대한 개인적인 연결(personal connection)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전통적인 진로정체감 연구들에서는 선택과 몰입, 이 두 가지 차원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네 가지 지위 유형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박아청, 1996b; 이보라, 2014). EOM-EIS 와 같은 도구들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구성요소는 Marcia 전통에서 제안된 4가지 지위 유형(혼미, 유실, 유예, 성취)을 각기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구성요소화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하나의 유형으로 대상자를 완벽히 분류할 수 없다고 인식한 데서 기인한다(박아청, 1996b).

ISI의 경우 비교적 최근까지 수정된 버전을 제시하는 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다른 도구들의 경우 최근에는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Berzonsky et al., 2013). Berzonsky(1988, 1989)는 세 가지 정체감 지위 유형 스타일을 정보화, 규범화, 확산 회피로 식별했다. 베르존스키는 탐색과 몰입의 차원을 개념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체성 스타일 척도(ISI)의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탐색과 몰입의 측면을

일부 분리하였다. 따라서 ISI는 네 가지 구성요소로 측정되는데, 세 요소는 서로 다른 유형의 탐색(정보적, 규범적, 확산 방지)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하나는 몰입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표 Ⅱ-3〉 진로정체감 연구의 주요 측정도구 종합(Marcia 전통)

도구명	주요 연구	구성요소	특징
ISI(Identity Status Interview)	Marcia(1980)	◆ 몰입(commitment) ◆ 탐색(exploration)	반구조화된 인터뷰
OM-EIS	Adams et al. (1979)	◆ 성취(achievement) ◆ 유예(moratorium) ◆ 폐쇄(foreclosure) ◆ 혼미(diffusion)	-
EOMEIS-2	Grotevant & Adams (1984)	◆ 성취(achievement) ◆ 유예(moratorium) ◆ 폐쇄(foreclosure) ◆ 혼미(diffusion)	-
EIPQ	Balistreri et al. (1995)	◆ 몰입(commitment) ◆ 탐색(exploration)	-
OIS(Occupational Identity Scale)	Melgosa (1987)	◆ 성취(achievement) ◆ 유예(moratorium) ◆ 폐쇄(foreclosure) ◆ 혼미(diffusion)	-
ISI(Identity Style Inventory)	Berzonsky (1989)	◆ 정보탐색 스타일 (informational identity style) ◆ 규범적 스타일 (normative identity style) ◆ 혼미-회피 스타일 (diffuse-avoidant identity style) ◆ 정체성관련 몰입 (identity- related commitment)	정체성 스타일에 대한 유형화 목적

3) Marcia 기반 진로정체감 측정의 개선 모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정체감 측정 도구는 크게 두 가지 주요한 경향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Marcia 기반의 도구들은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 중 가장 활발하게 활용된 것은 Luyckx 모델 그리고 Meeus의 모델이었다(Luyckx et al., 2006a; Luyckx et al., 2006b; Crocetti et al., 2008a , Crocetti et al., 2008b , Crocetti et al., 2010). Luyckx 모델에서는 Marcia 전통에서 다루었던 '탐색' 요인을 다시 두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전반적인(in-breadth) 탐색과 심층적인 탐색(in-depth)로 구분하였으며, 몰입 역시 진로몰입확신(career commitment making)과 진로일체감(identification with career commitment)으로 구분하였다.

Meeus 모델에서는 Luyckx 모델에서의 접근과 유사하게 탐색과 몰입을 2개의 세분화된 구성요소로 제안하였다. 이 모델의 특징적인 점은 몰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고(reconsideration)를 포함하도록 세 가지 차원으로 진로정체감을 새로 정의한 것이다. 새로운 차원은 '진로재고'로 명명되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기존의 2차원적 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유형은 현재의 유형에서 변화하기 위해 대안적인 몰입을 통해 다시금 탐색을 수행하려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Porfeli et al., 2010; Porfeli & Skorikov, 2010). 이러한 진로재고는 기존의 탐색과 몰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탐색과 몰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새로이 창출해내는 독특한 구성요소로 여겨진다. Crocetti 외(2008b)에 따르면 진로재고는 몰입에 대한 재검토를 의미하며 새로운 탐색의 의미를 포함한다. 진로재고는 따라서 현재의 몰입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하게 되며 광범위한 대안의 탐색으로 연결된다. Porfeli 외(2011)는 진로재고 과정이 바람직한 측면과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두 가지 뚜렷한 형태의 재고인 진로자기의심(career self-doubt)과 진로유연성(career flexibility)을 제안했다.

직업정체감 지위 측정도구(VISA: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는 이러한 모델들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는 도구로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Porfeli 외(2009, 2011)이 개발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이보라 외(2014)가 번안한 도구가 활용되고 있다. 이 도구는 Luyckx의 모델과 Meeus의 모델을 참고하여 진로재고를 포함한 3차원적

인 접근을 통해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VISA 도구는 6개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몰입 차원에서는 진로몰입확신(career commitment making)과 진로일체감(identification with career commitment), 탐색 차원에서는 전반적 진로탐색(in-breadth career exploration)과 심층적 진로탐색(in-depth career exploration), 진로재고 차원에서는 진로자기의심(career self-doubt), 진로유연성(career flexibility)이 각각의 구성요소에 해당된다. 이 도구의 경우 개발 당시 66개 항목의 예비용 도구를 개발한 후(4개의 하위 구인) 수정 작업을 거쳐 6개 구인으로 재구성되었다(Porfeli, 2009). 이 도구는 기존의 모델들이 제시했던 추가적인 유형 형태를 통합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개발되었으며, 실제 Luyckx 외(2006b)과 Crocetti 외(2008b)에서 제안한 미분화, 탐색유예(searching moratorium) 지위 유형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보라 외, 2014). 이러한 탐색의 구분은 진로의사결정 연구들에서 뒷받침된다. Gati와 Asher(2005)의 연구에서는 심층적 진로탐색의 비중이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더욱 강조되었다.

몰입을 세분화한 두 요인(진로몰입확신, 진로일체감)은 Bosma(1985)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몰입과 동일시하는 정도를 구별했여 제시하였으며 몰입은 명확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느끼는 데 기여하며, 몰입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본격적으로 자아에 통합된다고 설명한다(Luyckx et al., 2006b). 진로탐색을 세분화한 두 요인(전반적 진로탐색, 심층적 진로탐색)의 차이는 Porfeli와 Skorikov(2010)의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두 가지 탐색의 유형은 요인분석 결과 구분되는 것이 지지되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탐색의 구별이 진로발달과 관련된 다른 지표와 각기 다르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었다(Germeijs & Verschueren, 2006; Skorikov, 2007). Crocetti 외(2008b)은 심층적 탐구가 적응적인 정체성 형성 과정이며, 선행연구에서 외향성, 친화성 및 성실성과 같은 적응적 성격 차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 Ⅱ-4〉 직업정체감 지위 측정도구(VISA) 원 문항

주요 차원	구성요소	구성요소
career exploration	in-breadth Career Exploration	◆ casually learning about careers that are unfamiliar to me in order to find a few to explore further ◆ trying to have many different experiences so that I can find several jobs that might suit me ◆ thinking about how I could fit into many different careers ◆ learning about various jobs that I might like ◆ keeping my options open as I learn about many different careers In-Depth Career Exploration
	in-depth Career Exploration	◆ identifying my strongest talents as I think about careers ◆ learning as much as I can about the particular educational requirements of the career that interests me the most ◆ learning what I can do to improve my chances of getting into my chosen career ◆ trying to find people that share my career interests ◆ thinking about all the aspects of working that are important
career commitment	career commitment making	◆ I know what kind of work is best for me ◆ No other career is as appealing to me as the one I expect to enter ◆ I have known for a long time what career is best for me ◆ No one will change my mind about the career I have chosen ◆ I have invested a lot of energy into preparing for my chosen career
	identification with career commitment	◆ My career will help me satisfy deeply personal goals ◆ My family feels confident that I will enter my chosen career ◆ Becoming a worker in my chosen career will allow me to become the person I dream to be ◆ I chose a career that will allow me to remain true to my values ◆ My career choice will permit me to have the kind of family life I wish to have Career Reconsideration
career reconsideration	Career Self-Doubt	◆ Thinking about choosing a career makes me feel uneasy ◆ When I tell other people about my career plans, I feel like I am being a little dishonest ◆ People who really know me seem doubtful when I share my career plans with them ◆ I doubt I will find a career that suits me ◆ I may not be able to get the job I really want
	Career Flexibility	◆ My work interests are likely to change in the future ◆ What I look for in a job will change in the future ◆ I will probably change my career goals ◆ My career choice might turn out to be different than I expect ◆ I need to learn a lot more before I can make a career choice

출처: Porfeli et al. (2011)

6단계 모델(six-phase model)을 포함한 다양한 진로의사결정 모델에서도 이러한 탐색의 구분이 제시되고 있다. 잠재적인 대안의 사전 검증(prescreening) → 유망한 대안들에 대한 심층적(in-depth) 탐색의 형태와(Gati & Asher, 2001),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broad exploration) → 대안 선택(탐색) → 특정 진로에 대한 몰입 등이다(Germeijs & Verschueren, 2006). van Esbroeck 외(2005)의 모델에서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환경과 자신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탐색 다음으로 광범위한 탐색(broad exploration) → 심층적 탐색(in-depth exploration) 단계를 제안했다(Hirschi, & Läge, 2007).

VISA는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가 이루어졌으며 문항 중 대부분은 초기 성인기(early adulthood)보다는 청년기와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Wendiling & Sagas, 2022). 이러한 관점에서 Wendling과 Sagas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측정 도구 통합을 시도하였다. 이들의 도구는 초기 성인기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유사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기존 연구 성과들을 통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가장 먼저 제안된 도구인 ISI를 반영하되 측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Wendling & Sagas, 2022). 가장 큰 특징은 진로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한 시기와 직업활동을 수행하며 경력에 대한 개발과 몰입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구분한 것이다. 후술할 '유사개념과의 비교' 절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는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대상이 처한 상황적 맥락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탐색과 몰입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CIDI-E(career exploration)와 CIDI-C(career commitment) 두 가지 척도를 개발하였다. 대학생과 같이 진로 대안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의 개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IDE-E가 활용된다.

〈표 Ⅱ-5〉 2000년대 진로정체감 연구의 주요 측정도구 종합

도구명	주요 연구	구성요소	특징
DIDS (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Scale)	Luyckx et al. (2008)	◆ 전반적 진로탐색 (in-Breadth career exploration) ◆ 심층적 진로탐색 (in-Depth career exploration) ◆ 진로몰입확신 (career commitment making) ◆ 진로일체감 (identification with career commitment)	-
U-MICS (Utrecht-Management of Identity Commitments Scale)	Crocetti et al. (2008b)	◆ 몰입(commitment) ◆ 심층적 진로탐색 (in-depth career Exploration) ◆ 몰입에 대한 재고 (reconsideration of commitment)	-
VISA	Porfeli et al. (2011)	◆ 전반적 진로탐색(In-Breadth Career Exploration) ◆ 심층적 진로탐색(In-Depth Career Exploration) ◆ 진로몰입확신(Career Commitment making) ◆ 진로일체감(Identification with Career Commitment) ◆ 진로자기의심(Career Self-Doubt) ◆ 진로유연성(Career Flexibility)	몰입, 탐색, 재고 (reconsideration) 를 세분화
CIDE-E	Wendling & Sagas(2022)	◆ 전반적 진로탐색(exploration in-breadth) ◆ 심층적 진로탐색(exploration in-depth)) ◆ 진로정체감 혼미(career identity confusion) ◆ 과거의 전반적 진로탐색(past career exploration in breadth)	CIDE-E (탐색)와 CIDE-C (몰입) 구분

이처럼 최근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연구들, 특히 도구 개발 연구들은 기존의 진로정체감 차원들을 세분화해 나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진로정체감의 유형화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많은 연구들이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면서 전통적인 4개 지위 유형 분류(혼미, 유실, 유예, 성취)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사례들을 보고하였다(Meeus, 1996). 그 중에서도 Porfeli 외(2011)의 VISA 연구에서는 '탐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다. 진로정체감의 구성요소 중 탐

색을 구별하여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진로결정이 정체감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Porfeli & Lee, 2012). 진로발달적인 측면에서 청년 시기는 스스로에 대한 탐색,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이 모두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탐색을 통해 스스로의 진로와 직업활동에 몰입하고, 전념할 준비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진로정체감에 대한 개발을 의미한다(Super et al., 1996). 그러나 유예 유형에 해당하는 개인은 적극적인 탐색과 성찰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탐색은 몰입과 더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심층적' 탐색으로 이어지지 못한다(Crocetti et al., 2008b). 이러한 시도들은 Berzonsky(1989)의 연구와 유사하게 진로정체감의 유형화를 보다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였다. 또한 이러한 세분화 작업은 혼미 상태를 미분화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까지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유형화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행연구들에서 제안된 유형 분류가 보편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보라 외(2014) 등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지역(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서울, 경기, 충남 등 지역에 한정), 성별 등의 표집기준 등이 편향되어 국내 대학생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새로이 제안한 연구 맥락을 고려했을 때, 팬데믹 상황 등에 의해 국내 대학생 전반의 진로정체감 상태가 새로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새로이 유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바. 진로정체감의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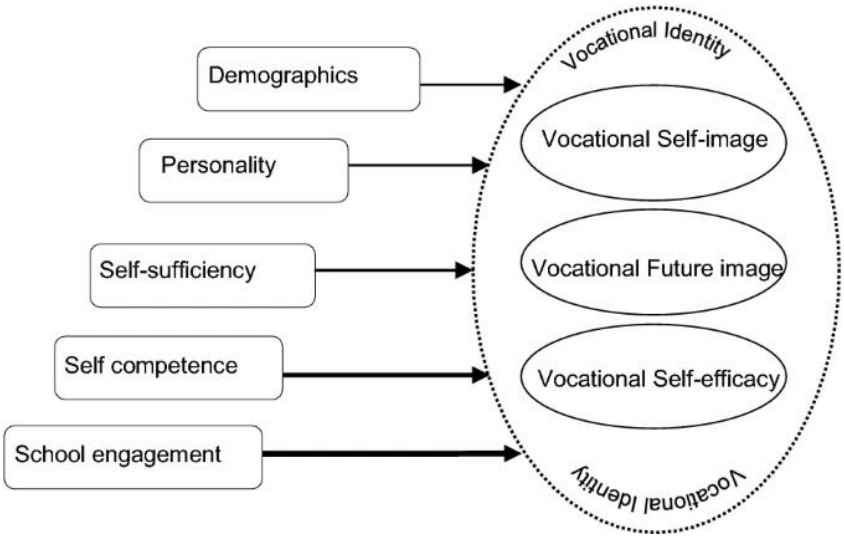
Porfeli 외(2013)의 연구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정리하면서 정체감 연구들을 프로세스(process), 내용(content), 구조(structure)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의 '내용' 관점에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영향요인 연구들을 심리적(psychological), 사회심리적(psychosocial), 맥락적(context)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Chávez(2016)는 진로정체감의 영향요인을 정리하면서 이를 발달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4단계(취학 연령·과업 식별)와 5단계(청년기)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을 민족적·사회적 그룹의 영향(ethnic & socioeconomic group memebership), 학업·학교 능력 및 태도(academic, school ability & attitudes), 활동 및 일 흥미(activities & work interest), 목표 형성 및 안정성(goal formation & stability), 장애극복 능력(ability to overcome obstacles), 동료 그룹의 영향(peer group membership), 자기이해의 통합(integration of self-knowledge), 진로결정능력(career decision-making abilities), 진로선택준비(career choice readiness)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Keijzer 외(2020)의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의 직업적 정체감 형성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직업적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변인군(cluster)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성격적 요인, 자립, 유능감을 포함하는 심리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학교참여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을 분류하였다([그림 Ⅱ-4] 참조). 화살표의 거리는 특성이 진로정체감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서이며, 화살표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을 의미한다. Keijzer 외(2020)는 이러한 영향들을 직업적인 자기상(self-image), 미래상(future-image),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의 경우 직업적(vocational) 정체감에 대한 연구로 대학생에 완벽히 적용시킬 수 있는 결과로 볼 수는 없으나,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참고하여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성격적·심리적 요인과 사회심리적·맥락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이나 청년기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이며, 대상이 적절한 경우 직업적(vocational) 정체감에 대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영향관계는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관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Holland 등의 진로정체감 수준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절에서 제시된 연구들 역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진로정체감 수준을 향상·감소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요인이 진로정체감 형성에 기여하는지를 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Ⅱ-4] Keijzer 외(2020)의 진로정체감 영향요인 고찰 모델

1) 성격적 · 심리적 요인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성격 변인이자 심리적 변인으로는 Big Five 성격요인, 자기결정성 동기, 직업 흥미(vocational interests), 일의 가치(work values), 일 목표(goals) 등의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 성격은 청소년기 이전부터 초기 성인기까지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Borghuis et al., 2017). 대표적인 성격 특성인 Big Five 성격 중에서는 외향성, 성실성과 직업 정체성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에 따르면 신경증 성향은 탐색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Borghuis 외(2020)는 최근 이러한 경향이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진로정체감 선행연구들 역시 정체감 형성에 성격적인 요인이 있다고 가정한다(Skorikov & Vondracek, 2011). 연구에 따르면 Big Five 성격 특성 중에서는 외향성, 성실성 등의 긍정적 성격 요인과 진로정체감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신경증 성격은 경력 탐색과 부적인 관련이 있었다(Hirschi, 2012b; Skorikov & Vondracek, 2012). Soenens 외(2005)는 자기결정성 이론(SDT: Self-Determinant Theory)에 입각해 정체감 유형을 예측하는 정체감 스타일(identity style)과 동기(motivation)의 영향관계를 실증하였다. 연구 결과 동기 측면에서의 욕구 중 자율성 욕구는 탐색과 관련

이 있는 정보 정체성 스타일과 정적(+), 혼미 회피 스타일과는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었다.

직업 흥미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흥미나 특정 직업활동에 대한 선호도로 여겨진다. Hirschi(2011)의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을 분류한 후 판별분석을 통해 Holland의 직업흥미 이론에서 제안된 흥미 요인 중 변별성(differentiation), 일관성(consistency), 일치성(congruence) 등의 요인과 진로정체감이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Savickas 외(2009)도 흥미를 자기 자신을 반영하는 특성 같은 기질로서 설명하여 흥미를 성격적인 요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흥미가 높은 개인이 관련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체감 수준이 높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의 가치(value)와 관련된 연구들은 가치관과 정체감이 삶의 주제를 반영하는 행동과 경험을 통해 연결된다고 보았다. 가치와 정체감은 지속적인 경험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며, 직업활동과 연관된 것일 수 있다(Burke, 1991) 일의 가치와 목표는 모두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서로 구별될 수 있다. 가치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목표에 대한 선호로 이해될 수 있으며, 목표, 그 중에서도 직업 목표는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제약이 있는 상태에 가깝다. 관련 연구들은 직업과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경우에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안정적인 목표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Feather, 1992; Hammond et al., 2010; Porfeli & Vondracek, 2007). 이 연구에서는 일의 가치 측면에서의 동기를 자기결정성 이론(SDT) 관점에서 제안한 자기결정성 진로동기를 자율적 동기, 통제적 동기로 활용하였다. 그 밖의 자율성 관련 요인은 후술할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다루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표 Ⅱ-6 참조>).

〈표 Ⅱ-6〉 진로정체감의 주요 영향요인 - 성격적, 심리적 요인

변인		관계	주요 연구
Big Five		개방성(+) 신경증(-)	◆ Arora & Rangnekar(2016) ◆ Hirschi(2012b)
동기 요인	자기결정성 동기		◆ Soenens et al. (2005)
	내재적 동기	+	◆ Baay et al. (2014)
	학업적 무동기	-	◆ Smitina(2010)
직업 흥미		+	◆ Hirschi, 2011 ◆ 이영숙(2002)
일의 가치		+	◆ Hogan & Roberts(2004)
소명			◆ Hirschi & Herrmann(2012) ◆ Hirschi(2012a). ◆ Lian et al. (2021)
목표 관련 요인	목표지향성 (goal orientation)	+	◆ Creed & Hennessy(2016) ◆ 백소희(2019)
	목표 불안정성	-	◆ Santos(2003)
	완벽주의 성향		◆ Musch(2013)
	내적 진로목표 (instrinsic career goal)	+	◆ Lee et al. (2020)
대처전략		대처전략에 따라 상이함	◆ Robitschek & Cook (1999).

주) 선행연구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영향관계의 방향이 설정된 경우 연구자가 판단하여 (+, -)로 표기

2) 사회심리적 · 맥락적 요인

지금까지 개인의 진로정체감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들과 맥락적 요인들이 연구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맥락적 변수의 영향은 정체감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성격적인 변수들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정체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Kroger & Green, 1996). Keijzer 외(2020)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 중 하나는 '학교'에서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맥락적 요인으로서 정리하였다.

학교에서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학업성취, 학교 참여(school engagement

), 학교에서의 소속감 등이 있다. 학업 능력, 학업성취와 관련해서는 성적이 더 좋은 경우 성적이 낮은 경우보다 진로정체감이 비교적 더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학업적응의 어려움과도 진로정체감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진로정체감 수준은 학업 현장에서의 문제로 인해 낮아질 수 있으며,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이후에 발생할 문제를 완화한다고 보고하였다. 일부 연구는 학업성취가 주요한 선행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Kelly(1992)와 Healy 외(1990)의 연구에서는 학업 능력 또는 학업성취가 진로정체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학업성취가 결과변인으로 활용되어, 진로정체감 수준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국내 연구에 그러한 사례가 많았다. 국외에서는 대체로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지 않고,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논리로서 영향관계를 설정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김관호(2017)의 연구와 같이 일부 연구에서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김관호, 2017; 박연옥 외, 2017; 오충광, 2016).

사회심리적 요인 중에서는 불안과 같은 정서적 요인, 진로역량, 회복탄력성, 자율성, 진로의사결정 관련 요인,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동기요인, 사회적 요인 등이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요인들은 일부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이지만, 상황에 따라 결과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불안과 같은 요인들이다.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자, 선행요인과 결과를 매개하는 변인이기도 하다. 특히 불안은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진로장면에 있어서의 불안과 취업 상황에서의 불안 등 전·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연구에서는 선행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주로 사회불안 등의 특성(trait) 불안, 후행변인으로 정체감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시험불안, 취업불안 등 상태(state) 불안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Vignoli et al, 2005; Yeom & Seong, 2018; 이현주, 2008).

회복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대응과 함께 의사결정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자신의 미래 설계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정체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Fusco et al., 2019; Hjemd

al et al., 2006).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탄력성은 개발될 수 있는 요인이며, 진로정체감 관점에서도 최근의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 요구에 비추어 탄력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행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는 진로탄력성의 관점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Blustein, 2013; Di Maggio et al., 2016; Heinrich & Holzer, 2011).

유사한 관점에서 진로역량(Career competencies) 역시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때 진로역량이란 진로성찰(career-reflection), 주도적 행동을 통한 진로형성(career-forming), 상호작용 행동을 통한 네트워킹(networking)으로 구성된다(Meijers et al., 2013). 자율성은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 측면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부모와의 관계와 함께 연구되어 개인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관점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개별화가 정체감 형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Laman, 1987; Mullis et al., 2009).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는 동기적 요인들은 대부분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탐색과 몰입을 비롯하여 진로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인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진로정체감과 같은 진로 장면의 결과변수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Chen et al., 2018; Scott & Ciani, 2008; Stringer & Kerpelman, 2010). 그러나 진로정체감과 관련하여 진로와 관련된 자율성이나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진로동기를 다룬 연구들은 거의 없었으며, 진로정체감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구보다는 탐색과 몰입으로 구분되는 각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김지근, 이기학, 2016; 김은영 외, 2014; 송현아, 2010; 이지원, 2011; 조유희, 2016; 최동선, 2003).

Levitt-Jones와 Lathlean(2008)은 간호 전공의 학생들에게 소속감이 진로결정 상황에서나 직업활동에서의 어려움 극복에 긍정적인 완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였으며 관련 연구에서도 이를 실증하고 있다(Slaten, 2011; 김창희, 김정이, 2020). 동료 그룹 구성원이 직업 정체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 역시 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동료(peer)의 영향이 어떤 형태로든 진로정체감 발달에 매우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였다. 이는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고, 다양한 종류의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직업적인 경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일시(identification) 측면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설명된다(Batool & Ghayas, 2020; Chávez, 2016; 송보라 외, 2013). 새로이 정체감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스스로에 대한 탐색과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 등으로 인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집단에 대한 동일시 과정도 보다 강하게 느끼게 된다(Elffers, 2011; Johnson, 1987). 사회적인 비교(comparison)을 연구한 Li 외(2015)에서는 진로정체감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것으로 제안된다. Song 외(2016)의 연구에서는 각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따라 동료 애착에 따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혼미 유형의 경우 동료 애착이 낮을수록 오히려 직업정체감 수준이 높아졌다. 최옥현과 김봉환(2007)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대상에 대한 애착인지와 애착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Voite(1999)의 연구는 진로정체감을 진로 측면에서의 인지적 결과변인으로서 살펴보았으며, 그에 선행하여 자아정체감에 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맥락적 요인 중 대표적인 요인으로 민족적 요인(ethnic)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Chávez, 2016). 민족적 요인은 결국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앵글로색슨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멕시코계 미국인의 경우 앵글로색슨계 미국인보다 적업정체성 측면에서 더 폐쇄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Abraham, 1986; Jackson & Neville, 1998). 민족적인 요인 외에도 사회적인 맥락(social context) 요인은 다양한 상황에서 몰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정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ôté, 1996). 이러한 설명은 개인의 정체성 자본(identity capital)을 형성하는 데 있어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나 심리적 특성(자원) 외에도 교육, 사회적이고 직업적인 네트워크, 롤 모델과 같은 사회적 자원(resource)이 중요하다는 것이다(Gonul & Wängqvist, 2022). 실업자를 비롯한 초기 성인기의 특정한 상황에서는 특히 이러한 측면이 부각되어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McArdle et al., 2007).

사회심리적·맥락적 영향요인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러나 명확한 인과적 관계 연구를 통해 실증된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변인간의 선·후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는 아래 표에는 포함하지 않은 다시점 종단 연구나 질적 연구를 통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단순히 진로정체감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모든 요인들을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각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선행연구는 〈표 Ⅱ-7〉로 제시하였다.

〈표 Ⅱ-7〉 진로정체감의 주요 영향요인 - 사회심리적, 맥락적 요인

변인		관계	주요 연구
학업성취		통일되지 않음	◆ Kelly(1992) ◆ Healy et al. (1990) ◆ Meeus(1993)
학교 참여		+	◆ Fredricks et al. (2004)
불안		-	◆ Lopez(1989) ◆ 이현주(2008)
탄력성	회복탄력성	+	◆ Fusco et al. (2019) ◆ 조정희, 조옥희(2021)
	진로탄력성	+	◆ 김주석(2019)
자율성 / 자율성 지지		+	◆ Laman(1987) ◆ 송보라 외(2013)
진로역량 (Career competencies)		+	◆ Meijers et al. (2013)
동기 관련 요인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	◆ Chen et al. (2018) ◆ Scott & Ciani(2008) ◆ Stringer & Kerpelman(2010)
	일반적 자기효능감	+	◆ Green(2020)
	역기능적 진로사고	-	◆ Jo et al. (2016)
	만족도	+	◆ Santisi et al. (2018)
사회적 요인	소속감	+	◆ Elffers(2011) ◆ 김창희, 김정이(2020)
	중요한 타인과의 애착	정체감 유형에 따라 방향 다름	◆ Song et al. (2016) ◆ 송보라 외(2013) ◆ 최옥현, 김봉환(2007) ◆ Voite(1999)
	동료 관계 (peer relation)	+	◆ Qodariah & Pebriani(2017)
	사회적 자본(capital)	+	◆ McArdle et al., 2007
	사회적지지 (support)	+	◆ Meeus(1993) ◆ Meeus & Dekovic(1995) ◆ Stringer & Kerpelman(2010)
	가족 상호작용	+	◆ Hargrove et al. (2002)
	이혼/가족 단절	-	◆ Johnson et al. (1999) ◆ Jowdy(1994)
	사회적 정체감	+	◆ Crocetti et al. (2014)
민족적 요인	통일되지 않음	통일되지 않음	◆ Abraham(1986) ◆ Jackson & Neville(1998) ◆ Morales(1996) ◆ Tosado Ⅱ(2012)

주) 선행연구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영향관계의 방향이 설정된 경우 연구자가 판단하여 (+, -)로 표기

3) 인구통계학적 요인

정체감은 심리사회적 구조이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는 정체감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맥락적인 요인으로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진로정체감 형성과 자기 개념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인'맥락 요인들을 별도로 다루었다. 여기에는 성별, 연령, 사회적 배경, 소속된 집단의 전반적 경제 상태와 같은 환경적 영향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간접적이며 쉽게 수정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Porfeli et al., 2013).

성별은 초기 진로정체감 연구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되어 온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다. Skorikov와 Vondracek(2012)의 연구는 남성과 여성 간의 진로 정체감에 약간의 차이만 있다고 보고하였다. Kroger(1997)의 연구에서도 성별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 일부 성별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으며,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의 비중 차이도 확인되고 있다(백소희, 2019; 조성연, 민경석, 2011) 따라서 진로정체감에 성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관찰되지 않은 다른 외부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Crocetti 외(2014)의 연구에서는 성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일반적인 성인일 경우 혼미(diffusion) 지위 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혼미 상태에 있는 개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분류 가능성이 감소하며 일반적으로 직업 정체성과 같은 특히 중요한 정체성 영역에서는 혼미 지위 유형과 같은 낮은 탐색과 낮은 몰입 상태(탐색↓/몰입↓)일 가능성이 더 낮다고 설명하였다(Bowling et al. 2010). Meeus와 Dekovic(1995)의 연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적으로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대체적으로 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행연구들은 고등학교 학생들과 청년기의 성인이 장기적으로 몰입 수준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Germeijs et al., 2006; Porfeli et al., 2013). Kroger 외(2010)는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 총 72개를 고찰한 결과, 연령대별로 정체감 형성이 일반적으로 더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위 유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유예(탐색↑/몰입↓) 유형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았고, 유실 및 성취 상태는 가장 안정적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같은 요인 역시 모형에 투입된 변인에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Bosma & Kunnen, 2001; Keijzer et al., 2020). 일부 연구에서는 SES가 진로정체감의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통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특정한 경제적 환경과 같은 요인은 진로정체감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양적연구를 통해 실증된 것은 아니나, Kroger(1993)는 1990년대 초 뉴질랜드의 여성들을 연구하며 보다 제한적인 직업 기회와 불확실성 때문에 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았다. Xu와 Lee(2019)의 연구와 같은 경우 홍콩의 사례를 통해 특정 국가에서의 사회적 상황이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다.

2. 진로불안

가. 불안의 개념과 특성 · 상태불안

이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의 유형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 '진로불안(career anxiety)'이라는 변인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먼저 진로불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불안(anxiety)이라는 변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불안이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느낌과 걱정(worried), 비판적 사고라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한다(Pisarik et al., 2017; 김태환, 2019 재인용). Beck과 Emery(1985)는 위험의 자각과 평가에 따라 수반되는 불쾌한 정서로 불안을 정의하였다. 또한 불안은 미래의 상황에 대한 인지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나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지각된 무능력"으로 인한 무력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Barlow, 2000).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불안이라는 심리적 현상이 일종의 상태(state)에 가깝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상태적 불안, 또는 상태불안은 특정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게 될 때 나타나며 정서적인 반응과 정서 상태로 나타난다(Mor et al., 1995). 이러한 상태적 불안의 정도는 특수한 상황에서 확인되며, 비교적 일시적인 불안 상태로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Spielberger, 1983). 상태적인 불안은 종종 특성 불안과 스트레스와 같은 변인과 혼동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기존의 연구들

은 특성불안이 인간의 기저에 작용하는 특성으로서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상태불안과 구별된다고 보았다(Miller & Rottinghaus, 2014). 상태불안은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을 의미하며, 특성불안은 상태불안을 경험할 수 있는 감수성에 가깝다(Spielberger, 1966). 특성불안 역시 진로결정 장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es & Troth, 1974; 기수연, 최바울, 2019).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개인이 그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경우에 상태(state)적인 불안을 느끼는 것인데, 특성불안이 높은 경우 이를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김태환, 2019).

나. 유사개념과의 비교

진로불안(career anxiety)은 불안의 개념적 정의에 근거하며, 진로결정 상황에 놓인 개인이 진로에 대한 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하는 불안을 의미한다. Krumboltz(1992, 1999)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불안을 "zeteophobia" 라는 용어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표현은 '찾아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학교에서 일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의 맥락에서 제시된 것이다.

진로불안은 개념적으로 취업불안(employment anxiety)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취업불안 도구를 바탕으로 진로불안을 측정하기도 하였다(유기흔, 이기학, 2016; 이정흔, 이명선, 2017). 취업불안은 실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업·구직상황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것으로 여겨지는 대상(대졸자·실업자·구직자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체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의 결과변인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 설계는 취업불안을 직접적인 상황과 연관시켜 매우'상태적'인 불안으로 해석하는 것이었다. 최근까지도 국내에서는 진로결정 상황을 가정한 특정한 상황에서의 불안인 진로불안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취업불안'이라는 변인을 통해 '취업'이라는 특정 상황을 가정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있었다(허경민, 이기학, 2017)). 조규판(2008)은 이러한 취업에 대한 불안이 취업의 불확실성에 의해 유발된다고 하였으며, 다른 선행연구들 역시 취업난 상황을 강조하며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취업불안의 개념과 유사하게 진로불안을 정의한 경우에는 진로불안을 취업불안과 유사하게 대학생의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태불안의 일종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해석도 물론 가능하나, 그 밖에도 특성(trait)적인 불안 측면에서 진로불안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박영우, 1994; Saka et al., 2008). 진로불안과 취업불안은 공통적으로 당장의 위협적이거나 두려운 상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시간관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Saunders et al., 2000). 다만 취업불안의 경우가 보다 직접적인 취업 상황과 연결되어 보다 상태적인 불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취업불안의 경우에는 취업에 성공했을 때 거의 해소될 수 있으나, 진로불안의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취업에 잠정적으로 성공한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 등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진로결정 상황에서의 불안을 연구한 Pisarik 외(2017)은 참여자들이 대부분 진로결정과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와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의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연구 결과 압박감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진로결정에 선행되는 학업이나 진로결정을 요구하는 주변 환경의 시급함이있다. 이들은 대부분 진로결정과 관련된 이러한 상황에서 여유가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겪는 대상이 모두 진로결정에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었다. Pisarik 외(2017)을 비롯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불안이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김진종, 2012; 김홍석, 2012).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하면, 진로불안이란 진로결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에 의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 또는 정서적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특성불안보다는 상태적 불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두 측을 모두 고려하는 넓은 개념이다. 진로불안은 대표적인 유사변인인 취업불안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취업에 직면하여 불안을 느낀대는 의미의 취업불안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진로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불안을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가까우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 미래의 진로결정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김태환, 2019; Pisarik et al., 2017). 최근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침체와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개인이 가지게 되는 불안 역시 이러한 진로불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LOZANO-GUTIÉRREZ, et al., 2021).

다. 진로불안의 측정 및 구성요소

‘진로불안의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에 대한, 또는 진로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주장한 온 연구들은 상당히 많았으나 진로불안에 대한 별도의 문항을 개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일부 연구들은 일반적인 불안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진로결정 상황을 가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진로불안과 비슷한 개념적 논의를 통해 결과를 해석하고 있었다(김민정, 김봉환, 2007; 주명진, 김정남, 2011). 국내에서도 별도로 개발된 진로불안 도구를 사용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진로불안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김민선, 2018; 문화진, 2019; 오한솔, 이지혜, 2020; 허경민, 이기학, 2017). 일부 연구들은 Saka 외(2008)의 도구를 번안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며(오한솔, 이지혜, 2020; 문화진, 2019; 김민선, 2018), 진로불안 측정을 위해 조규판(2008)이 개발한 취업불안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김홍석, 2012; 허경민, 이기학, 2017). 조규판(2008)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은 취업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진로 장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것인데. 이는 취업불안과 진로불안이 개념적으로 유사하며 불안 측정을 위한 상황의 설정만이 일부 다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규판(2008)은 취업이라는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할 때 느낄 수 있는 불안의 개념으로 취업불안을 정의하고, 기존의 도구를 개선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취업불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취업불안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연구하기 위해 일부 취업스트레스와 같은 변인을 활용하고 있었다(김혜정, 2004; 박미진 외, 2009; 신현규, 장재윤, 2003). 도구 개발 과정에서는 문헌 고찰과 함께 국내외의 유사 척도의 문항을 활용하였고,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취업 상황에서의 불안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1차로 도출된 구성요인은 ‘취업불안 유발상황’, ‘취업불안 유발원인’, ‘취업불안 상태’로, 최종 도구에서도 3개 차원의 구조가 확인되었다. 첫 번째 요인인 취업불안 유발상황은 구체적인 장면이나 상황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인 취업불안의 원인은 취업불안을 유발하게 되는 이유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다(윤성원, 2017). 마지막 요인인 취업불안 상태 취업에 대한 불안에 따른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는 취업만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어진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기은(2016)은 조규판(2008)의 취업불안 척도 중 취업불안상태 요인을 진로 영역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진로불안을 측정하였다.

Saka 외(2008)의 연구는 이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불안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초기 연구에서는 불안뿐만 아니라 비관적 관점, 자기개념과 같은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서적 변인들을 체계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결정의 어려움 관련 정서 및 성격 척도(EPCD: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를 개발하였다. 불안 척도는 과정(anxiety about the process), 불확실성(anxiety about uncertainty), 선택(anxiety about the choice), 결과(anxiety about the outcomes) 총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요인은 의사결정 과정에 앞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인인 불확실성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안, 모호성에 대한 낮은 허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인 선택은 선택 과정에서의 불안으로, 완벽주의로 인해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불안, 잠재적인 선택지 상실에 대한 불안, 잘못된 선택에 대한 불안, 불완전한 선택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Serling & Betz, 1990). 마지막으로 결과는 진로에 대한 선택·결정 후 잘 맞지 않는 진로를 선택하여 실패하는 결과에 대한 불안과 실패에 대한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을 의미한다(Saka et al., 2008).

민경희와 김봉환(2014)은 국내 상황에 맞게 Saka 외(2008)의 도구를 수정하여 정서·성격적 진로문제(EPCD)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용타당도 검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EPCD 척도의 불안 도구를 3개 차원(과정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선택에 대한 불안)으로 수정하였다. 김민선과 연규진(2014)은 동일한 도구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축약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불안요인(불확실한 미래, 자신의 선호, 선택, 결과, 과정에 대한 불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때 '불안' 요인은 진로결정 상황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오는 '불안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정과 불확실성, 선택, 결과 등에 대한 불안을 측정한다. 자기개념 및 정체감의 경우 낮은 자아정체감이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민경희, 2012).

그 밖에도 최근 Tsai 외(2017)이 개발한 미래 직업에 대한 불안(FCT: Future Career Anxiety) 측정도구가 있다. 이 도구는 단일구인으로 측정되며'나는 노동시장(job market)에서의 강한 경쟁 때문에 미래의 나의 직업에 대해 걱정한다', '나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할까봐 미래의 나의 직업에 대해 걱정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ahmud 외(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도록 도구가 수정되어 제시되었다.

종합하면,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두 가지 도구 중 이 연구에서는 Saka 외(2008)의 EPCD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번안한 민경희와 김봉환(2014)의 불안 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실제로 조규판(2008)의 도구를 수정한 진로불안 도구 역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다차원적으로 진로불안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민경희, 김봉환, 2014), 공인타당도 등의 후속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구성요인이 불안의 원인이나 결과를 체계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민경희, 김봉환, 2014).

〈표 Ⅱ-8〉 진로 · 취업불안의 주요 측정도구와 구성요소

도구명	주요 연구	구성요소	특징
Emotional and Personality Career Difficulties Scale (EPCD)	Saka et al. (2008)	◆ 과정에 대한 불안 (anxiety about the process) ◆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anxiety about uncertainty) ◆ 선택에 대한 불안 (anxiety about the choice) ◆ 결과에 대한 불안 (anxiety about the outcomes)	하위척도인 불안 척도를 통해 측정
Future School and Career Anxiety Inventory	Vignoli & Mallet(2012)	◆ 학업·진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의 실망에 대한 두려움 ◆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상실에 대한 두려움	청소년 대상 진로에 대한 불안
Future Career Anxiety(FCT)	Tsai et al. (2017)	◆ 단일요인	미래 직업에 대한 불안을 측정
취업불안 척도	조규판(2008)	◆ 취업불안 유발상황 ◆ 취업분안 유발원인 ◆ 취업불안 상태	취업에 대한 불안
진로불안 척도	유기은(2016)	◆ 단일요인(취업불안 상태)	조규판(2008)의 도구 중 일부 사용
불안 척도(정서·성격적 진로문제 검사도구)	민경희, 김봉환 (2014)	◆ 책임에 대한 불안 ◆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 과정에 대한 분안	진로에 대한 불안 Saka et al. (2008) 기반

3. 자율적 · 통제적 진로동기

가. 자율적 · 통제적 진로동기의 개념

동기는 개인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김아영(1998)은 동기를 “행동을 개시하게 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며, 강도와 끈기를 결정하는 힘”으로 설명하였다(Campbell & Pritchard, 1976). 따라서 진로동기 또는 진로(career)에 대한 동기란 넓은 의미에서 진로와 관련된 동기로서 개인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보경, 2012). 진로와 관련된 동기 이론 중 대표적인 것이 London(1983)이 제시한 진로동기 이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동기를 진로탄력성(resilience), 진로통찰력(insight), 진로정체감(identity)으로 이어지는 모델로 설명하면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진로동기와 관련변인들의 관계를 탐색한 몇몇 연구들의 경우 이러한 진로동기 관점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강명희 외, 2016; 신혜진, 2016; 윤정안, 서지윤, 2013; 윤정욱 외, 2021). 그러나 London이 제시한 진로동기 이론은 개발 당시부터 주로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 왔으며(윤정안, 서지윤, 2013), 재직자나 초기경력자를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경력개발을 위한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그 자체가 일종의 동인(drive)이나 목표(goal)라기보다 동기부여를 위한 선행요인으로서 동기 변인을 제시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Covington, 2000a).

자율적, 통제적 진로동기의 개념은 이러한 기존의 진로동기 연구들과는 달리 ‘자기결정(self-determine)’ 관점을 적용한 자기결정성 이론(SDT: Self-Determined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 자기결정성 진로동기는 진로결정 장면에서의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제안된 변인이며(Deci & Ryan, 1994),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개인이 어떤 일을 수행하게 하는 힘으로 동기를 정의한다. 이러한 동기가 질적인 측면에서 당시 다른 이론들에서 제안된 동기와 다르다는 것이 자기결정성 이론의 핵심적인 부분이다(정은교, 2021; Ryan & Deci, 2000). ‘자기결정성’ 이라는 용어 역시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일에 대한 동기가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재직자와 달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로동기는 '일(work)'에 대한 동기와 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에 대한 동기는 '개인의 존재 내·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집합이며, 일과 관련된 행동을 시작하고 방향, 강도, 끈기를 결정한다'고 정의된다(김아영, 2003; Latham, 2005). 이러한 가정이 가능한 것은 대학생과 같이 진로결정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London(1983)이 제시한 진로동기의 개념과 같이 경력개발을 위한 행동을 가정하기보다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직업생활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이로 인한 동기부여 과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동기 연구는 '왜 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며(정은교, 2021), 이러한 동기부여는 이후의 진로의사결정(career decision making)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구체적인 직업과 직업생활에 대한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동기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Chaves 외(2004)의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외재적이고 통제적인 동기로 여겨지는 외부적 보상과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무동기와 통제적 동기에 가까운, 즉 수단으로서 일에 대한 동기를 갖는 대상의 경우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 측면에서 동기부여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역시 후술하겠지만 일에 대한 동기(work motivation)로 연구된 선행연구들과 더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같은 맥락을 공유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진로동기'라는 표현보다는 '자기결정성 진로동기'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정은교(2021)은 진로동기 도구를 개발하면서 진로동기가 다양한 결과 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이며, 이후 순조로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TW: School to Work Transition)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진로동기 측면에서의 연구가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실증연구들에서는 자기결정성 관점을 반영한 자율적 동기가 더 긍정적인 행동 및 결과변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Deci & Ryan, 2008a).

나. 자율적 · 통제적 진로동기의 구분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는 앞서 설명한 자기결정성 진로동기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외부의 상황과 제약 등과는 무관하게 내재적으로 발생하는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자율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였다(Csikszentmihalyi, 1975). Deci와 Ryan(1994)은 자기결정성 이론(SDT)을 제안하면서 기존의 동기 이론들이 '양(quantity)'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동기의 유형(type)에 따른 질적인 측면의 차이를 간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Gagne & Deci, 2005). 자기결정성 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같은 수준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도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동기의 질(quality)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차별화를 통해 기존 동기 이론들이 다루지 못했던 동기부여를 통한 실제 행동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진로동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내재적인(intrinsic) 동기는 자율적이며, 외재적인(extrinsic) 동기는 통제적일 수 있지만 외재적(extrinsic)인 동기 중에서도 보다 자율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다. Ryan과 Deci(2000)가 제안하였던 초기 SDT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자율적(autonomous)인 동기의 선형적인 구조로 보았으며 이를 내적(internal)인 조절과 외적(external)인 조절 과정을 거치는 동기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자율적'인 방향의 동기와 '통제적'인 방향의 동기는 동기 부여의 다른 방향(orientation)을 고려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향은 동기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동기부여 행동의 기초가 되는 자기조절(regulatory)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Deci & Ryan, 1994; Ryan & Deci, 2000). 따라서 자율적 동기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과 외부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재화되지 못한 외부의 상황에 의한 동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촉발된 행동의 규제를 수용하고 통합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자율성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율적이거나 통제적인 동기가 차츰 구분된다(Deci & Ryan, 1991; 정은교, 2021 재인용).

다. 자율적 · 통제적 진로동기의 측정 및 구성요소

1) 자기결정성 동기 측정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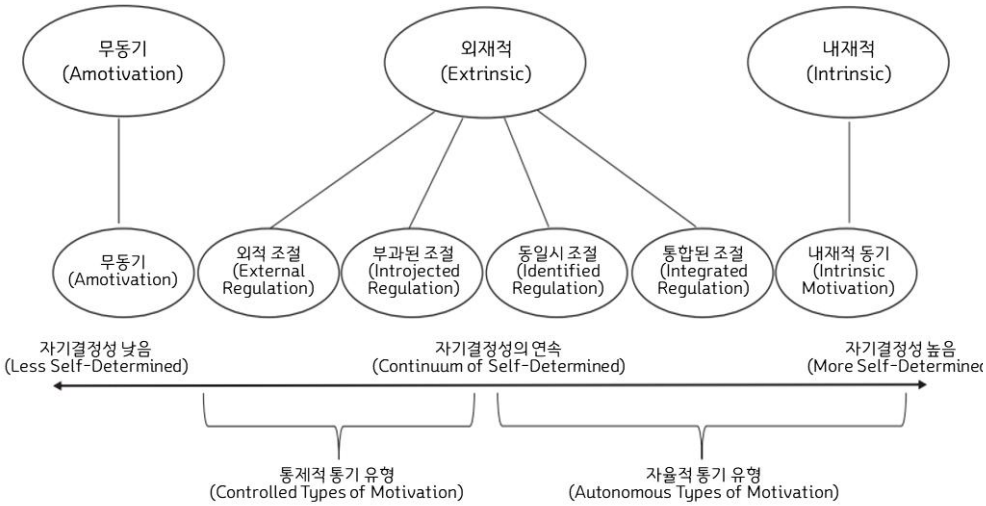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를 구분하여 측정한 도구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제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된 도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결정성 관련 동기의 하위요인은 크게 5가지로 유사하게 제시되고 있다(Ryan & Deci, 2000). 자기결정성 이론 관점에서의 동기는 교사, 학생, 대학생, 근로자 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하여 개발되어 왔다(정은교, 2021). 이들 도구는 공통적으로 4개의 하위요인인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동일시 조절, 내재동기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밖에 무동기의 경우 최근의 도구에서는 대부분 하위요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Gagné et al., 2010). 이 다섯 가지 유형의 동기는 자기결정성 이론(SDT)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 밖에 '통합적 규제'는 자기 결정적인 외적 동기의 한 형태로 제안된다. 통합적 규제의 경우 일부 분야의 연구(e.g. 학업동기)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대상인 경우 외적인 동기를 내재화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Howard et al., 2021).

초기 SDT 이론이 무동기-통제적 동기-자율적 동기의 선형구조를 제안했던 만큼 자기결정성 동기 각각의 하위요인은 무동기(amotivation)에서부터 내재적이고 자율적인 동기까지 연속적으로 설명된다. 먼저 '무동기'는 행동에 대한 동기, 의지가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의 행동에는 의도성과 개인적 인과관계, 즉 행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지각하는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무동기는 활동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Legault et al., 2006; 김아영, 2002; 박병기 외, 2005).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동일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은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 외재적(Extrinsic)인 동기에 해당한다. 이들 중 '외적 조절'과 '부과된 조절'은 비교적 통제적인 외재 동기이다. 외적 조절은 외부의 보상(reward)이나 수요(demand)를 충족하기 위한 동기이다. '부과된 조절'은 "개인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느끼

는 죄책감 또는 수치심을 없애거나 자존심,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발현된 동기"를 의미한다(정은교, 2021 재인용). Ryan과 Deci(2000)는 이 두 가지 외재적인 동기에 대해 Heider(1958)의 귀인 이론(attribution theory)에 근거하여 동기의 원인이 여전히 외부적(external)인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동기들은 통제적(controlled)으로 여겨진다(Ryan & Deci, 2000; Heider, 2002).

반면 '동일시 조절'과 '통합된 조절'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적(internal)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일시 조절은 개인이 "특정 활동의 가치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발현되는 동기"를 말한다(정은교, 2021 재인용). 동일시 조절은 여전히 외부적인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강조된다. '통합된 조절'은 외재 동기 중 가장 자율적인 동기이다. 이 동기는 개인의 자아와 충돌하지 않으며 개인이 인식한 외적인 규제, 통제가 완전히 개인의 가치와 요구와 동화된다. 따라서 통합된 조절 형태의 동기가 많을수록 외적인 동기는 더 자율적, 자기결정적이게 된다(Ryan & Deci, 2000). 그러나 이는 여전히 외부적(external)인 측면의 조절 과정을 거치며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율적이거나 내재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내재적 동기와 마찬가지로 의지적 성격으로 인해 자율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Van den Broeck et al., 2011). 마지막으로 '내재 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SDT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기결정적(self-determined) 동기의 원형이다. 이 동기는 개인의 활동에 있어서 외부적인 조절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만족과 가치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자기결정지이고 자율적인 목표는 지속적인 노력을 쏟을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Sheldon & Houser-Marko, 2001). 이렇게 세 하위요인은 자율적(autonomous) 동기로 취급된다. 아래 [그림 Ⅱ-5]는 Ryan과 Deci(2000)가 제안한 SDT 모델을 Howard 외(2021)가 수정한 것으로 통제적(controlled)인 동기와 자율적(autonomous) 동기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Ⅱ-5] 자기결정성 동기의 선형 모델

출처: Howard et al. (2021)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기결정성 동기 측정도구 외에도 일에 대한 동기라는 측면에서 개발된 도구들도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된 진로동기와 유사한 도구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대부분 각기 다른 대상을 목적으로 도구가 개발된 경우였으며 구성요소 수준에서 상당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서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Gagné 외 (2015)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한 기존의 동기 척도를 개선하였다(Gagné et al., 2010). MWMS(Multidimensional Work Motivation Scale) 도구는 Motivation at Work Scale(MAWS)을 개선한 것으로, 도구를 수정하면서 기존 도구들을 수정하여 다른 대상에게 적용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왜 이 일을 합니까?”라는 문항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외재적인 동기가 될 수 있는 임금, 또는 경제적 수익을 위해 일을 한다는 문항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근로란 경제적인 대가를 위해 고용되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이 경우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보상과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Guay(2005)의 도구는 진로 분야에서 자기결정성 동기를 측정한 거의 유일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무동기, 외적 조절, 동일시 조절, 내적 동기의 하위요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독특한 점은 이 경우에는 '무동기(amotivation)'와 '통합된 조절'이 하위요인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 도구를 진로결정 자율성(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라는 변인으로 번안하여 진로결정 및 준비 과정에서의 자율성 척도로 활용한 바 있다(조규판, 장은영, 2021; Guay et al., 2003; Guay, 2005). 이 도구는 진로 선택 과정과 관련된 8개의 행동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진로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와 같은 항목이 제시되며, 응답자들에게 외재적 동기,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재적 동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문항(4문항씩)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된다(한주옥, 2004).

〈표 Ⅱ-9〉 자기결정성 진로동기와 유사한 맥락의 진로 관련변인

변인명	기반 연구	구성요소	국내 관련연구(2000-2022)
직업가치	Brown(1996), Marini et al., (1996)	• 내재 직업가치 • 외재 직업가치	강원덕(2010)(내재적 직업가치)
전공선택동기/ 진로선택동기	-	• 내재적 동기 • 외재적 동기	김혜영 외(2019)(내재,외재를 구분하여 사용) 박해임 외(2017)(내재,외재를 구분하여 사용) 신선임(2018)
진로동기	London(1983)	• 진로정체성 • 진로통찰력 • 진로탄력성	강명희 외(2016) 윤정안, 서지윤(2013)
미래지향목표	Nurmi(1991)	• 내재 지향목표 • 외재 지향목표	조한익, 김영숙(2016) (내재 지향목표 사용) (내재,외재를 구분하여 사용)
생애목표	Schmuck & Sheldon(2001)	• 성취지향목표 • 삶지향목표	신종호 외(2001)
결과기대	Betz & Voyten(1997)	• -	김순미, 이현림(2008) 주영주 외(2015)
성취동기	McClelland (1965)	• 미래지향성 • 책임감 • 자신감 • 모험심 • 도전의식 • 과업지향성	강원덕(2010) 임선아, 강성은(2013)
진로결정 자율성	Guay(2005)	• 내적 동기 • 확인된 조절 • 부과된 조절 • 외적조절	김지근, 이기학(2016) 박고운, 이기학(2007) 성소영, 배성아(2015) 송현아 외(2010) 송현심, (2010)

주) 정은교(2021)가 제시한 '진로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다룬 동기 요인의 예'를 수정·보완

2) 자율적 · 통제적 진로동기 측정 도구

앞서 살펴본 측정도구들은 자기결정성의 정도가 ‘무동기’에서 ‘내재 동기’에 이를수록 강하다는 SDT에서의 선형적(linear) 구조를 가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선형 구조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를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Covington(2000)은 외재적, 내재적 동기를 양립가능성을 지난 동기의 다른 속성으로 보았으며, 개인이 각각의 동기 부여를 위해 가치(value)를 비롯해 다양한 영향에 의해 학습성취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김아영, 2003). 일부 연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이 통제적이면서 동시에 자율적인 동기의 수준 역시 높을 수 있다고 여겼다. 최근 자기결정성 동기 도구를 개발한 정은교(2021)의 도구 개발 과정에서도 자율적 진로동기의 선형적 구성의 근거가 약하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자율성 지수(Relative Autonomy Index : RAI)’와 같은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SDT 외에도 다양한 이론이 내재적·외재적 동기 구분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동기 부여는 반대 방향으로 합하여 총 동기의 점수와 같이 사용되지만, 내재적 동기의 수준이 외적 보상의 추가로 인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때로 각각의 동기에 대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Deci & Ryan, 2008a).

그 밖에도 자기결정성 동기와 관련한 Deci 외(1999)의 메타분석 결과는 대체적으로 외적 보상이 내적 보상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외적인 보상으로 인해 활동에 대한 흥미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행동 수행과 목표 달성에 의존하지 않는 일부 보상은 내재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는 두 가지 동기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나, 각각의 동기는 하나의 점수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Judge 외(2005)가 비판한 바와 같이 자율적인 동기와 통제적인 동기가 서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통제적인 동기가 긍정적인 행동·결과 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즉, 자율적 동기와 선형적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증 연구들에서도 이를 구분해서 사용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통제적 동기와 자율적 동기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에 이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Koestner

et al., 2008; Howard et al., 2016; Scott Rigby et al., 1992). 일에 대한 동기 측면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Tremblay 외(2009)의 Work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 Scale(WEIMS)가 개발된 바 있다.

정은교(2021)는 최근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진로동기 도구를 측정하면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자기결정성 진로동기는 '일에 대한 가치(value)'와도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가치는 욕구(needs)에 기반을 두며 목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Locke & Latham, 1990; Latham & Pinder, 2005). 가치는 개인의 삶의 지침으로 기능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목표(trans-situational goals)에 가깝다. 정은교(2021)의 연구에서는 진로동기와 유사하게 직업결정과 미래 진로에 대한'목표'측면을 다루는 변인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한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를 보인다.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는 '일에 대한 동기'라는 측면에서 자기결정성 진로동기를 정의하고, 최근에 국내에서 자기결정성 이론(SDT)의 맥락 안에서 개발된 도구인 정은교(2021)의 도구를 활용하여 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Guay(2005)가 개발한 진로결정자율성 척도(CDMAS: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ous Scale)를 김지근과 이기학(2016)이 번안한 도구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서울 지역, 그 중에서도 여대생을 대상으로 도구가 번안된 점, 이후 연구들에서 하위요인별로 탐색행동과 같은 변인에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송현아 외, 2010; 한주옥, 2004). 또한 최근 연구들에서 제기된 비판을 수용하여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의 차이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가 정체성 유형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Koestner et al., 2008). 세부적인 내용은 '변인 간의 관계'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었다.

4. 전공 적합성

가. 전공 적합성의 개념

전공 적합성(PM fit: Person-Major fit)은 '개인-전공 적합성'이라고도 하며 개인-환경 적합성(PE fit: Person-Environment fit)의 연구 전통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는 개인-환경 적합성에서의 환경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적합성 개념 중 하나이다(윤경신, 2019). 개인-환경 적합성(PE)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은 개인이 최적의 환경을 선택하고자 하며, 최적의 환경일수록 긍정적인 결과변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으며(Durr & Tracey, 2009), 개인은 직업환경뿐만이 아니라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는 이론적 설명에 근거한다. 이러한 관점은 능력과 흥미를 강조하는 직업적응이론(TWA: Theory of Work Adjusment)(Dawis, 2005; 황매향, 2010)으로부터 온 것이다. 개인-환경 적합성의 개념은 어떠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내적인 일관성과 환경(외부) 또는 조직(내부)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주요 선택 및 우발적 사건에 대한 조정으로 이해되어 왔다(Ensign, 2001). 이때 구체적으로 적합성은 "구성원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구성체와 잘 맞는다고 믿는 개인의 주관적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조윤형 외, 2013). 따라서 연구자들은 개인-환경 간의 적합성이 다양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개인이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개인-조직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 개인-직무 적합성(person-job fit), 개인-집단 적합성(person-group fit)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연구들은 이러한 여러 형태의 적합성의 개념이 다르며, 개인의 성과나 결과변수에도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Kang & Seog, 2021).

이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Holland(1997)는 직업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적합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데, 관련 연구자들은 '적합성'개념이 대학에서 학업 환경과 학생 발달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Holland 기반의 적합성 연구들은 직업선택 유형(RIASEC)이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서 더 나아가 교육 환경에서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Rocconi 외(2020)는 최근 연구에서 Holland가 설명한 전공 적합성에 대한

세 가지 핵심 가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① 개인은 자신의 성격 유형과 유사한 전공을 선택한다, ② 전공은 행동, 가치, 관심 및 능력의 다양한 패턴을 강화하고 보상한다, ③ 학생들은 개인의 지배적인 성격 유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다 발전하고 성공한다). Meyer 외(2022)의 연구에서는 독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 전공을 전환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은 자신의 직업적 관심과 환경 사이에서 가능한 가장 적절한 일치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적합성 이론과 Holland 이론의 관점이 대학 환경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대학이라는 교육 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직장과 재직자의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적합성 연구들은 한 가지 관심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조직 내에서의 필요(needs), 가치(value) 등의 적합성은 개인-조직(PO) 적합성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를 구분하여 이는 Kristof(1996)가 구분한 방식과 같이 상호보완성에 대한 적합성 분류(보충적, 보완적), 필요-공급(needs-supply) 적합성, 수요-능력(demand-ability) 적합성과 같은 형태로 연구되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환경 적합성에 기반한 연구들 역시 하나의 공통된 개념으로 묶이기보다는 다양한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각각의 연구에서 환경과 조직, 전공 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Cable & DeRue, 2002; Duffy et al., 2015; Knapp et al., 2020; 조윤형 외, 2013).

국내에서는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개인-환경 적합성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특정 분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된 경우들이 많았다(최동주, 이묘숙, 2019; 황정희, 이병철, 2019; 홍미영, 김정매, 2021). 필요-공급 적합성은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수요가 전공수급에 적합할 때 발생한다. 수요-능력 적합성은 개인이 수요를 인식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을 때 적합성이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 적합성(PM fit)이 직무 적합성과 유사하게 연구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공이'직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조윤형 외(2013)의 연구는 대학환경에서의 적합성을 개인-대학, 개인-전공으로 구분하며 대학 적합성에는 학교라는 조직, 전공 적합성에는 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직무적합성을 대응시켰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수행된 국내 연구들에서도 반영되어, 직무적합성과 유사한 형태의 전공 적합성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박정아, 2019; 민자원, 2020).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는 전공(PM fit) 적합성을 '개인이 대학이라는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전공 분야에 대한 내용적 환경 전반에 대한 인식된 적합성'(fitness)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박정아(2019) 등에서 적용하고자 한 개인-직무 적합성(PJ fit)의 개념과 유사한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

나. 전공 적합성의 측정

앞서 개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공 적합성(PM fit)을 비롯한 적합성 연구들에서 적합성의 개념은 학자들 간 정의가 일관적이지 않은 편이다. 이는 개별 연구에서 의도하고 있는 연구 목적이 각기 다르며, 그에 따라 조작적으로 정의되는 '적합성'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박원우 외, 2010).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연구자의 의도를 통해 연구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측정도구 역시 어떤 맥락인지 잘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Knapp et al., 2020). 예를 들어 전공(PM fit) 적합성의 경우 개인-조직 적합성 개념을 반영하여 활용된 도구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전공 적합성 개념에서의 '전공'을 대학에서의 교육환경과 인적 네트워크와의 상호작용, 사회화 과정 등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Chen & Yao, 2015.

박원외 외(2010)의 연구에서는 Ostroff & Schulte(2007)의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적합성 개념을 3개 기준을 통해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로는 ① 환경을 이루는 대상에 따라 적합성 개념을 구분하는 방법이다(개인-조직 적합성(PO fit)/개인-집단 적합성(PG fit)/개인-개인 적합성(PP fit) 등). 두 번째는 ② 적합성의 일반적 모드(general modes of fit)라고 불린다(개인-개인(PP fit)/개인-상황(Person-Situation fit), 또는 상황 간 적합성(SS fit) 등). 마지막으로, ③ 적합성의 개념화(Munchinsky & Monahan, 1987) 방식이 있다(유사적 적합성/보완적 적합성 등). 이 연구에서 정의한 '적합성' 개념은 이 중 두 번째 방식인 '일반적 모드' 분류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개인과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이 '주관적'인 특성을 갖는 개인인지, 또는 '객관적'인 특성을 갖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객관적인 특성과의 비교일 경우 환경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적합성을 판단하게 되며, 전공(PM fit) 적합성은 그 중 개인 수준의 적합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개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필요-공급(needs-supply) 적합성, 수요-능력(demand-ability) 적합성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합성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Kang과 Seog(2021)은 전공 적합성이 필요-공급(NS fit)과 수요-능력(DA fit)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는 주장하였으나, 수요-능력 적합성과 수요-공급 적합성의 차이가 모호하여 구별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적합성의 판단 대상이 되는 환경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다. 이들은 연구에서 크게 3가지(Self-Concept, Goal, Social) 차원을 구성요소로 갖는 전공 적합성의 SAFE 모델(State Authenticity as Fit to Environment)을 제안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적합성 측정과 관련하여 또 다른 주요 이슈는 측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측정도구의 구성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적합성을 측정하는 방식인 경우(직접 측정)와 개인과 환경을 별도로 조사하여 비교하는 방식(간접 측정)에는 여전히 연구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으며, 직접 측정 방식에서도 응답자가 적합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개인과 환경이 상호 적합한지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molar approach) 방식과 개인에게 개인의 상태에 대한 문항과 환경에 대한 문항을 별도 측정하게 하는 분자적 접근(molecular approach) 방식이 구분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적합성 측정도구를 통해 얻는 정보원의 차이에 의해 주관적 측정(개인)과 객관적 측정(개인+외부 정보원)으로도 구별될 수 있다.

각각의 방법은 서로 장단점이 있으나(Kristof, 1996; 박원우 외, 2010), 이 연구에서는 직접·주관적 측정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간접·객관적 측정 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상당히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에 적합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주관적 측정 방식에서의 '인지된 적합성' 관점이 실제 연구 결과에서 예상되는 결과변수들을 더 잘 예측한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많은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Cable과 Judge(1997)는 이를 객관적인 실제 적합성보다 개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적합성이 이후의 행동 등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조윤형 외, 2013; Kristof-Brown et al., 2005). 이 연구에서는 또한 전공 적합성이 학업 지속이나 잔류를 예측한다기보다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안과 진로정체감을 예측하는 변수로서 활용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에 대한 동기 외에 진로 측면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직무와 유사한 단일 요소로서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측정하는 것이다(박원우 외, 2010; Bohndick, 2018). 이는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상당히 좁게 해석하여 전공, 또는 학과라는 물리적 환경과 교수, 동기 등 사회적 네트워크 환경을 배제하고 해당 전공과 관련된 진로 분야와 직업적인 내용과 같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측정과 객관적 측정 도구를 비교해 보면 최근 많이 활용되는 객관적 측정 방법은 주로 Holland가 개발한 직업성격검사인 RIASEC에 기반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연구들이 직업성격 유형을 통해 파악된 개인의 정보와 전공,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유형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Holland는 직업선택 이론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흥미를 반영한 성격이 하나 이상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특정한 환경 역시 이처럼 유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성격 유형과 유사한 환경에 있다면 이에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며 이와 일피하는 다양한 행동과 가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다(Rocconi et al., 2020). Milsom과 Coughlin, (2017)은 3자리로 코딩되는 개인의 유형 코드와 전공 코드를 비교하여 가장 우세한 유형 코드와의 거리에 기준하여 순차적으로 낮은 값을 가지도록 계산 방식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의 코드가 REI(Realistic, Enterprising, Investigative)이며 전공 코드가 RAE (Realistic, Artistic, Enterprising)인 경우 11점을 얻는 방식(C = 3(3) + 2(1) + 0)이다. Rocconi 외(2020)의 일치지수 계산 방식과(2단위까지 비교) Tracey와 Robbins(2006)의 도구(RIASEC을 기반으로 각도와 거리를 종합하여 점수 계산) 역시 계산 방식은 서로 다르나 Holland의 도구에 기반하여 적합성을 측정하는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구형 구조(sphere)를 바탕으로 직업성격유형(OPT: Occupational Personality Types)과 개인의 차이를 확인하는 도구 역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Tracey, 2002).

반면 간소화된 10문항 이내의 도구로 측정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Cable과 DeRue(2002)의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기본적인 개인-환경(PE) 적합성 이론에 근거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이라는 장소, 학업에 있어서 전공이라는 중요한 전제와 맞물려 개인과 전공(major) 간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들로 발전하였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Cable과 DeRue(2002)가 개발한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 도구를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가 사용되고 있었다. 다음 표는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전공 적합성 측정도구와 관련된 국내외 측정도구를 제시한 것이다. 적합도 측정 도구의 경우 공통적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된 3-8문항 정도로 문항 수가 적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환경에 따라 구인을 구분하거나 단일 요인으로 측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인-직무 적합성 도구를 바탕으로 전공 적합성 도구 척도를 개발하되 요인구조를 재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최근 제안된 SAFE 모델과 같은 대안적 모형은 문항 수준에서 개발된 바가 없으므로, 기존의 필요-공급(needs-supply) 적합성, 수요-능력(demand-ability) 적합성에 근거하여 문항을 구성하되 구성요소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수용하여 데이터 수집 후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Ⅱ-10〉 국내 전공 적합성 및 관련 측정도구 문항 비교

변수명	연구명	연구자	문항	특징
개인-전공 적합성	대학생의 자기결정성과 개인-전공적합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입학전형 및 전공계열별 분석	박정아 (2019)	1. 내가 가진 지식, 기술, 능력은 내가 배우는 전공의 요건에 잘 맞는다. 2. 나의 현재 전공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준다. 3. 나의 현재 전공은 나의 성격과 잘 맞는다. 4. 종합적으로 볼 때, 나는 나의 전공과 적합하다고 느낀다. 5. 나는 다른 전공을 택하고 싶다. 6. 나는 전공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 7. 나는 전공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8. 나는 전공과 관련분야의 일을 하고 싶다.	조윤형 외(2013), 김미희(2014) 참고 / 민자원(2020), Yoon et al.(2021)에서 활용
	개인-학교, 개인-전공 적합성과 취업가능성,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멘토링의 조절효과	조윤형 외 (2013)	1. 전공이 나와 적합하다고 느낀다. 2. 다른 전공을 택하고 싶다(역문항). 3. 전공을 이해하는데 문제 없다. 4. 전공은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일으킨다. 5. 전공과 관련분야의 일을 하고 싶다.	Kristof(1996), Lee et al(2001), 성지영 외(2008) 기반 개발 (7문항 중 2문항 삭제)
개인-조직 적합성	갈등의 경험이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정언 (2019)	1. 나의 목표는 팀의 목표와 잘 맞는다. 2. 나의 추구 목표는 팀이 지향하는 목표와 비슷하다. 3. 나의 목표와 팀의 목표는 조화를 이룬다. 4. 나의 가치와 팀의 가치는 조화를 이룬다. 5. 나의 가치는 팀의 가치와 잘 맞는다. 6. 나의 추구 가치는 팀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슷하다.	Cable & DeRue(2002) 기반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과 과업 및 맥락 성과 과업 중요성과 자율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지영 외 (2008)	1. 귀하와 귀하의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는 어느 정도 잘 맞습니까? 2. 귀하의 개인적 성격은 귀하의 조직의 성격(특성)과 잘 맞습니까? 3. 귀하의 가치관은 귀하의 조직의 가치관과 잘 맞습니까? 4. 전체적으로 볼 때 귀하와 조직은 잘 맞습니까?	-
	개인-직무 적합성과 과업 및 맥락 성과 과업 중요성과 자율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미희 외 (2014)	1. 전공이 나와 적합하다고 느낀다. 2. 다른 전공을 택하고 싶다(역문항). 3. 전공을 이해하는데 문제 없다.	

5.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관계

이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진로정체감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구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알려진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status)이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분류되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유형의 분류에 관련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진로정체감 수준 외에도 분류의 기준이 되는 각 차원에 관련된 변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룬 연구들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진로재고(reconsideration) 역시 진로정체감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재고 역시 탐색(exploration)과 몰입(commitment)을 바탕으로 하는 진로결정의 발달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행변인 선정을 위한 문헌 고찰에서는 탐색과 몰입을 중심으로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과 직업적 정체감(vocational identity)의 유사성을 고려했을 때, 직업적 정체감 문헌 역시 고찰에 일부 포함하였다. 이 경우는 진로정체감 측정을 위한 도구를 활용하였거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만을 포함시켰다. 관련 내용은 '유사개념과의 비교' 절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관계 분석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회귀분석 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대한 선행요인을 확인한 경우는 많이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불안과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이 진로정체감에 따른 결과변인(예: 진로미결정(career indecision))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확인하여, 내용 검토 후 이론적 고찰 내용에 포함하였다.

가. 변인 간 관계 설정 기저이론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SDT)과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PE fit theory)은 맥락적인 측면과 동기적 측면의 요인들이 어떻게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특히 이들 이론은 심리적 요인이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에서 중요한 두 축인 탐색과 몰입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진로불안과 두 유형의 자기결정성 진로동기(자율적, 통제적), 전공 적합성이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SDT)은 주로 동기 측면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학생의 진로 측면에서는 자기결정성 동기와 진로탐색행동과 같은 행동 변인의 관계를 연구하여 왔다(Van den Broeck et al., 2008). SDT는 동기 수준이 높은 개인이 진로정체감을 비롯한 정체감 형성에 보다 긍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자기결정성 이론을 근거로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결과변수를 연구한 경우도 제시되고 있다(Guay, 2003). 그러나 자기결정성 이론과 진로정체감의 변인 간 관계에서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상태와의 관련성을 가정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연구의 필요성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는 진로결정에 선행하는 일종의 결과변수로서 진로정체감을 강조하였으며, 보다 발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유형에 속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심리상태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동기는 직접적으로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Ariani, 2017), 개념적으로 진로결정 장면에서의 불안을 야기하는 예측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불안이 주목받고 있으며, 비대면 학습 상황에서의 대인관계와 사회적인 관계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계적인 지원을 통한 진로정체감 발달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나. 변인 간의 직접효과

1) 진로불안과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관계

진로불안은 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에서는 몰입 측면에서의 부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과 관련해서는 혼미(diffusion) 단계에서 성취(achievement)로 변화하기 위한 단계로서 유실(foreclosure)과 유예(moratorium) 지위 유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유실, 유예 유형에서는 불안감이 높은 경우 현재 몰입 상

태에 대한 자기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는 이후의 적절한 대안 탐색과 추가적인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이러한 불안 상태에 있게 되면 발달이 저해될 뿐 아니라 우울증, 대인기피와 같은 심각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조규판, 2008; Fuqua et al., 1988; Miller & Rottinghaus, 2014; Porfeli et al., 2011). Lopez(1989)는 불안이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직업 정체성과 부적 영향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β = −.45, β = −.39). 관련 연구들에서는 불안을 느끼는 개인은 직업 대안에 대한 탐색과 진로결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진로정체감, 또는 직업적 정체감 형성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초기 정체감 연구들은 각 정체감 유형에 따라 불안 수준을 비교하여 유형 간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불안이 정체감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임을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예(moratorium) 유형에서 불안의 영향이다. Rotheram-Borus(1989)는 유예 유형의 개인이 가장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일반적으로 혼미 유형과 함께 높은 불안 상태로 보고된다(Crocetti et al., 2008b). 또한 낮은 몰입과 비교적 높은 탐색 수준으로 이해되는 유예 상태는 일반적으로 자율성와 불안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의 갈등과 같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유예 상태의 낮은 몰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성취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몰입이 중요한 차이를 도출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Bradford & Barber, 2005; Song et al., 2016).

Crocetti 외(2009)의 연구는 불안의 영향의 확인을 위해 종단적 연구를 시행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불안은 기능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잠재성장모델링(GMM: Growth Mixture Modeling) 방법을 사용해 1,31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5시점 종단 연구를 수행하였다. 5년 간의 연구 결과 불안은 정체감 발달에서 탐색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몰입 측면에 강한 영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β = −.14). 국내 연구들은 김태환(2019)의 연구에서는 취업 상황에서의 불안 요인인 취업불안(employment anxiety)과 진로탐색행동(career ecploration behavior), 진로선택몰입(commitment to a career choice)을 포함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취업불안이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β (탐색행동) = −.13

5, β (진로선택몰입) = −.303). 불안이 진로결정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Hartman et al., 1985).

또한 만성적인 불안과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성향은 진로재고 측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Porfeli et al., 2013). 즉 불안한 개인은 더 많이 재고하며, 더 잦은 빈도로 재고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진로재고의 부정적인 측면이 불안이라는 성향적인 측면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불안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 약속을 탐색/재검토하도록 자극함으로써 긍정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가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Erikson, 1950). Lilevoll(2013)은 메타분석을 위해 정체감 문헌을 검토하면서 정체감 유형과 불안에 대한 상관이 연구마다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실 유형은 불안과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연구도 있었다(Cramer, 2000; Owen, 1984). 연구 결과 유실(foreclosure) 유형은 다른 집단 대비 남성 표본에서 불안 수준이 높았으며, 혼미(diffusion) 유형 대비 성취(acheivement), 유예(moratorium) 집단은 불안 수준이 낮았다.

Keijzer 외(2020)의 연구에서는 기존 정체감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정체감 형성은 주로 진로정체감, 직업적 정체감(vacational identity)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기존 연구들이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성격적 요인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였으며(Skorikov & Vondracek, 2012), 보편적인 성격 특성인 Big 5와 진로정체감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격 요인인 신경증은 경력 탐색 측면에서 관계가 있었다(Brown & Hirschi, 2013; Clancy & Dollinger, 1993; Lounsbury et al., 1999).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진로불안은 개념적으로 개인적인 특성(trait) 불안이라기보다는 상태적 불안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부정적인 성격적 요인이 정체감에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불안이 진로결정 상황에서 형성된 특성과 같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김유리, 이제경, 2016).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진로 장면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진로불안이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이 유형 분류 시 혼미, 유예와 같은 유형에 분류될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관계

자기결정성 이론(SDT)에 따르면 진로동기와 같은 동기 요인은 일반적으로 진로정체감의 중요한 두 하위 구성요소인 탐색(exploration)과 관련된 행동을 촉진하고 몰입(commitment) 역시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체감 형성에 필수적이다(Deci & Ryan, 1994). 특히 내재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사람은 탐색과 목표 지향적인 행동에 참여하며 이러한 과정은 결국 직업 정체감의 발달로 이어진다(Jordan, 1963). 국외에서는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보다는 직업적 정체감(vocational identit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동기 부여가 직업적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Blustein, 2013; Skorikov & Vondracek, 2012). 진로정체감과 직업적 정체감이 거의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 기준인 탐색과 몰입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 몇몇 연구들만이 진로 분야에서의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한 동기의 영향을 확인하여, 관련 연구는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은 아니나 진로정체감 측정의 중요한 차원 중 하나인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져 왔다(김지근, 이기학, 2016; 송현아, 2010; 조유희, 2016; 최동선, 2003). 자기결정성 동기, 진로결정자율성 등의 표현으로 제시된 자율적 진로동기 측면은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조유희, 2016). 진로동기 외에도 다양한 동기 관련 변인들이 탐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성취동기와 같은 동기 요인은 최근 진로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같은 변인과 개념적으로 관련된다(Lent et al., 2000).

동기의 질적 측면에서 탐색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도 있었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구분하여 설명할 때 외재적 동기는 주로 예상되는 경력·진로 측면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제공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Keijzer et al., 2020). 이러한 영향관계는 최근 제안되고 있는 전반적(in-breadt

h) 탐색과 심층적(in-depth) 탐색 측면에서도 설명된다. Dietrich 외(2013)의 연구는 Hirschi와 Läge(2007)의 진로의사결정 모델을 참고하여, 진로탐색 행동이 전반적 탐색과 심층적 탐색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개인의 동기가 탐색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구체적인 전공(major) 선택 과정의 대학생들을 종단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몰입 이후 몰입의 강화와 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는 심층적 탐색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의 정체감 연구들이 주장한 바와 유사한 결과였으며, 탐색과 몰입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사례로서 몰입 측면에서도 동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Luyckx et al., 2006). 김은영 외(2014), 이지원(2011)의 연구 역시 동기 요인과 개인의 자기결정적 동기가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Paixao와 Gamboa(2021)의 최근 연구는 14-21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측정도구는 Career Exploration Survey(CES)를 사용하였으며, 정보 탐색의 양(amount of information)과 자기에 대한 탐색(self exploration) 등으로 경로를 구분한 모델을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자율적(autonomous) 동기는 모든 탐색 영역에 유의한 직접효과(.16~.2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적(controlled) 동기는 '자기에 대한 탐색'에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는 탐색을 매개하여 진로결정(진로미결정으로 측정)에 매개효과 역시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zonsky의 정체감 스타일(identity style)을 통해서도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 정체감 지위 유형을 예측하기 위한 변인으로서 제안되었으며, 지위 유형의 형성 메카니즘을 설명한다(Berzonsky, 1989; Berzonsky & Neimeyer, 1994; Berzonsky & Kuk, 2000). 정체감 스타일은 개인의 안정적인 대처 방식에 가까우며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세스로 볼 수 있다. 크게 3가지로 나뉘는 스타일 중 '정보 지향적' 스타일은 탐색을 예측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Berzonsky와 Neimeyer(1994)에 따르면 정보 지향적인 개인은 유예 및 성취 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정체감 스타일과 같은 인지적 과정이 탐색에 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몰입과 정체감 스타일의 영향관계는 가정하지 않았으며, 몰입의 수준에 따라 정체감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조규판과 장은영(2012)은 자율적 동기와 유사한 변인인 진로결정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진로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높은 경우에 진로탐색행동을 적극적으로 수

행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를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하위 요인 중 내적 동기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 탐색 측면에서 자율적 동기가 높을수록 탐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Guay, 2005; Guay et al, 2003). 이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자율적 동기의 경우에 탐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이기학, 박고운, 2007).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와 같은 외재적이고 통제적인 동기는 현재 학교 등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활동과는 심리적인 거리가 멀다(Yeager et al., 2012). 따라서 통제적인 동기는 자율적인 동기에 비해 비교적 심리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거나, 없을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며 정체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내재적이거나 자율적인 동기 수준이 낮은 경우, 몰입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Yeager et al., 2012). Shin과 Kelly(2013)의 연구에서도 미국과 한국 대학생에서 공통적으로 내재 동기가 진로정체감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β = .16, β = .17).

'자율적 진로동기 및 통제적 진로동기의 측정 및 구성요소'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일부 연구들에서는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를 구분한 연구 설계를 통해 두 동기 요인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Waterman과 Waterman(1976)은 내재 동기가 외재 동기보다 직업 정체성과 더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Van den Broeck 외(2021)의 메타분석 연구는 일에 대한 동기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내재적(intrinsic) 동기와 함께 자율적인 외재적(extrinsic) 동기 역시 중요하며, 통합된 외재 동기는 개인이 몰입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한 노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Gagné와 Deci(2005)의 연구는 조직에서의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에 일에 대한 자율적 동기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진로 장면에서도 유사하게 자율적인 동기가 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변수와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진로동기의 두 형태인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율적 동기 수준이 높은 개인은 유형 분류 시 성취 유형에, 통제적 동기 수준이 높은 개인은 성취 및 유실 유형에 분류될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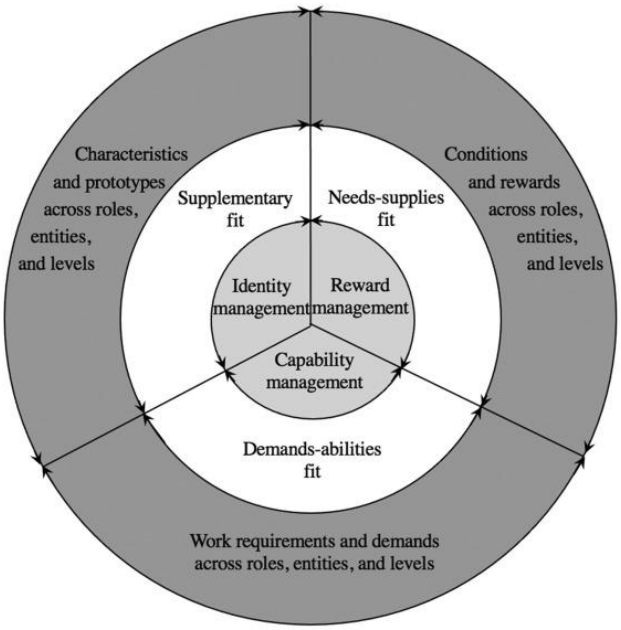
3) 전공 적합성과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관계

전공 적합성과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에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개인과 전공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진로정체감 차원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전공'에 따라 개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 절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전공'이라는 학업환경은 대학생들의 학습 자체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Smart 외(2006)는 이러한 환경이 직업적이고 개인적인 자기 인식, 역량, 태도, 관심 및 가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하였다. 여러 연구들은 전공 적합성이 졸업 후의 직업만족도나 직업에 대한 적응 등을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몇몇 연구들은 대학 재학 중의 여러 결과변수(예: 성적, 학교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Feldman et al., 2004; Rocconi et al., 2020). Pawlowska 외(2014)의 연구는 Big Five 성격변인으로 개인-환경 적합성을 평가하여 이 연구와의 방향성은 다소 달랐으나, 개인과 학습환경 간의 만족도와 성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여 개인과 학습환경 간의 적합도가 대학 과정 중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Holland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학업 환경에서 대학생의 학습 패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이 낮은 경우에도 사회화를 통한 변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는데(Rocconi et al., 2020), 이는 학업 환경에서 학생의 성격 유형이 지배적 유형과 다른 경우에도 여전히 대학에서 전공을 비롯한 환경의 영향이 있다는 의미이다. Sawitri와 Dewi(2015)의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전공 선택의 적합성(Congruence)으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적합성이 직접적으로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에 정적인 영향(β =.25)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전공 적합성과 유사한 학업 적합성(academic fit)은 더 큰 직접효과(β =.44)가 있었다.

Milsom과 Coughlin(2017)의 연구에서는 전공과의 적합도가 높을 경우 전공을 포함한 전반적 학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Gilbreath 외(2011)의 연구에서는 필요-공급(NS fit) 적합성에 따라 대학에서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만족도는 몰입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며, 진로몰입과 전공몰입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몰입과의 영향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Hatcher et al., 1992; Ostoff, 1992; 양은주, 2017; 이미균, 한향숙, 2020). Meyer 외(2022)의 연구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높을수록 전공 전환이 낮게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다른 연구들과 대조적으로 불만이 있는 경우에 모두 전공 전환을 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이 높을 경우 오히려 더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특정 국가(독일)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STEM 분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Le 외(2014)의 경우에도 성별, 전공 성적 등을 투입한 모델에서 전공에 대한 적합도가 전공 전환에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향후 수행할 직업, 직업선택, 진로설계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공적합은 미래의 진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에 대한 몰입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Kang & Soeg, 2021; 민자원, 2021).

최근 Guan 외(2021)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충적(supplementary) 적합성과 보완적(complementary) 적합성 개념을 기초로 하여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전공 적합성과 같은 요인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며 이는 "개인의 직업적(vocational)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정체감을 직업 역할(role)과 가치, 흥미와 같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자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완적 적합성은 특정 환경에서 직무역할 등과의 비교를 통해 개인이 스스로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정보의 원천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필요-공급(NS fit) 적합성과 수요-능력(DA fit) 적합성을 포함하는 '보완적' 적합성이 소속에 대한 욕구와 자기 계발 욕구와 같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관성 있고 성취감 있는 직업적 정체감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Ashforth & Schinoff, 2016 ; Brewer, 1991 ; Vignoles et al., 2006). 이러한 상호작용은 전공이라는 환경 내에서의 진로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Ⅱ-6] 개인-환경 적합성 상호작용 모델
(ICR model: identity-capability-reward model)

출처: Guan et al. (2021)

다. 변인 간의 매개효과

1)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의 관계에서 진로불안의 매개효과

앞서 자율적 진로동기, 통제적 진로동기와 진로정체감 유형, 진로불안 간에는 개별적인 영향관계가 가정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진로정체감 이론에서는 정체감 형성을 위한 과정은 정체감의 혼란을 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불안과 스트레스가 동반된다고 설명한다(Dorn, 1992). 특히 불안은 몰입 측면에서 정서적인 측면의 동일시와 애착 등의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몰입과 탐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태환, 2019; Bartley & Robitschek, 2000; Hardin, 2006). 동기적인 변인은 일반적으로 정체감과 관련이 있는 행동과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된다. 사회인지진로이론(SCCT: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삶 전반에 걸쳐 외재적 동기를 내면화하고, 내재적 동기를 통해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김지연, 이기학, 2014; 하재영, 2019).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성 측면의 동기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는 선행요인으로 여겨진다(Amoura et al., 2014; Fernet & Austin, 2014; Sandrin et al., 2019). 이처럼 각 변인들 간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나,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하나의 통합적인 모델로서 살펴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시 말하면 개인은 동기부여가 되더라도 실제 행동이나 정체감의 형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로불안과 같은 정서적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다. 불안과 탐색 측면에서의 종단적 변화를 연구한 Germeijs 외(2006)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불안과 탐색적 행동(전반적 탐색, 심층적 탐색)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진로미결정 수준이 직업선택 과업을 실제 수행하는 데 진로선택에 대한 불안이 중요한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층적 탐색에 보다 간접적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동기의 경우에도 심층적인 진로탐색에는 불안의 매개효과로 인한 간접적 영향보다 동기적인 측면의 직접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와 같이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를 구분한 경우에 이러한

설명은 더 명확하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가 각기 진로정체감이나 진로불안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Veiki, 2011).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자율적 동기가 불안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통제적 동기의 경우 상관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Ariani, 2017; Veiki, 2011),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인 측면의 변인과 불안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Xiao et al., 2014). 종합하면, 진로 장면에서 동기와 같은 인지적 요인은 심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요인인 불안은 이를 매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자율적 동기, 통제적 동기가 진로불안을 매개하여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 전공 적합성과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의 관계에서 진로불안의 매개효과

전공 적합성은 우선 대학, 전공에서의 적응과 관련하여 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자원(2021)의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공 적합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학점과 기본심리욕구,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에서도 전공 적합성이 β =.422로 상당히 높은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서의 부적응과 불안감, 신경증 등의 높은 관련성을 가정할 때, 전공 적합성이 낮을 경우 불안감을 더 쉽게 느끼고, 진로정체감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공을 선택했을 때 적합성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흥미를 덜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불만족은 스트레스와 불안 등의 부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 적합성이 “대학생의 심리나 학업, 취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조윤형 외, 2013). Edwards 외(1998)는 스트레스는 사람이나 환경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상호작용으로 인한 불일치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직무적합성 관련 연구에서는 수요-능력(DA fit) 적합성의 경우 스트레스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긴장(tension & strain)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Edwards, 1996; Park et al., 2012). 낮은 적합성은 일반적으로 직업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영향과 관련이 있다(Yu, 2009).

또한 전공 적합성은 불안을 통해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uan 외(2021)는 사이버네틱 개발 모델(a cybernetic developmental model)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자기조절을 시작하기 위한 입력'이라고 설명하였다. 자기조절·통제를 의미하는 사이버네틱 모델에 의하면 적합성의 불일치는 개인 스스로를 조절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시작점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목표 설정,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다양한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개인의 특성, 상황변화의 영향을 받는다(Guan et al., 2021). Wickramasinghe(2016)는 낮은 역할 명확성(clarity),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등이 낮은 비지지적(non-supportive) 근무 환경이 개인의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가 이를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전공 적합성 역시 맥락적 요인으로서 낮을 경우 불안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정체감 측정의 한 차원인 몰입 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Jiang 외(2019)가 진로탐색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 고찰을 통해 밝혔듯이 탐색 측면 역시 불안과 함께 개인-환경 적합성과 관련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을 통한 직업세계 진입을 가정하고 탐색이 이후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낮은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 탐색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전공 적합성의 동기적 기능을 불안이 저해할 수 있다.

〈표 Ⅱ-11〉 변인 간 관계 선행연구 종합

변인 간 관계	구분	주요 연구	참고사항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탐색 측면에 영향	◆ 김태환(2019)	◆ 취업불안 → 진로탐색
	몰입 측면에 영향	◆ Crocetti et al. (2009)	-
		◆ 김태환(2019)	◆ 취업불안 → 진로선택몰입
	진로정체감 유형 분류에 영향	◆ 김유리, 이제경(2016).	◆ 유형 분류에 영향
	기타	◆ Lilevoll(2013)	◆ 메타분석
		◆ Keijzer et al. (2020)	◆ 문헌고찰
		◆ Hartman et al. (1985)	◆ 진로미결정에 영향
기저이론: 자기결정성 이론(SDT)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탐색 측면에 영향	◆ Shin & Kelly(2013)	◆ 내재적 동기 -진로정체감
		◆ Dietrich et al. (2013)	◆ 전반적 탐색과 심층적 탐색 구분
		◆ Waterman & Waterman(1976)	◆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구분
		◆ Paixao & Gamboa(2021)	◆ 자율적, 통제적 동기 구분
		◆ 김지근, 이기학(2016)	◆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관여행동
		◆ 송현아(2010)	◆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탐색행동
		◆ 조유희(2016)	◆ 자기결정성 동기 → 진로탐색행동 ◆ 고등학생 대상
		◆ 최동선(2003).	◆ 동기 → 진로탐색행동
		◆ 조규판, 장은영(2012)	◆ 동기 → 몰입
	몰입 측면에 영향	◆ Luyckx et al. (2006)	◆ 동기 → 몰입
		◆ 이지원(2011)	◆ 동기 → 몰입
	기타	◆ Berzonsky(1989)	◆ 정체감 스타일에 대한 연구들
		◆ Berzonsky & Neimeyer(1994)	
		◆ Berzonsky & Kuk(2000).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 불안 →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 Amoura et al. (2014)	◆ 이론적 근거 제공
		◆ Germeijs 외(2006)	◆ 이론적 근거 제공
		◆ Xiao et al. (2014)	◆ 동기 요인 → 불안 → 몰입
		◆ Fernet & Austin(2014)	◆ 자율성 → 스트레스
		◆ Sandrin et al. (2019)	◆ 동기 → 스트레스
기저이론: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			
전공 적합성 →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탐색 측면에 영향	◆ Guan et al. (2021)	◆ 이론적 근거 제공
		◆ Sawitri & Dewi(2015)	◆ 적합성 → 진로탐색
	몰입 측면에 영향	◆ Smart et al. (2006)	◆ 전공 적합성 → 대학생활적응
		◆ Milsom & Coughlin(2017)	◆ 전공 적합성 → 만족도
		◆ Gilbreath 외(2011)	◆ 필요-공급 적합성 → 만족도
	기타	◆ Nicolson & Bessl(1997)	◆ 이론적 근거 제공
전공 적합성 → 불안 →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 민자원(2021)	◆ 전공 적합성 → 대학생활적응
		◆ Guan et al. (2021)	◆ 이론적 근거 제공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진로정체감을 유형화하고, 도출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을 바탕으로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의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해 구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① 진로정체감 유형화(연구문제 1), ② 경로분석(연구문제 2, 3)의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각 단계는 몇 가지 세부적인 분석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① 진로정체감 유형화' 단계에서는 네 가지 세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1) 분석에 활용할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평균, 표준편차, 분포 확인 등)을 수행한 후 2) 잠재프로파일 분석(LPA: Latent Profile Analysis)을 통해 진로정체감을 유형화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Mplus 7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성별과 지역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3) 적정 유형 수를 적합도와 관련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였다. 4) 마지막으로는 결정된 각 유형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명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때 Marcia(1980)가 구분한 진로정체감 전통에 따라 지위 유형을 구체화한 Porfeli 외(2011)의 연구를 비롯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형별로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먼저 확인하고, 각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표준 Z-score를 계산하여 유형별 특성과 기준점수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도출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따라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등 경로모형에 투입된 관련변인(related variable)의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 단계는 '② 경로분석' 단계로,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을 범주형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범주형 변수가 포함된 경로분석(path analysis)'으로 불리며 종속변수가 다항목의 범주형 변수일 때 활용되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유사한 접근이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1) 명명된 유형을 종속변수로써 데이터에 포함시킨 후 기술통계, 다변량 정규성 등을 확인하여 자료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2)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경로분석 결과와 적합도를 통해 적절한

모형인지 확인하는 '분석모형 검증' 과정을 거친다. 분석모형의 검증은 전체 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이후 이 모형을 기준으로 모델을 구성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3) 최종 경로모형을 바탕으로 종속변수인 진로정체감 유형에 따라 구분된 각 모델의 경로분석을 실시한다. 이후 각각의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경로계수를 해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출된 지위 유형의 수에 따라 여러 모델이 분석되며, 각 모델에 투입되는 자료 수가 상이하다. 전체적인 연구 설계를 종합하면 [그림 Ⅲ-1]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STATA 16과 Mplus 7을 활용해 분석되었다.

연구단계	세부 연구절차	분석방법
① 진로정체감 유형화	1) 분석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 2) 진로정체감 유형화 3) 적정 유형 수 결정 4) 유형 명명 (유형 특성 확인)	• 기술통계/상관분석 • 잠재프로파일 분석(LPA) • 적합도 확인, 스크리도표 등 • ANOVA 등
② 경로분석	1) 자료 확인 2) 분석모형 검증 3) 모델별 경로모형 분석	• 기술통계 • 적합도, 수정지표 확인 •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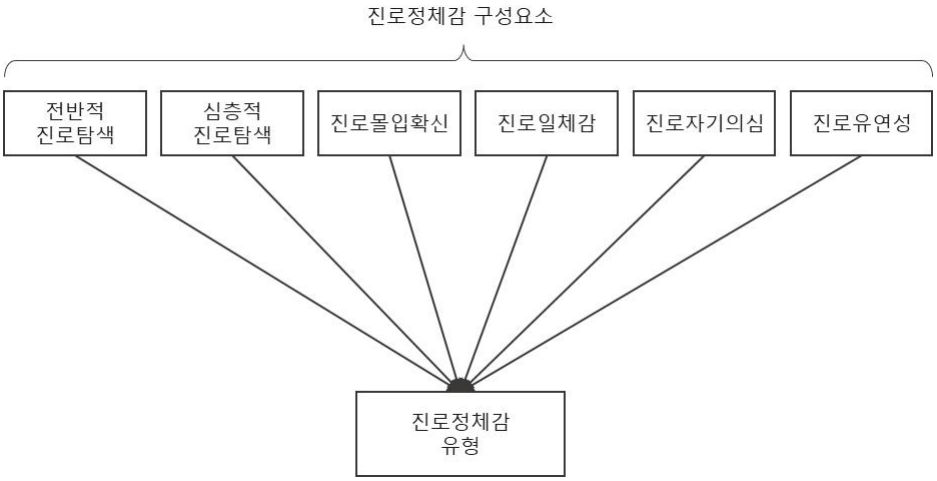
[그림 Ⅲ-1] 연구 설계

가. 진로정체감 유형화

2단계로 제시된 연구설계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인 '진로정체감 유형화' 단계에서는 먼저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진로정체감의 지위 유형이 과연 대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도출된 유형이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시행하였다. 진로정체감 유형화 기준으로는 3가지 차원의 6가지 요인(전반적 진로탐색, 심층적 진로탐색, 진로몰입확신, 진로일체감. 진로자기의심, 진로유연성)을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방법을 통한 유형화 연구모형은 [그림 Ⅲ-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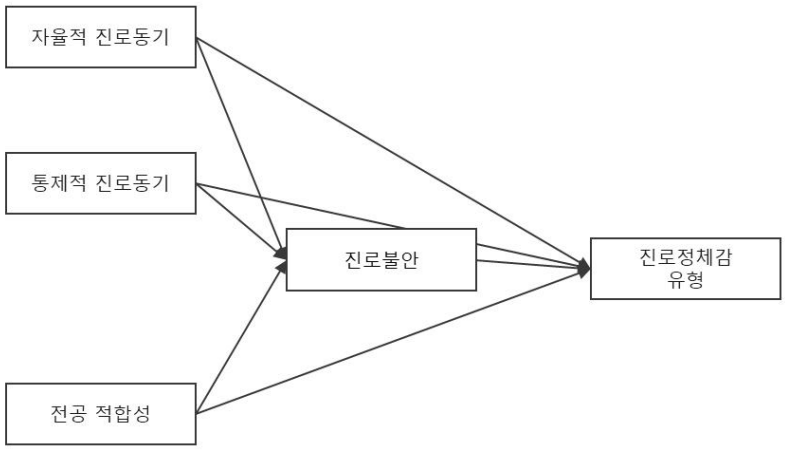
가능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은 6요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수의 유형이 도출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이론적인 지위 유형 수는 대략 6개 내외로 판단된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대표적 6개 유형(혼미, 유실, 유예, 성취, 탐색유예, 미분화)은 선행연구에서 실증되어 온 보편적인 유형들을 포함하면서 추가된 진로정체감 구성요소를 반영한, 세분화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형태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6개 유형을 기준으로 관련문헌을 고찰하였으며, 경로모형 설정을 위한 변수의 선정을 위해서도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반영하였다. 이 단계에서 결정된 진로정체감 유형화 결과는 이후 범주형 변수를 포함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의 종속변수로 활용될 것이다. 각각의 유형은 전체적으로 가장 진로정체감 구성요소의 값이 낮은 유형(예: 혼미)과 비교되므로, n개의 유형이 도출되면 최대 n-1개의 모형을 분석하게 된다.



[그림 Ⅲ-2] 진로정체감 유형화 단계 연구모형

나.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관계 분석 단계

이 단계에서는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과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와 전공 적합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를 포함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② 경로분석(path analysis)' 단계에서 분석을 시행할 때에는 종속변수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이므로 실제로는 여러 개의 모델을 분석하게 된다. 이는 하나의 연구문제를 위해 여러 개의 모형을 설정하는 과정인 대안모형 또는 경쟁모형(competeing model)의 과정과는 다르며, 동질한 모형을 가정하고 집단 간 비교를 시행하는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과도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술하였듯이 이론적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며 진로정체감의 발달적 측면에서 가장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혼미'지위 유형 대비 타 유형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가장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지위 유형의 특성을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Ⅲ-3]과 같다.



[그림 Ⅲ-3] 경로분석 단계 연구모형

이러한 모형 설정을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는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의 기반이 되는 Marcia 전통의 진로정체감 관련 연구들과 Erikson은 시작으로 하는 정체감 이론을 고찰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근거로서 자기결정성 이론, 사회적 정체성 이론 등을 고찰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르면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제안된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개변수인 진로불안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통제적 진로동기, 자율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은 진로불안을 매개하여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론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성별과 지역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4년제 대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따라서 신입생을 포함하여 전체 재학생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결정에 대한 탐색과 몰입', 여러 성찰 과정을 통해 진로불안 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므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의 모집단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만 '재학'의 범주를 휴학생인 경우와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걸정하였다.

먼저 전국의 4년제 대학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1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교는 총 190여 개이며, 국립이 33개교, 공립 1개교, 사립이 156개교로 사립 대학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교육통계연보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수는 141만 5162명으로, 남학생이 약 71만 명, 여학생이 약 70만 명으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을 제외하고 휴학생의 경우 약 50만여 명이었으며, 학사학위 취득유예자의 경우 약 1만 8천여 명이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21). 휴학생 수 등이 정확한 입학년도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이들 중 정확히 3-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연령별 신입생 수를 기준으로 휴학생 수를 제외한 재학생 수는 유추

해볼 수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3-4학년이 되는 경우를 2019년과 2020년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라고 보았을 때, 각각 34만 3천여 명, 34만 2천여 명으로, 재학생 기준 약 50만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한국교육개발원, 2020).

지역별로 학교 수와 재학생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는 575,960명, 비수도권에 839,202명으로 약 1:1.4의 비율이었다. 학교 수는 수도권에 71개교, 비수도권에 119개교로, 대전·세종을 포함한 강원·충청권에 45개교,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에 28개교, 부산·대구·울산을 포함한 영남권에 44개교, 제주에 2개교가 위치하며 제주를 제외하고 약 2.5:1.6:1.2:1.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21).

계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전체 학과 수와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며, 교육통계연보(2021)에서는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계열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체 학과 수는 총 12,000여 개이며, 21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학과 수를 차지하는 것은 공학계열로 전체 학과 수의 약 25.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사회계열(22.5%), 예체능계열(14.3%), 자연계열(14.0%) 순이었다. 학생 수 역시 공학계열(27.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계열(26.1%), 자연계열(11.3%), 예체능계열(10.9%) 순이었다(〈표 Ⅲ-1〉 참조)(한국교육개발원. 2021).

〈표 Ⅲ-1〉 2021년 기준 대학 수 및 재학생 수(명)

구분	학과 수	재학생 수	휴학생 수	학사학위 취득유예
인문계열	1,626	164,344	52,556	2,703
사회계열	2,699	369,864	135,504	6,924
교육계열	638	62,577	12,893	512
공학계열	3,014	384,355	177,948	5,129
자연계열	1,680	160,011	59,632	1,948
의약계열	635	119,362	15,731	194
예체능계열	1,714	154,649	49,901	1,517
합계	12,006	1,415,162	504,165	18,927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21). 2021 대학통계 16-1. 대학 개황.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21&menuSeq=3894&publSeq=2&menuCd=90150&itemCode=02&menuId=2_16_1&language=en

나. 표집

1) 표집 크기

이 연구에서의 표집 크기는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경로모형 분석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의 표집 크기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나, 분류 이후의 개별 유형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를 개발한 Porfeli 외(2011)의 연구와 후속연구들에서 제시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6개(성취, 유예, 탐색유예, 유실, 혼미, 미분화)이내의 유형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표집 크기를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EM)이 통계적으로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에 따르면 표본 크기에 따라 효과성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체적으로 추정방법과 모형적합도의 2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표본크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표본 크기는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모형의 형태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는 표본의 수가 200개 이상인 경우 오류의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Bentler & Chou, 1987). 또한 Kline(2005)의 기준에 따르면 경로모형에서의 표집 크기는 일반적으로 모수의 10배(이상적으로는 20배)의 경우를 권장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전체 표집 수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경우 잠재변수가 아닌 측정변수만을 사용한 경로모형으로, 추정해야 할 경로계수는 7개이며, 종속변수를 제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에 적용되는 자유모수는 초기 모형에서 33개이므로, 600여 개 이상의 자료 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모형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유형 분류가 전체 집단의 10% 미만이 될 경우를 고려하였을 때 각 모델이 최소 90~100여 개 이상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6개 유형을 가정했을 때 마찬가지로 600여개 이상의 표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비율과 결측치 등을 고려하여 800부 이상의 초기 조사를 계획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711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표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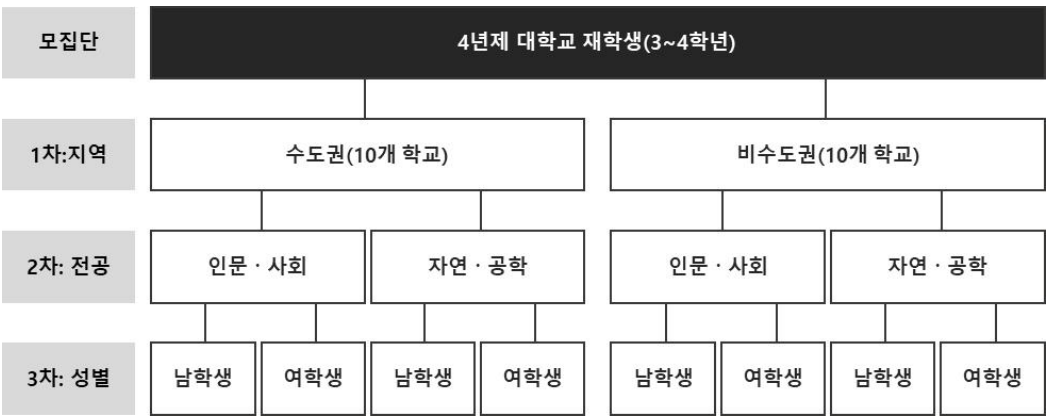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인 4년제 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와 종속 및 독립변수로 활용된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층화표본 추출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진로정체감을 비롯해 진로불안,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등의 변인이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성별은 여러 연구에서 불안의 경우에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경우에는 연구마다 보고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별을 표집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전공 적합성의 경우에도 STEM 분야와 같은 특정 연구에서 성별 간 차이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Le et al., 2014). 다음으로는 연령과 전공에 대해 고려하였다. Crocetti 외(2014)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성인일 경우 혼미(diffusion) 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혼미 유형의 경우 연령에 따라 감소하며 일반적으로 직업 정체성과 같은 특히 중요한 정체성 영역에서는 혼미 유형과 같은 낮은 탐색과 낮은 몰입 상태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낮다(Bowling et al. 2010; Kroger et al. 2010). 따라서 연령은 일반적으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겨지나(Chávez, 2016)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좁은 범위에서 표집을 시행할 것이므로 배제하였다.

지역의 경우 진로결정과 진로성숙도 등 진로정체감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생 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으나(손은령, 2006),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대해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유형화 결과에 따른 유형 비율의 차이 외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수도권과 같이 일부 지역에서만의 표집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유혜승, 2016; 이상희, 오보영, 2013; 정지후, 이상희, 201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집 기준으로 대학이 소재한 지역을 활용하되 수도권,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하여 포괄적인 수준에서 표집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기타 맥락적 변수들이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연구들은 문화적 차이나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정체감 유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겼으나 이 연

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인이 유형의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기는 어려웠으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같은 요인 역시 모형에 투입된 변인에 일관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Bosma & Kunnen, 2001; Keijzer et al., 202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별과 전공, 지역에 따라 인식하는 진로불안의 차이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표집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층화비율표집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한 표집 방법으로, 모집단 안에 어떤 특성에 의해 여러 개의 하부집단이 있을 시 사용하는 방법이다(성태제, 1998). 표집 기준이 되는 지역(약 1:1.4), 성별(약 1:1)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와 유사한 비율을 갖도록 조사를 시행하였다. 지역, 즉 학교 소재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교를 구분하여 할당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계열별로는 선행연구의 기준과 유사하게 어느 정도 특화되어 계열이 정해진 전공(교육·의약·예체능)을 제외하였고(김태환, 2019), 학생 수 비율에 따라 인문·사회계열(인문계), 자연·공학계열(이공계)을 약 1.2:1의 비율에 가깝게 표집하도록 하였다. 성별의 비율은 각 계열별로 조금씩 상이하여,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1:1.2, 자연·공학계열의 경우 1:0.5의 비율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조사 시 개별 학교를 할당하는 방식의 한계로 여성(여학생)이 응답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표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을 고려하여 각 7개씩의 학교에 온라인으로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조사 중 취합된 자료의 전공·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지역 구분에 따라 각 3개의 학교를 추가하여 총 20개(수도권 10개, 비수도권 10개) 학교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 응답자는 초기 858명이었으며, 대상인 3, 4학년이 아닌 경우, 일부 제외 전공(교육·의약·예체능)의 학생이 응답한 경우와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711명이 표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인문·사회 계열에 해당하는 학생은 373명, 자연·공학 계열에 해당하는 학생은 338명이었다. 인문·사회 계열에서 남학생은 87명, 여학생은 286명이었으며, 자연·공학 계열에서 남학생은 130명, 여학생은 208명으로 표집되었다.



[그림 Ⅲ-4] 층화표본추출 방법 및 절차

3.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과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전체 문항은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도구는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조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예비조사 문항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토대로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와 안면타당도(face validity)검증을 받았다. 이후 작은 수를 표집하여 예비조사를 수행하고, 최종 문항을 결정한 후 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조사 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모형 분석 이전에 전체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전공 적합성' 도구의 경우 타당도 확보를 위해 KMO(Kaiser-Mayer-Olkin) 검사를 통해 값이 .7 이상인지 확인하고,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통해 .05 수준에서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쳤다. 신뢰도 검증의 경우 모든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함께 각 구성요인의 신뢰도를 각각 확인하여 기술하였다(〈표 Ⅲ-2〉 참조). 조사한 자료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 α 값을 제시하였다. 전공 적합성의 경우 최종적으로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로 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외의 모든 척도는 동일한 구성요소(factor)를 유지한 채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시행하였다.

〈표 Ⅲ-2〉 조사도구 구성

변인명		구성요소	문항 번호	문항 수		척도	출처
진로정체감		전반적 진로탐색	1. 1-4	4	27	5점	Porfeli et al.(2011) / 이보라(2014) 번안
		심층적 진로탐색	1. 5-9	5			
		진로몰입확신	1. 10-13	4			
		진로일체감	1. 14-18	5			
		진로자기의심	1. 19-23	5			
		진로유연성	1. 24-27	4			
진로불안		책임에 대한 불안	2. 1-11	11	20		민경희, 김봉환(2014)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2. 12-17	6			
		과정에 대한 불안	2. 18-20	3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자율적 동기	내재적 동기	3. 1-5	5	17		정은교(2021)
		동일시 조절	3. 6-9	4			
	통제적 동기	부과된 조절	3. 10-14	5			
		외재적 동기	3. 15-17	3			
전공 적합성			4. 1-7	7			Cabel & DeRue(2002) 등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
일반적 특성		성별	5.	1	9	-	-
		연령	6.	1			
		학년	7.	1			
		전공계열	8.	1			
		복수(부)전공 이수여부	9.	1			
		지역	10.	1			
		입학동기	11,	1			
		재학여부	12,	1			
전체					80		

가.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이란 '개인이 인지하는 미래의 잠재적인 진로 방향이나 직업과 관련하여 발전하는 정체감 구조'로서, 이 연구에서는 Porfeli 외(2011)의 VISA 측정도구를 이보라 외(2014)가 번안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개발한 한국어판 진로정체감 지위 측정도구(K-VISA)를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진로정체감 측정도구는 각 요인의 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진로정체감 측정도구는 총 27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전반적 진로탐색(4문항), 심층적 진로탐색(5문항), 진로몰입확신(4문항), 진로일체감(5문항), 진로자기의심(5문항), 진로유연성(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의 일치도 계수는 .69~86로 비교적 적절하였다.

그러나 1차 예비문항을 구성하는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이보라 외(2014)에서 번안·타당화된 측정도구는 영어로 개발된 원 도구의 직접적인 번역에 집중하여 번역투의 표현과 어색한 문장 구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 도구의 의미는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에서는 번안 도구가 전달하고자 하는 원 도구의 의미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진로정체감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수정 절차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였다. 수정 절차는 ①1차 예비문항 구성, ②전문가 타당도 검증, ③2차 예비문항 구성, ④예비조사 후 문항 확정 순서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검증은 직업·진로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육학 박사 2인, 박사수료 2인에게 요청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진로에 들어설", "선택한 진로" 등의 번역체 표현이 어색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 도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되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역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해당 도구에서'진로'라는 표현이 직업이 아닌 특정 진로 분야(career field)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러한 내용을 설명문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수정의견 및 수정문항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진로정체감 척도는 예비조사 결과 '전반적 진로탐색'이 .756, '심층적 진로탐색'이 .693, '진로몰입확신'이 .706,'진로일체감'이 .797, '진로자기의심'이 .850, '진로유연성'이 .812, 전체 신뢰도가 .884로 대체로 .7 이상으로 적절하였으나'심층적 진로탐색'과 '진로몰입확

신' 의 신뢰도가 다소 낮았다. 예비조사 신뢰도는 기존 연구인 이보라 외(2014)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범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693~.850). '전반적 진로탐색'이 .758, '심층적 진로탐색'이 .655, '진로몰입확신'이 .714, '진로일체감'이 .783, '진로자기의심'이 .835, '진로유연성'이 .832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878이었다.

〈표 Ⅲ-3〉 진로정체감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		내적일치도 계수	
					예비조사 (n=206)	본조사 (n=711)
진로정체감	전반적 진로탐색	1. 1-4	4	27	.756	.758
	심층적 진로탐색	1. 5-9	5		.693	.655
	진로몰입확신	1. 10-13	4		.706	.714
	진로일체감	1. 14-18	5		.797	.783
	진로자기의심	1. 19-23	5		.850	.835
	진로유연성	1. 24-27	4		.812	.832
전체					.884	.878

나. 진로불안

진로불안(career anxiety)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느낌과 걱정(worried), 비판적 사고가 동반되는 정서적 상태를 의미하며, 진로결정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의 하나로 여겨진다(Saka et al., 2008).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한 두 가지 도구 중 Saka 외(2008)의 EPCD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번안한 민경희와 김봉환(201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조규판(2008)의 도구는 유기은(2016)의 연구 등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일부 문항만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수정된 진로불안 도구가 다차원적으로 진로불안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민경희, 김봉환, 2014). 또한 민경희(2012)의 연구에서 개발된 진로불안 도구의 경우 현재 진로결정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특성적(trait)인 불안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연구모형 설정 근거에 보

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부 요인(책임에 대한 불안)에 비교적 과도하게 문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진로결정 상황에 대한 표현이 부적절하여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 때 '불안'은 단순한 불안에 대한 측정이 아니라 진로결정 상황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오는 '불안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진로불안 척도는 예비조사 결과'책임에 대한 불안'이 .923,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883, '과정에 대한 불안'이 .870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56으로 모두 .8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본조사에서 역시 '책임에 대한 불안'이 .916,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897, '과정에 대한 불안'이 .854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50이었다.

〈표 Ⅲ-4〉 진로불안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		내적일치도 계수	
					예비조사 (n=206)	본조사 (n=711)
진로불안	책임에 대한 불안	2. 1-11	11	20	.923	.916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2. 12-17	6		.883	.897
	과정에 대한 불안	2. 18-20	3		.870	.854
전체					.956	.950

다. 자율적 · 통제적 진로동기

진로동기란 진로와 관련된 동기로서 개인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의미한다(김보경, 2012).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진로동기 측정도구는 이러한 진로동기의 개념을 공유하되 특정한 동기가 자율적(autonomous)인지 통제적(controlled)인지를 질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가 이루어진 정은교(2021)의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도구를 활용하여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를 측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들을 참고하여 자기결정성 이론(SDT)에 근거한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 측정도구 9문항, 통제적 동기(controlled motivation) 측정도구 8문항

을 활용하였다(Howard et al., 2021; Koestner et al., 2008). 기존 도구의 구성요인별 신뢰도는 .76~.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의 예비조사 결과 자율적 진로동기로 측정된'내재적 동기'가 .901, '동일시 조절'이 .832, 전체 .898이었으며 통제적 동기로 측정된'부과된 조절'이 .905, '외재적 동기'가 .884, 전체 신뢰도 . 894로 모두 .8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본조사에서의 신뢰도는 '내재적 동기'가 .897, '동일시 조절'이 .801, 전체 자율적 진로동기 신뢰도는 .889였으며, '부과된 조절'이 .898, '외재적 동기'가 .845, 통제적 진로동기의 전체 신뢰도는 .89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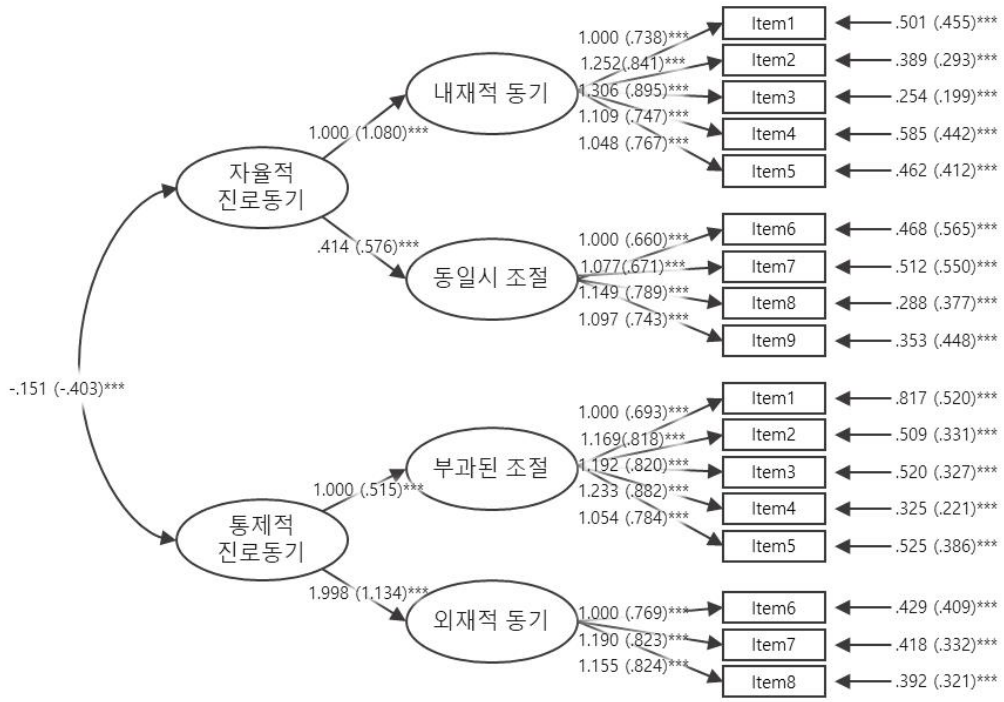
〈표 Ⅲ-5〉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		내적일치도 계수	
					예비조사 (n=206)	본조사 (n=711)
자율적 진로동기	내재적 동기	3. 1-5	5	17	.901	.897
	동일시 조절	3. 6-9	4		.832	.801
	전체				.898	.889
통제적 진로동기	부과된 조절	3. 10-14	5		.905	.898
	외재적 동기	3. 15-17	3		.884	.845
	전체				.894	.890

이 연구에서는 자율적, 통제적 진로동기를 구분하여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척도의 경우 정은교(2021)에서 무동기 요인을 포함하여 5개 요인으로 개발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를 구분하여 활용하기 위해 자율적 진로동기 2개, 통제적 진로동기 2개의 척도로 활용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가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율적 진로동기 및 통제적 진로동기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4개 요인 구조로 구성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자율적 진로동기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는 RMSEA=.086, C

FI=.959, TLI=.943, SRMR=.037였으며, 통제적 진로동기의 적합도는 RMSEA=.069, CFI=.980, TLI=.971, SRMR=.036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RMSEA 값은 .05 미만에서 가장 적절하나 최소 기준인 .80 수준에 거의 근접하여 대체로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기준 역시 기준치를 대체로 만족하였다. 다음으로는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의 전체 요인분석(4개 구성요소 전체 투입)를 함께 투입하여 CFA를 수행하였다. 이 경우 '내재적 동기', '동일시 조절' 요인을 통해 '자율적 진로동기' 잠재변인이 구성되고, '부과된 조절', '외재적 동기' 요인을 통해 '통제적 진로동기' 잠재변인이 구성되며 두 개 잠재변인이 하나의 구조(structure)로 형성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분석 결과 RMSEA=.057, CFI=.961, TLI=.953, SRMR=.049, BIC=30116.703 으로, 1요인 CFA 결과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Ⅲ-5] 참조). 분석 결과는 RMSEA=.074, CFI=.934, TLI=.922, SRMR=.104, BIC=30292.405이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자율적, 진로동기 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되 함께 측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Ⅲ-5]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주1) 전공 적합성은 단일요인으로 측정

주2) ***p<.001

주3)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 계수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계수임

라. 전공 적합성

1) 전공 적합성 측정도구의 구성요소

이 연구에서 전공 적합성(PM fit)은 개인이 소속된 전공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전공 분야에 대한 내용적 환경 전반에 대한 인식된 적합성(fitness)'으로 정의된다. 이 때 전공과의 일치성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 지각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의는 개인-직무 적합성(PJ fit)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측정 역시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전공 적합성 측정도구들을 참고하여 전공 적합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는 최근까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에서 몇 가지 비판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 두 가지 비판점을 중점적으로 보완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관련 연구들과 측정도구는 〈표 Ⅲ-6〉으로 제시하였다. 도구 개발절차는 크게 구인화, 1차 예비문항 작성, 안면타당도 검토 및 2차 예비문항 작성, 통계적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등 총 4단계로 나누어 실시될 예정이다.

첫째, 최근에 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들의 경우 개인-직무 적합성 도구에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잦았으나 문항 개발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보고식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도구의 경우, 최근 국내에서는 대부분 조윤형 외(2013)를 기반으로 한 도구로 측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경우 학술지 논문으로 비교적 간단히 도구 개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데 그쳤다. 또한 최근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박정아(2019)의 도구는 조윤형 외(2013)의 도구를 기반으로 Cable과 DeRue(2002)의 개인-직무 적합성 도구를 참고하여 개발한 형태의 도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도구들은 기존의 개인-환경 적합성 측정도구들의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된 도구들이며 비교적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나 요인분석과 같은 통계적 검증 방법의 기술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표 Ⅲ-6〉 국내 전공 적합성 도구 비교(2010~2021)

연구자	활용 도구	특징
홍미영, 김정매(2021)	윤경화(2015)	
Yoon et al. (2021)	박정아(2019) 도구를 수정·보완	• "Major suitability" 라는 표현 사용
민자원(2020)	박정아(2019)	
박정아(2019)	Cable & DeRue(2002) 기반 3문항, 조윤형 외(2013) 도구 5문항을 바탕으로 개발	• 8개 문항으로 구성 • 요인분석 시행하지 않음
윤경화, 황정희(2018)	조윤형 외(2013)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	• 4개 문항으로 구성
윤경화(2015)	조윤형 외(2013)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	• 5개 문항으로 구성
조윤형(2013)	Kristof(1996), Lee et al.(2001),성지영 외(2008)를 바탕으로 개발	• 7개 문항으로 구성 • 요인분석은 시행하였으나 다요인 구조를 검증하지 않음 • 참고한 선행연구들이 2개 요인 구조를 이론적으로 설명(D-A/N-S)

둘째, 국내에서 도구를 개발한 연구들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에서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었던 다요인 구조를 검증하지 않았다. 이는 이론적으로 다요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Kristof(1996)의 경우 개인-직무 적합성 개념을 유사한 개인-환경 적합성 연구들과 비교하면서 수요-능력(D-A) 적합성과 필요-공급(N-S) 적합성의 개념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성지영 외(2008)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에 근거한 2개 요인 구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보완적(complementary) 적합성에 대한 개념을 근거로 수요-능력(D-A) 적합성과 필요-공급(N-S) 적합성의 2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Ashforth & Schinoff, 2016). 이에 따르면 전공 적합성에서의 '수요-능력(D-A) 적합성'은 개인이 대학 내 전공(major)에 재학하며 인식하는 특정 전공 분야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필요-공급(N-S) 적합성'은 전공이라는 환

경이 개인이 해당 전공 분야로 진입하기 위한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성지영 외, 2008). 따라서 각 요인은 개인과 환경(전공)에 각각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나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1차 예비문항 작성

1차적으로 전공 적합성 예비문항을 작성하기 위해 우선 박정아(2019) 및 조윤형 외(2013)의 문항을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경우 전공 적합성에서의 환경요소인 전공(major)에 대한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참고한 국내 문헌에서는 전공적합성 내의 요인구조를 가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개념적으로 크게 2개의 구인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수요-능력(D-A) 적합성과 필요-공급(N-S) 적합성의 2개 요인구조를 갖도록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문항 구성 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교육에서 전공의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개인-직무 적합성에 기반하여 도구를 개발하는 경우 전공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는 전공 적합성이 이후 직업생활과 수행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전공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공 적합성의 경우 개인-직무 적합성과 달리 전공이라는 환경이 특정한 하나의 직무에 고정되어있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필요-공급(N-S) 적합성의 관점에서 이후 직업세계에 진입한 이후를 가정할 때, 현재 인식하고 있는 적합성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문항들 역시 기존 도구에서 널리 활용되어 오는 문항과 유사하였으나 명확히 필요-공급(N-S) 구인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사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합성 구성요소의 개념에 근거하여 구분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존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맥락이 유사한 연구를 참고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이 2개 요인구조를 가정하고 도구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외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전공과의 적합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한 최근 사례로 Etzel과 Nagi(2016)의 측정도구를 참고할 수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전공 적합성의 측정도구를 개인-직무 적합성에 기반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었으며 국외에서 개인-직무 적합성 도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

는 Cable과 DeRue(2002)의 도구를 참고로 하였다. 특히 Etzel과 Nagi(2016)의 연구는 Cable과 DeRue(2002)의 도구에서 조직적 적합성을 제외하고 수요-능력 적합성, 필요-공급 적합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어 이 연구와 가장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문항의 수정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었다. 그 밖에 국내 연구 중에서는 Cable & DeRue(2002)의 도구를 활용한 김민지(2017), 윤경신(2019) 등의 개인-직무 적합성 도구를 참고하여 1차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현재 전공 분야에서 학습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성향과 잘 맞는다."는 문항은 기존 박정아(2019)의 연구에서는 "흥미"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개인-흥미 적합성(Interst-Major fit)과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어 '개인의 성향'으로 수정하였다. "나는 전공분야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나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나의 재능, 능력 및 기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은 문항들은 직무(job)적합성 관점에서는 매칭되는 국외 연구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국내에서 .7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인 문항으로, 해당 전공에서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전공분야에 대한 적합성 문항으로 판단하여 필요-공급 적합성 구인에 문항을 추가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역채점되는 문항은 없다. 1차 예비문항은 다음 〈표 Ⅲ-7〉과 같이 총 8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표 Ⅲ-7〉 전공 적합성 예비문항(1차) 작성 프로세스

구인개념	선행연구	영문 참고문항(item)	예비조사 문항(1차)
D-A (수요-능력) 적합성	박정아 (2019)	-	현재 전공 분야에서 학습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흥미와 잘 맞는다.
	박정아 (2019) Etzel & Nagi(2016) Cable & DeRue, 2002	• The match is very good between the demands of my job and my personal skills. (Cable & DeRue, 2002) • I am able to use my talents, skills, and competencies in my current courses (Etzel & Nagi, 2016)	내가 가진 지식, 기술, 능력은 현재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와 잘 맞는다.
	박정아(2019) 조윤형 외(2013) 김미희 외(2014) Cable & DeRue, 2002	• My abilities and training are a good fit with the requirements of my job. (Cable & DeRue, 2002) • My personal abilities and education provide a good match with the demands that my job places on me. (Cable & DeRue, 2002)	나는 전공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
N-S (필요-공급) 적합성	박정아(2019) Cable & DeRue, 2002	• There is a good fit between what my job offers me and what I am looking for in a job. (Cable & DeRue, 2002)	현재 전공 분야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은 나의 직업적 관심사와 일치한다.
	박정아(2019) Cable & DeRue, 2002	• The attributes that I look for in a job are fulfilled very well by my present job. (Cable & DeRue, 2002) • I feel that my academic goals and needs are met by the faculty of this university (Etzel & Nagi, 2016)	현재 전공으로부터 나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얻고 있다.
	박정아(2019) 조윤형 외(2013)	-	나는 전공분야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박정아(2019) 조윤형 외(2013)	-	나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
	Etzel & Nagi(2016)	-	나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나의 재능, 능력 및 기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내용 · 안면타당도 검토 및 2차 예비문항 작성

1차적으로 개발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 적합성 예비문항을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육학 분야 전문가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타당도 검증은 사전에 개발된 8개 문항의 도출 방식과 구성요소인 D-A(수요-능력), N-S(필요-공급) 적합성의 개념을 연구자가 설명하고, 작성 양식을 제공하여 각 문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인, 진로교육 분야 연구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 2인, 진로교육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2인에게 1차 예비조사 문항을 검토받았다. 또한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최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4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고 마찬가지로 수정 의견을 취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차 예비조사 문항을 다시금 구성하였다.

〈표 Ⅲ-8〉 전공 적합성 내용·안면타당도 검증 대상

구분	대상	소속	인원
내용타당도	• 교육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진로교육 분야의 연구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 • 진로교육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 ○○○○○○연구원 • ○○○○원 • ○○대학교 • ◇◇대학교	6인
안면타당도	• 4년제 대학 재학생(3, 4학년) • 최근 4년제 대학 졸업생		4인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은 해당 문항의 개발 과정에 대해 연구자가 설명하고, 각 문항을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 개념과 일치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1(매우 적절하지 않음)-4점(매우 적절함)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검증 결과 모든 문항이 3점 이상으로 대체로 문항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면타당도의 경우 개발된 문항을 대상에게 제시하고 표현 중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별도 표시하는 방식으로 확인 후 개별적으로 연구자가 약식 인터뷰를 수행하여 수정의견을 검토하였다. 검증 결과 ①번 문항

인 '현재 전공 분야에서 학습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흥미와 잘 맞는다.'에 대한 수정 의견들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개념적으로 전공 일치도가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며 쉽게 바뀔 수 있는 뉘앙스를 가진 흥미라는 표현보다는 성격, 성향과 같은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문항의 개발 시 활용한 기존 도구에서 '성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성격 특성'보다는 개인의 성질에 따른 특성을 의미하는 '성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흥미(interest)'라는 표현은 흥미-학과일치도(강혜영, 2011; 이정애 외, 2012)와 같이 일부 연구에서 별도로 활용되는 개념과 혼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Holland의 '직업흥미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연구에서 활용한 적합성 개념과는 상당히 상이한 것이었다(민자원, 2020).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성향'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작성된 예비문항(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2차 문항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일부 표본(n=206)을 조사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 확인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개념적으로 수요-능력 적합성, 필요-공급 적합성으로 구분되었던 2요인 구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Ⅲ-9〉는 검증통계량과 단일요인 구조로 회전(Kaiser 정규화 Oblimin)을 수행한 결과값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1요인의 고유치 값은 4.99로 상당히 높았으나 2요인의 고유치 값은 .79로 적절하지 않았다. 또한 세 번째 문항(4-3)의 성분값이 .566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6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문항을 제거하고 새로이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7문항으로 구성된 2차 분석 결과 설명변량이 다소 개선되었으며(61.8% → 63.1%). 요인부하량 역시 1차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표 Ⅲ-9〉 최종 수정 후 전공 적합성 도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1차 분석(전체)	2차 분석(4-3 제외)
	1요인	1요인
4-1	.843	.835
4-2	.807	.799
4-3	.564	-
4-4	.830	.831
4-5	.767	.770
4-6	.765	.767
4-7	.769	.779
4-8	.826	.831
고유치	3.46	3.35
설명변량(%)	61.8	63.1
KMO test	.921	.912
Bartlett test	2234.810(p〈.001)	2063.649(p〈.001)

주1): 추출 방법: 최대우도법,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 Oblimin 회전
주2): 요인부하량 .4 이하는 보고하지 않음.

다음으로 예비조사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단일요인 구조를 가정하고 단순구조 확인적 요인분석(Simple CFA)을 시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체 문항이 포함된 1차 분석에서 4-3 문항의 모델 표준화 계수가 .563으로 다소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2차 분석에서는 전체 표준화 계수가 .7 이상으로 나타났다. 1차 분석에서의 적합도 값은 AIC=4049.198, BIC=4129.067, CFI=.932, TLI=.904, SRMR=.046로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 RMSEA 값을 제외하고 적절하였으나 2차 분석에서의 적합도 값이 AIC=3455.941, BIC=3525.827, CFI=.944, TLI=.916, SRMR=.036으로 다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뢰도의 경우 예비조사에서의 1차 분석은 .919, 2차 분석에서는 .926으로 4-3 문항을 제외한 경우의 신뢰도가 더 우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조사에서는 다소 모호한 분석 결과가 도출된 4-3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7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조사 완료 후 재확인한 신뢰도 값은 .925로 나타나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표 Ⅲ-10〉 참조).

〈표 Ⅲ-10〉 전공 적합성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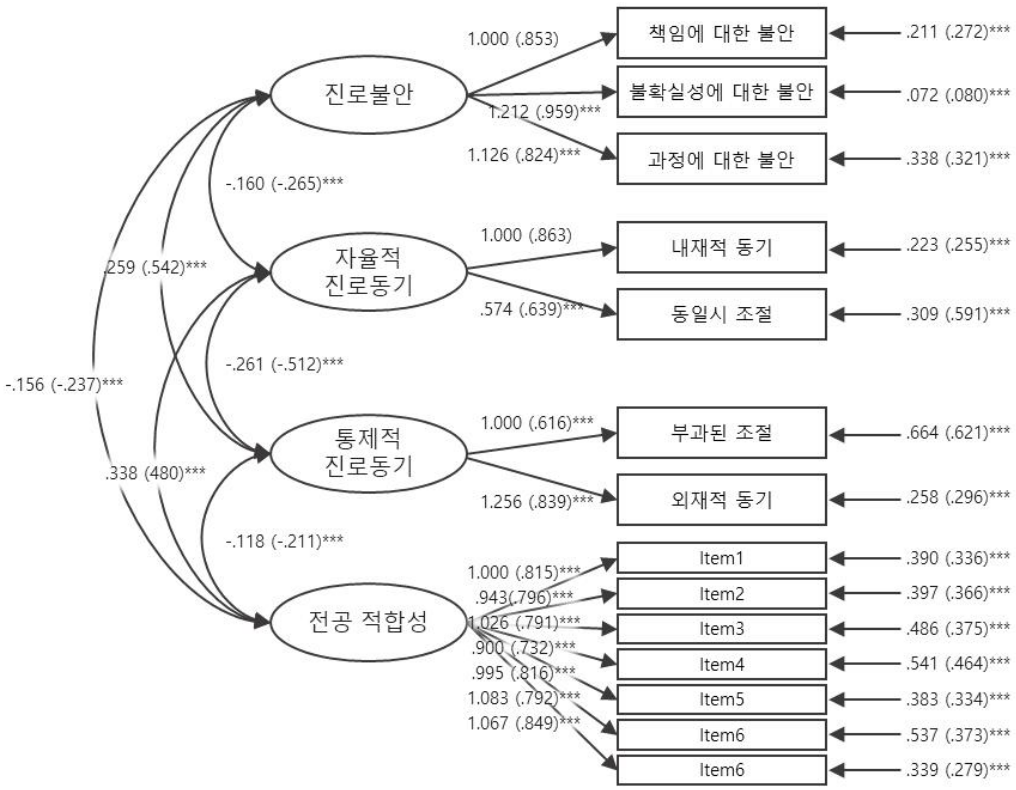
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	내적일치도 계수	
			예비조사 (n=206)	본조사 (n=711)
전공 적합성	4. 1-7	7	.926	.925

마.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이 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을 시행하게 되므로, 확인적 요인분석이 필수적인 단계는 아니나 경로모형에 투입되는 변인들의 관계가 적절한지 확인하여 추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속변인인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을 제외한 관련변인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Ⅲ-6] 참조).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의 경우 함께 투입되는 진로동기 등의 변인과의 관계가 명확히 보고된 바 없으며, 활용된 측정도구 역시 정은교(2021)의 도구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것이다. 또한 전공 적합성의 경우도 이 연구에서 새로 개발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다. 전공 적합성의 경우에는 새로이 개발된 도구로서 단일 요인(factor)를 가정하고 있어 개별 문항 수준에서 분석에 투입하였다.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값은 절대적합지수인 χ^2값은 101.875(df=15, p=.000)로 유의하였으나 RMSEA 값은 .076, CFI 값은 .951, TLI 값은 .937, S-RMR 값은 .042로 기준 적합도 수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공 적합성 변인은 단일 요인으로 측정된 잠재변수로서 확인적 요인분석에 투입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CFA에 포함된 단일 측정변수로 구성된 잠재변인(전공 적합도)을 측정하는 측정변수(indicator)의 분산을 (1- 신뢰도)×표본분산으로 고정((1-.9245)×.838))할 것을 권하고 있다(MPLUS Discussion, 2005). 그러나 이 경우 공변량 행렬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Chen et al., 2001; Yorgason, nd). 따라서 단일요인(factor)이기는 하나의 항목(item)으로 측정된 경우는 아니므로, MPLUS에서 권하는 CFA 수행 방식에 따라 문항 수준을 CFA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적합도를 추정하였다(Hayd

uk & Littvay, 2012).



[그림 Ⅲ-6] 4년제 대학생의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주1) 전공 적합성은 단일요인으로 측정
주2) ***p<.001
주3)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 계수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계수임

4. 자료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될 자료 수집을 위하여 오프라인·온라인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예비조사는 온라인 설문지를 연구자가 구성하여 설문조사 링크를 2개 학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본조사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설문조사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최대 1~2명의 협력자를 확보하여 연구 목적과 대상, 참고사항을 공유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추가로 목표로 한 인원 수를 조정하기 위해 해당 학교 커뮤니티 등에 협력 인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022년 10월 20일부터 문항 수정이 필요한 도구(진로불안, 전공 적합성)의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조사에서 취합된 자료는 데이터 정제 이전에 858부였으며,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무응답, 불성실 응답, 중복응답 자료 15명, 대상이 아닌 1, 2학년이 응답한 경우 122명을 제거하였다. 불성실 응답의 경우 다음으로 대상 전공이 아닌 경우(교육·의약·예체능)이 10명 추가로 자료에서 제거되었다. 대상 전공의 경우 일부 '기타'로 응답한 경우가 있어 연구자가 이를 확인하여 전공 분야를 재코딩하였다. 기타 전공으로 응답한 경우 중 '농업생명과학', '기관시스템공학', '항해', '생활과학' 등은 자연·공학계열로, '상경계열', '경영정보' 등은 인문·사회계열로 코딩되었다. 이에 따라 총 711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5. 분석 방법

가. 자료 분석

이 연구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정체감을 유형화하고,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간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설문을 통해 조사된 자료는 입력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이상치와 결측치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 과정은 본 연구 설계에서는 '① 진로정체감 유형화' 단계에서의 '1) 분석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 세부단계에 해당한다([그림 Ⅲ-7] 참조). 이 연구에서는 STATA 1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시행하였다.

1. 입력자료 준비
1.1 결측치 확인 1.2 이상치 확인

▼

2. 분석자료의 기술 통계
2.1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기술통계(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 2.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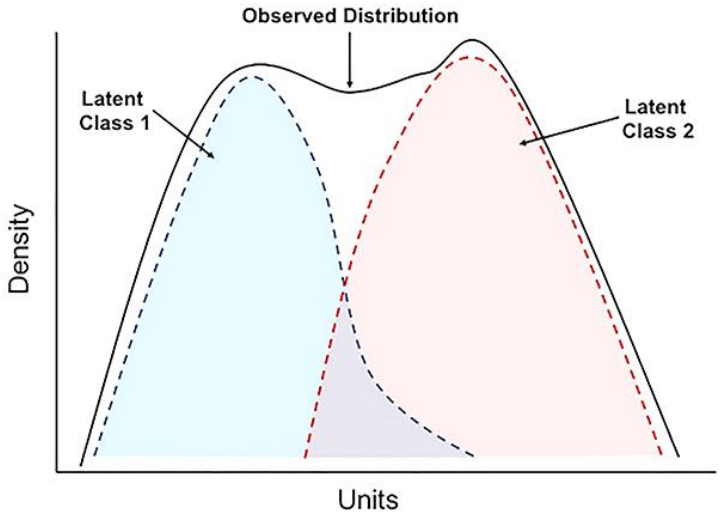
3. 변수 간 상관 확인
2.1 상관분석표 확인 2.2 변수 간 다중공선성 확인

[그림 Ⅲ-7] 자료 분석 절차

나. 잠재프로파일 분석(LPA: Latent Profile anaysis)

1) 잠재프로파일 분석 개요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떠한 비율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특정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 질적으로 다른 하위집단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론이다(Hagenaars & McCutcheon, 2002).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전통의 통계적 분석에서 근거하였으며, 이 경우 잠재프로파일모형을 통해 최적의 유형(type), 또는 집단(group) 수를 결정하는 것을 주요 연구문제로 삼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준으로 활용한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이 연속적인 측정 지표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잠재집단이 관찰된 측정지표 점수의 패턴을 설명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Collins & Lanza, 2010).



[그림 Ⅲ-8] 모집단 내 잠재집단 형성의 개념도

출처: Sinha et al. (2011)

그 외에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적합도 지수에 관한 것이다. SEM과 유사하게 최대우도(ML: Maximum Likelihood)를 통한 추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잠재프

로파일 분석 역시 최적의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게 된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적절한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적합도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4개에서 많은 경우 20개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지표인 AIC, BIC, 수정된(adjusted) BIC 등의 지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경로모형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후 〈표 Ⅲ-11〉을 통해 정리하였다(Weller et al., 2020).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지표들 외에 고려해야 할 것은 전체 표본 크기 대비 유형화된 프로파일 각각에 포함된 표본의 비율이다. 전체 표본 대비 각 잠재집단의 최소 비율은 선행연구마다 제시하고 있는 최소 비율 기준에 차이가 있다. Jung과 Wickrama(2008)는 표본 크기에 따라 모든 유형이 전체 표본 수 대비 최소 5% 이상 또는 1% 이상인 경우 선택한 모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Hill et al., 2000). 그리고 Nooner외 (2010)는 각 유형에 포함된 표본 비율이 전체 표본 수의 1% 이상이면 계층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Jung & Wickrama, 2008; 권재기, 2011). 최근에는 5%, 또는 50개 미만의 규모인 잠재집단의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O'Donnell et al., 2017).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에는 모델의 적합도에 따라 적절한 집단 수가 도출되었는지, 상대적으로 작은 잠재집단이 개념적으로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Weller et al., 2020). 기존 연구를 검토했을 때, 분석에 투입하는 자료 수는 300개 이상의 '비교적 많은' 자료 수가 바람직하다고 제안되기는 하지만 간단한 모델과 잘 분리되는 경우에는 보다 적은 양의 샘플도 적절하다(Nylund-Gibson & Choi, 2018; Weller et al., 2020).

또한 분류 후에 각각의 잠재집단이 얼마나 잘 차별점을 가지고 잘 분류되었는지(well differentiated) 확인하기 위한 방법들도 제안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 평균 사후 확률(AvePP: Average Posterior Probabilities)을 기준으로 하여 각 개인이 얼마나 적절하게 가능성이 높은 잠재잡단으로 분류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70 이상의 경우 잘 할당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Nagin, 2005). MPLUS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이 가장 적절하게 할당될 확률(Probabilities for Most Likely Latent Class Membership) 표로 이를 제시하고 있다(Nylund-Gibson & Choi, 2018).

2)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진로정체감 유형화

진로정체감의 유형화에는 Porfeli 외(2011)의 도구에 기반하여 진로정체감의 6개 구성요소 값을 사용하게 되며, 각 값은 잠재프로파일 분석 시 연속변수로서 투입된다. 이를 통해 결정된 최종 유형화 결과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제 특성을 파악한 후 선행연구들에서 제안된 유형의 특성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정된 유형, 즉 하위집단은 일반적으로 잠재집단(latent class)이라고 불리며,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에서 분류되는 유형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분석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요구하는 분류 진단(Masyn, 2013),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한 유형의 명명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형과 연구에서는 예상한 잠재프로파일 수와 함께 관련 이론이나 이전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 권장된다(Bowen et al., 2007).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명명' 과정인데, 이 연구에서는 이보라 외(2014)의 연구와 같은 국내 유형화 연구들과 함께 국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유형화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앞서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를 N개로 보고, 표집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의 유형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는 유사성을 가지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들은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활용하고 있는 도구에 따라 각 요인값의 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명칭의 유형으로 명명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Marcia 전통에서 제안된 혼미(diffusion) 유형의 경우 낮은 몰입과 낮은 탐색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Porfeli 외(2011)의 도구를 통해 유형화를 시행할 경우 낮은 수준의 전반적 진로탐색, 낮은 수준의 심층적 진로탐색, 낮은 진로몰입확신, 낮은 진로일체감, 중간 수준의 진로자기의심, 중간 수준의 진로유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전반적 진로탐색과 심층적 진로탐색이 진로탐색(exploration), 진로몰입확신과 진로일체감이 전통적인 요인 구조 중 진로몰입(commitment)에서 세분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분류를 여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연구에서는 과거 Marcia 전통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

되는 성취, 혼미, 유실, 유예 4가지 유형 외에 탐색유예나 미분화 유형 등의 해석에 있어서 기존의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유형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Porfeli 외(2011)의 도구를 사용한 경우를 보았을 때, 국내에서 이 도구를 처음 번안한 이보라 외(2014)의 연구와 유사하게 탐색유예나 미분화 유형의 특성이 나타나나, 일부 미분화형의 점수 분포에 차이가 있거나, 2가지의 추가적인 유형이 관찰되는 경우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박진경, 2017; 강혜정, 2021).

다. 범주형 변수를 포함한 경로분석(Path Analysis)

1) 경로분석 개요 및 절차

경로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에 기반하여 "각 구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지표변수가 하나일 때"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다(김수영, 2016). 일반적으로 경로분석의 경우에도 구조방정식 모형과 유사한 세부 분석 절차를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모형을 수정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① 모형 설정, ② 모수 추정, ③ 모형 평가 및 수정, ④ 최종 모형 확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 연구에서는 가설에서 설정한 대로 N-1개의 모형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이며, 이분형 변수로 투입되어 유형 간 비교가 이루어진다. 일부 연구들은 범주형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경로계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편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기도 하였으나(Petraitis et al., 1996),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경우는 대부분 실험설계를 비롯한 경우에서 변수 간의 영향력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 경로분석에서 각각의 변수들은 관측변수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며, 범주형 변수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경로모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Kuha et al., 2021; Werts & Linn, 1969; Xie, 1989).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ML 방식을 활용한 로지스틱 계수 추정 방식을 통해 경로모형을 분석하게 된다(Muthen, 1983; Raggi et al., 2021; Winship & Mare, 1983).

연구 방법의 설정을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이나 잠재집단분석에서 활용하는 유사한 접근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와 유사한 연구 설계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공변량(covar

iate)을 투입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모델과 동일한 모델에 즉각적으로 공변량을 투입하는 것이 잘못 지정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Nylund-Gibson & Masyn, 2016).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확장된 형태로서 많이 활용되나,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투입이 어려우며, 여러 개의 공변량 값이 투입될 경우 유형화에 활용된 진로정체감의 하위 측정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Wurpts & Geise, 2014; Weller et al., 2020). 또한 엔트로피 지수 등의 적합도 지수 값이 좋은 경우(엔트로피의 경우 .8 이상),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단계의 절차를 거쳐 집단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량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며, 실증연구에서도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아래 수식은 이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을 오차를 생략하고 간략하게 나타낸 것으로, 추정모수 8개의 경로계수가 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수식 1 참조). 이 때 각 대문자는 다음 변수를 지칭한다(진로정체감 지위 유형=Gn, 진로불안=A, 자율적 진로동기=M1, 통제적 진로동기=M2, 전공 적합성=F).

$$A = (a_2) + \beta_1 M1 + \beta_2 M2 + \beta_3 F \qquad (\text{수식}1)$$

$$\begin{aligned} G_n &= (a_1) + \beta_4 A + \beta_5 M1 + \beta_6 M2 + \beta_7 F \\ &= (a_1) + \beta_8 (\beta_1 M1 + \beta_2 M2 + \beta_3 F) + \\ &\quad \beta_4 A + \beta_5 M1 + \beta_6 M2 + \beta_7 F \end{aligned}$$

(n ⊂ 1, 2, 3 … N-1(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수 - 1))

범주형 변인을 포함하는 경로분석의 경우 독립변인일 경우에는 추정에 큰 문제가 없으나,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이 범주형일 경우 해당 경로가 로짓 링크를 따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형태를 띄게 된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매개효과 연구들과 같이 총효과(total effect) = 직접효과(direct effect) +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계산이 가능하다. 종속변수가 이분형인 경우 자연로그(log) 형태를 취한 오즈비(odds-ratio)가 아래 수식을 만족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효과에서 간접효과가 갖는 효과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Orri

et al., 2019; Kuha & Goldthorpe, 2010; Kuha et al., 2021).

$$\log(\theta^T) \approx \log(\theta^D) + \log(\theta^I) \qquad (수식2)$$

2) 적합도 확인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경우 적합도 지수 중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와 Entropy값 등을 일반적으로 활용한다. 전체적인 통계적 검증 방법은 Nylund-Gibson과 Choi(2018) 등의 연구에서 최근까지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된 내용을참고하였다. AIC, BIC 외에 통계적 검증을 위한 지표로는 LMR-L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BLRT (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값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중 BIC, AIC, SABIC 등의 지표는 낮을수록 유형의 수가 적합함을 나타내며(Nylund et al., 2007), 추정된 모형이 대상을 잠재집단에 정확히 분류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엔트로피(Entropy)값은 1에 가까운 값일수록 적절히 분류된 것을 의미한다. 엔트로피 값이 0이면 대상이 임의적으로 각 유형에 분류된 상황이고 1이면 정확히 분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Magidson & Vermunt, 2001). 엔트로피 값이 0.7 이상이면 비교적 정확하게 대상이 유형에 분류된 것이며(Jung & Wickrama, 2008), 값이 0.8 이상이면 매우 뚜렷하게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AIC, BIC와 SSABIC 값이 작고, 엔트로피는 높은 경우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Reinecke, 2006). 통계적 검증을 위한 적합 지수로는 Lo 외(2001)가 제안한 LMR-L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과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LMR-LRT는 프로파일 수가 k 개인 모형과 k-1 개인 모형을 비교하여 적합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검증 결과 p값이 유의하면 k 개의 유형을 가지는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Lo et al., 2001). BLRT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한 검증으로 p값이 0.05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k개의 유형을 가지는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Nylund et al., 2007).

경로분석 시에는 종속변수가 명목형(Categorical)인 경우를 고려하여 적합도 지수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MPLUS(version 7)에서는 이러한 경우 기본 추정방식으로 WLSMV (weighted least squares estimator)를 사용하며, 이 경우 RMSEA, CFI, TLI 등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W(weighted)RMR 지수 값을 제공한다. 이 값은 '실험적'인 통계값으로, 보편적인 적합도 지표값으로는 이용되지 않는 지표이다(MPLUS Discussion, 2010b). 그 밖에 추정을 위한 방식으로 ML(Maximum Likelihood) MLR(Maximum Likelihood with Robust standard errors) 등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카이제곱 값 외의 적합도 값을 제공하지 않는다(Muthén & Muthén, 2010).

〈표 Ⅲ-11〉 적합도 판단 지표

구분		판단기준
절대적합지수	χ^{2*}	χ^2 검증 유의확률
	GFI(Goodness of Fit Index)	≥.90
	AGFI(Adjusted Goodnes of Fit Index)	≥.85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08
증분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90
	IFI(Incremental Fit Index)	≥.90
	TLI* (Tucker & Lewis Index)	≥.90
	CFI* (Comparative Fit Index)	≥.90
간명적합지수	PNFI(Parsimony NFI)	≥.50, .60
	PCFI(Parsimony CFI)	≥.50, .60
	PRATIO(Parsimony Ratio)	≥.50, .60
기타지수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oroximation)	≤.05: 매우 좋음 ≤.08: 좋은 편임 ≤.10: 적합

자료: Barett, 2007, Nylund-Gibson & Choi(2018), 김수영(2016), 배병렬(2016) 등을 참고하여 작성
주) *표시된 적합도의 경우 이 연구에서 활용한 적합도 지수임.

Ⅳ. 연구 결과

1.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최종적으로 조사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였다(① 진로정체감 유형화 단계에서 1) 분석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 세부단계).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Ⅳ-1〉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분석 대상은 총 711명으로, 층화비율 표집 방법으로 총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 = 711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	494	69.5%
	남	217	30.5%
지역	비수도권	386	54.3%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326	45.9%
전공계열	인문·사회	373	52.5%
	자연·공학	338	47.5%
복수(부)전공 이수여부	예	237	33.3%
	아니오	474	66.7%
학적상태	재학 중	639	89.9%
	과정 중 휴학	33	4.6%
	졸업은 가능하나 유예 중	39	5.5%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494명, 69.5% 정도로 다소 많은 비율로 표집되었다. 남성의 경우 217명으로 30.5% 수준이었다. 지역의 경우 조사된 대학을 기준으로 코딩되었으며 386명은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326명은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이 373명으로 약 52.5%, 자연·공학계열이 338명으로 전체의 약 47.5%였다. 전공계열은 주전공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복수전공과 학적상태

의 경우 분석에는 활용되지 않았으나, 데이터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추가 분석하였다.

나. 분석자료의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 조사된 변인은 총 4가지 도구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그 중 진로정체감의 경우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투입 요소로 활용된다. 그 밖에 개별 변인들은 경로모형에서의 관찰변인으로서 연구모형에 투입되었다. 각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량은 다음 〈표 Ⅳ-2〉와 같다. 진로불안, 자기결정성 진로동기는 각각 3개, 2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공 적합성은 단일요인으로 측정되었다. 진로정체감의 각 구성요소별 평균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반적 진로탐색' 3.808, '심층적 진로탐색' 3.843, '진로몰입확신' 3.384, '진로일체감' 3.781, '진로자기의심' 2.886, '진로유연성' 3.853으로 '진로자기의심'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의 경우 약 3.7~3.8 범위로 나타나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불안은 '책임에 대한 불안'3.261,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3.229, '과정에 대한 불안'3.242로 평균값이 '보통'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중 자율적 진로동기에 해당하는 '내재적 동기'는 3.478, '동일시 조절'은 3.910으로 '동일시 조절'의 값이 상당히 높았으며, 통제적 동기에 해당하는 '부과된 조절'은 3.817, '외재적 동기'3.491로 '부과된 조절'의 값이 '외재적 동기'보다 다소 높았다, 전공 적합성은 단일요인으로 측정되었으며 평균은 3.491 로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았다.

분석자료 기술통계에서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기준값 이하로 적정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TATA 패키지에서의 왜도, 첨도 기준은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0, 3이며(StataCorp, 2005),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연구에서 왜도의 경우 절댓값 2 미만, 첨도의 경우 절댓값 7 미만일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Curran et al., 1996; Ryu, 2011). SPSS 또는 SAS를 기준으로 이러한 값들을 계산할 시에는 다소 기준이 다른데, 이는 첨도를 계산하는 공식에 통계 패키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SPSS에서는 첨도의 경우 -3을 하여 0을 기준으로 첨도를 판단한다(Joanes & Gill, 1998).

〈표 Ⅳ-2〉 분석자료의 기술통계량

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정체감		전반적 진로탐색	1.25	5	3.808	.701	-.515	3.277
		심층적 진로탐색	1.4	5	3.843	.572	-.352	3.540
		진로몰입확신	1.25	5	3.384	.781	-.163	2.676
		진로일체감	1.2	5	3.781	.692	-.431	3.119
		진로자기의심	1	5	2.886	.950	-.003	2.303
		진로유연성	1	5	3.853	.761	-.903	4.327
진로불안		책임에 대한 불안	1	5	3.261	.880	-.383	2.694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1	5	3.229	.948	-.403	2.517
		과정에 대한 불안	1	5	3.242	1.026	-.446	2.524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자율적 동기	내재적 동기	1	5	3.478	.934	-.454	2.807
		동일시 조절	1	5	3.910	.724	-.621	3.607
	통제적 동기	부과된 조절	1	5	3.509	1.035	-.609	2.719
		외재적 동기	1	5	3.817	.954	-.925	3.464
전공 적합성		수요-능력 적합성	1	5	3.491	.915	-.686	3.202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경로 모형 투입 전 단계로 투입 변인의 구성요소 수준에서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와 상관행렬을 확인하였다. VIF는 종속변수와 무관하게 회귀식을 바탕으로 하여 계산된다. 상관행렬은 pearson 상관계수로 나타내었으며, 다음 〈표 Ⅳ-3〉과 같다. 이 과정에서는 STATA 16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VIF 확인 결과 공차 범위는 공차 범위는 .71~.80, 분산팽창지수(VIF)는 전체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 내 구성요소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진로정체감의 경우 하위 구성요소 간의 상관관계는 원 척도에서 나타나는 구성요소 간 관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진로탐색에 해당하는 '전반적 진로탐색'은 진로몰입에 해당하는 '진로몰입확신', '진로일체감'과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심층적 진로탐색'은 진로몰입 구성요소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몰입에 해당하는 '진로몰입확신', '진로일체감'은 진로재고에 해당하는 '진로유연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한국판 도구를 개발한 이보라 외(2014)와 달리 나타난 관계는 '전반적 진로탐색'과 '진로자기의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상관분석 결과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간에는 비교적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로불안은 구성요소 간에 .6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율적 동기의 각 구성요소(내재적 동기=-.184, 동일시 조절=-.138)와는 부적 상관관계, 통제적 동기의 각 구성요소(부과된 조절=.407, 외재적 동기=.395)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공 적합성과는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230). 진로불안은 자기결정성 진로동기의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과는 약한 수준의 정적 관련성이 있고, '동일시 조절' 및 '내재적 동기'와는 약한 수준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은교(2021)의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의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Gagné 외(2015)와 Van den Broeck 외(2013), 정은교(2021)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되는 단순구조(simplex structure)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측정도구 절에서 시행한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내재적 동기'는 통제적 동기와 부적으로 상관이 있으며 -.5~-.2 사이의 상관계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나, '동일시 조절'의 경우 '부과된 조절'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동기, 통제적 동기 내의 구성요소는 .5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3〉 경로모형 투입 변인의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

변인		공차	분산팽창지수(VIF)
진로정체감		.714	1.40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자율적 동기	.744	1.34
	통제적 동기	.771	1.30
전공 적합성		.800	1.25

〈표 Ⅳ-4〉 진로정체감,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구성요소 간 상관행렬

변인		1-1	1-2	1-3	1-4	1-5	1-6	2-1	2-2	2-3	3-1	3-2	4-1	4-2	5
1. 진로 정체감	1)전반적 진로탐색	1.000													
	2)심층적 진로탐색	.478***	1.000												
	3)진로몰입확신	.162***	.483***	1.000											
	4)진로일체감	.233***	.540***	.668***	1.000										
	5)진로자기의심	-.023	-.306***	-.471***	-.508***	1.000									
	6)진로유연성	.209***	-.052	-.300***	-.242***	.345***	1.000								
2. 진로 불안	1)책임에 대한 불안	.076*	-.132***	-.406***	-.360***	.601***	.396***	1.000							
	2)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065	-.162***	-.399***	-.371***	.615***	.359***	.817***	1.000						
	3)과정에 대한 불안	.043	-.137***	-.340***	-.309***	.549***	.300***	.695***	.793***	1.000					
3. 자율적 동기	1)내재적 동기	.284***	.404***	.372***	.472***	-.260***	-.065	-.184***	-.217***	-.223***	1.000				
	2)동일시 조절	.242***	.353***	.306***	.475***	-.305***	-.047	-.138***	-.150***	-.159***	.552***	1.000			
4. 통제적 동기	1)부과된 조절	-.095**	-.100**	-.202***	-.163***	.347***	.142***	.407***	.381***	.350***	-.207***	-.018	1.000		
	2)외재적 동기	-.065	-.172***	-.300***	-.269***	.340***	.211***	.395***	.405***	.333***	-.430***	-.225***	.517***	1.000	
5. 전공 적합성		.146***	.335***	.370***	.484***	-.288***	-.151***	-.230***	-.218***	-.163***	.365***	.381***	-.069	-.193***	1.000

주) *p<.05, **p<.01, ***p<.001

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진로정체감 유형화 결과

1) 적정 유형 수 결정

이 연구에서는 우선 연구 설계에서 제시한 첫 번째 단계로서 4년제 대학생 3, 4학년 총 711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 진로탐색, 심층적 진로텀색 등 6개 진로징체감 구성요소에 대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 1'에 따라 4년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이 몇 가지로 분류되는지, 각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은 어떠한 특징(관련변인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① 진로정체감 유형화' 단계에서 2) 진로정체감 유형화, 3) 적정 유형 수 결정, 4) 유형 명명 단계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는 각 지위 유형별로 진로정체감의 각 구성요소 평균값에 차이가 있으며, 잠재프로파일, 즉 잠재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공변량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2개 모형에서 시작하여 유형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각 분석모델의 분류기준이 되는 적합도 값과 분류 비율 등을 확인하는 탐색적 방법을 활용하였다(류지은, 2019). 이론적으로 4~6개의 지위 유형이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8개 유형까지의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3~7개 유형에서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표 Ⅳ-5〉 참조).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비교적 많이 활용되지 않았던 구성요소 간 관계를 잠재프로파일 분석 시 상관을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재고'의 3차원을 축으로 하여 지위 유형이 설명되어 왔으므로, 이들 내에 각각 존재하는 구성요소 간 상관을 가정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설정하고자 하는 유형의 수를 지정해 주어야 하므로, 2개~8개 유형을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한 후 적합도 지수를 통해 최종 유형의 수를 결정하였으며, 아래 〈표 Ⅳ-5〉에는 3~7개 유형 값만을 보고하였다. 이 때 활용되는 정보지수 AIC, BIC, Adjusted-BIC 값은 지위 유형의 수가 늘어날수록 점차 감소하였다. 이들 지수는 절대값이 낮을수록 좋은 적합도임을 의미하므로, 보다 많은 수의 지위 유형을 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7개=8155.819). 일반적으로 정보지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Elbow 그래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명확한 감소점(elbow)이 관찰되지 않았다. 즉, 정보지수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7개의 유형 분류가 가장 적절하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속적으로 정보지수 값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다른 적합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추후에 살사 효과(salsa effect)로 불리는 유사 패턴의 수준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Aflaki, 2022; Sinha et al., 2021).

분류의 질을 의미하는 entropy 값의 경우 .7~.78 수준으로 지위 유형이 5개일 때 가장 높았다. 다만 이 경우 .8 이상일 경우 우수한 분류의 질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모든 지위 유형이 비슷한 수준이며, 다른 적합도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LMR-LRT 값은 이전 모델(k-1)과 현재(k) 모델을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모델이 우수한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적합도 수치가 유사할 때 기존(k-1)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전 모델이 더 간명한 모델로서 간주되기 때문이다. BLRT의 경우 모든 모델에서 p=.000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6개 지위 유형 모델을 선택하고자 한다. 7개 지위 유형 모델이 BIC, Adjusted-BIC 지수 값에서는 우수하나 LMR-LRT 값이 6개에서만 유의하여 명확히 5개 지위 유형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 그리고 6개와 7개 지위 유형 모델을 비교하였을 때 개선되는 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 유형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진로정체감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대부분 5-6개 유형 수를 지지하는 점을 고려해 6개 지위 유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Ⅳ-5〉 진로정체감 유형화 기준 및 적정 지위 유형 수 (구성요소 간 상관 지정)

기준		지위 유형 수				
		3개	4개	5개	6개	7개
Log-Likelihood		-4126.759	-4072.740	-4036.985	-4005.908	-3981.254
정보지수	AIC	8311.518	8217.480	8159.970	8111.816	8076.508
	BIC	8443.952	8381.880	8356.337	8340.149	**8336.808**
	adjusted BIC	8351.870	8267.571	8219.802	8181.387	**8155.819**
분류의 질	entropy	.745	.735	.781	.769	.762
통계량	LMR	**148.034*** **	**105.738** **	69.987	**60.831* **	48.258
	BLRT	**.000**	**.000**	**.000**	**.000**	**.000**
분류 비중	유형 1	.07314	.46414	.07173	**.08861**	.29677
	유형 2	.53305	.13643	.44585	**.36146**	.10689
	유형 3	.39381	.32630	.10830	**.07454**	.33896
	유형 4		.07314	.34037	**.09564**	.07314
	유형 5			.03376	**.05345**	.05907
	유형 6				**.32630**	.09001
	유형 7					.03516

주1) *p<.05, **p<.01, ***p<.001

주2) 이론적 설명에 근거하여 총 3개의 상관관계 지정

전반적 진로탐색 ↔ 심층적 진로탐색 / 진로몰입확신 ↔ 진로일체감 / 진로자기의심 ↔ 진로유연성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6개의 지위 유형을 가지는 모델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절한 지위 유형의 수로 판단되는 6개 지위 유형 모델의 유형별 분류 비율을 확인하고, 할당 확률을 확인하였다. 6개 지위 유형 모델의 각 유형 비율은 최소 비율 기준인 5%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Jung & Wickrama, 2008). 할당 비율의 경우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지위 유형에 할당된 개인이 모델 내에서 동일한 지위 유형에 얼마나 정확하게 할당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형 1이 약 83.4%, 유형 2가 82.8% 등으로 대부분 80%

이상 정확히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Ⅳ-6〉 참조). 할당 비율이 .1 이상으로 다른 지위 유형에 분류된 경우는 '유형 1'과 '유형 4', '유형 5' 였다. 유형 1의 경우 유형 6에 .142, 유형 4의 경우 유형 2에 .127, 유형 5의 경우 유형 2에 .140으로 분류되어 이들 유형 간에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6〉 지위 유형별 할당 확률 평균

지위 유형	사례 수 (비율)	평균 할당 확률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1	63(8.86%)	.834	.000	.023	.000	.001	.142
유형 2	257(36.15%)	.000	.828	.005	.057	.021	.090
유형 3	53(7.45%)	.033	.016	.874	.000	.014	.064
유형 4	68(9.56%)	.000	.127	.000	.872	.000	.000
유형 5	38(5.35%)	.002	.140	.011	.000	.798	.048
유형 6	232(32.63%)	.051	.086	.014	.000	.018	.830

2)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명명

각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을 명명하기 위해 유형별로 갖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유형별로 진로정체감 구성요소의 평균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각 유형이 갖는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분류된 각 지위 유형이 갖는 '구성요소별 전체 평균값'을 활용해 표준화(Z-score)하였다. 각 유형의 진로정체감 구성요소별 Z-score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Ⅳ-7〉 참조).

〈표 Ⅳ-7〉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별 기술통계

구성요소주)	유형 1 (성취)		유형 2 (유예)		유형 3 (유실)		유형 4 (혼미)		유형 5 (탐색유예)		유형 6 (미분화)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1-1	4.216	.891	3.707	-.418	3.515	.675	3.462	.583	4.281	.123	3.894	-.493
1-2	4.38	.623	3.634	.642	4.210	.853	3.136	.939	4.331	.223	3.971	-1.235
1-3	4.34	.491	3.095	.975	4.147	.718	2.267	1.222	3.945	.156	3.506	-1.43
1-4	4.613	.331	3.458	1.105	4.546	.794	2.606	1.202	4.331	.309	3.995	-1.697
1-5	1.625	.365	3.439	-.919	2.014	1.204	3.83	-1.328	4.03	-.565	2.35	.994
1-6	3.953	.604	3.855	-2.134	2.231	.310	4.301	.130	4.089	.205	4.009	.589

주) 진로정체감 구성요소 (1-1= 전반적 진로탐색 / 1-2=심층적 진로탐색 / 1-3=진로몰입확신 / 1-4=진로일체감 / 1-5=진로자기의심 / 1-6=진로유연성)

유형 1의 경우 '전반적 진로탐색'이 .559, '심층적 진로탐색'은 .965, '진로몰입확신' 1.442, '진로일체감' 1.731, '진로자기의심' 2.190, '진로유연성' .361로 진로탐색과 진로몰입 측면의 모든 구성요소 값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었으며 진로재고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취 지위 유형은 일부 국내 연구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프로파일을 공유하며, 매우 일부 연구에서만 다소 낮은 진로재고 수준을 나타냈다. 따라서 기존의 지위 유형 분류체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성취'지위 유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표 Ⅳ-7〉 참조). 다음 [그림 Ⅳ-1]은 지위 유형별로 구성요소 평균으로 표준화한 Z-score를 나타낸 프로파일 그래프이다.

유형 2의 경우 '전반적 진로탐색'이 -.021, '심층적 진로탐색'은 -.686, '진로몰입확신' -.031,'진로일체감' -1.174, '진로자기의심' .972, '진로유연성' .195로 높은'진로자기의심'과 평균 수준의'진로유연성'을 갖는 유형이다. 이 밖에 진로탐색과 진로몰입의 경우 전반적으로 표준화시 음(-)의 값을 가져 부정적인 지위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국외 연구들에서 제안된 유예 지위 유형의 특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관련 유형화 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규화 방식이 각 요인에 대한 전체 평균값(grand mean)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 평균이 너무 높아 다소 값이 작게 도출될 수 있다. 그룹 평균(group mean)으로 표준화하여 비교했을 때에는 '전반적 진로탐색'이 .265, '심층적 진로탐색'은 .227, '진로몰입확신' -.210, '진로일체감' -.184로 나타나 진로탐색 측면(-)과 진로몰입 측면(+)의 방향성이 비교적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프로파일 패턴은 이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를 개발한 이보라 외(2014)에서의 '유예' 지위 유형과 유사한 것이었으며, 강혜정(2021)의 연구에서는 '재고하는 미분화(reconsidering undifferentiated)' 로 명명한 유형이 이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또한 최근 이은비 외(2020)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과 진로몰입 차원의 값이 모두 평균 이하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낮은 진로몰입 차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유예' 지위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Crecetti 외(2014)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유예(moratorium) 지위 유형을 다소 낮은 진로탐색과 낮은 진로몰입, 높은 진로재고를 갖는 지위 유형으로 명명한 바 있다. 또한 VISA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한 Porfeli 외(2011)의 연구에서 역시 유예(moratorium) 지위 유형의 분류에서 중간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진로탐색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 Schwartz 외(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재고를 포함한 도구를 통해 나타난 유예 지위 유형의 특징이 '중간 수준의 진로탐색, 낮은 진로몰입, 높은 진로재고'이며 혼미와 유사하나 진로몰입 측면에서 특히 부정적인 양상이 관찰되며 불안, 우울증과 정적인 관계, 웰빙과의 부정적 관계 등 고전적인 유예 지위 유형에서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유예 지위 유형과 유사한 프로파일이 나타나는 유형 2를 '유예' 지위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의 경우 '전반적 진로탐색'이 -.500, '심층적 진로탐색'은 .590, '진로몰입확신' 1.090, '진로일체감' 1.563, '진로자기의심' -1.512, '진로유연성' -2.550로 진로탐색 측면보다 진로몰입 측면이 훨씬 높은 값을 보이며, 진로재고 측면의 값은 상당히 낮은 특징을 갖는 유형이었다. 이는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분류되는 '유실' 지위 유형의 특징이다. 유예 지위 유형과 마찬가지로 VISA 도구를 개발한 Porfeli 외(2010, 2011)의 연구 역시 유사한 프로파일을 보여 주며, 최근 6요인으로 구성된 VISA 도구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국내외 연구 대부분 중간 수준이거나 다소 높은 '심층적 진로탐색' 수준을 보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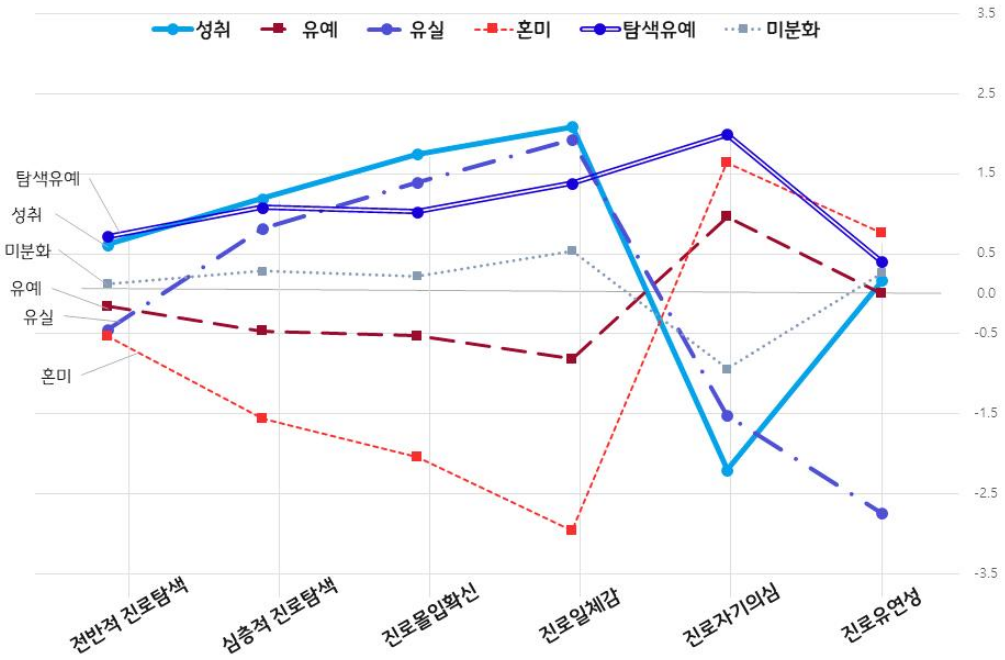
(Rhee 외, 2016; 손영미, 박정열, 2021; 오보영, 이상희, 2013; 정지후, 이상희, 2014; 이상희, 심희준, 2014).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VISA 도구를 통해 4요인 구조와 6요인 구조를 비교한 이상희와 오보영(2014), 이상회와 심희준(2014) 등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 연구의 결과에서도 4요인 군집분석 결과에서는 유실 지위 유형이 명확히 낮은 진로탐색 수준을 나타내나, 진로재고 측면을 고려하게 되면 유실 지위 유형에서 '심층적 진로탐색' 수준이 중간 수준 이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심층적 진로탐색' 구성요소는 유형화 분석 시 진로재고 측면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유형 3을 '유실' 지위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4의 경우 '전반적 진로탐색'이 -.580, '심층적 진로탐색'은 -1.788, '진로몰입확신' -2.342, '진로일체감' -3.318, '진로자기의심' 1.654, '진로유연성' .949로 높은 '진로자기의심' 값과 함께 진로탐색과 진로몰입 측면의 구성요소 값이 매우 낮은 유형이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모든 진로정체감 구성요소 값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혼미'지위 유형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최근 5개 이상의 구성요소를 주장한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혼미' 지위 유형의 특성은 여기에 더해 진로재고 측면에서도 높은 값, 즉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재탐색을 고민하고 있는 유형으로 설명되고 있다. 국외 연구 중에서는 심층적 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재고의 3요인으로 구성된 진로정체감 도구로 측정된 경우에 세 요인 모두가 낮은 경우를 혼미 지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도구의 차이 때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Luyckx et al., 2005; Crocetti et al. 2008b; Mancini et al., 2015). 손영미와 박정열(2021)은 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비교하여 한국 대학생의 혼미지위가 미국 학생들의 혼미 지위 유형에 비해 진로재고 수준이 확연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6개 요인으로 구성된 VISA 도구를 개발한 Porfeli 외(2011)의 연구와 후속연구들에서는 대체로 혼미 지위 유형을 진로재고가 높은 지위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진로자기의심' 값이 상대적으로 높고, '진로유연성' 값은 비교적 낮은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유형 4를 '혼미' 지위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5의 경우 '전반적 진로탐색'이 .658, '심층적 진로탐색'은 .858, '진로몰입확신' -.721,'진로일체감' 1.022, '진로자기의심' 2.003, '진로유연성' .590로 전반적인 진로탐색과 진

로몰입의 측면이 모두 높으면서 진로재고 측면 역시 다소 높은 값을 갖는 유형이었다. 이는 Meeus를 비롯한 최근 진로정체감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는'탐색유예' 지위 유형의 특징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어 '탐색유예' 지위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탐색유예 지위 유형은 진로재고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대체로 유예로 분류되었던 것을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유예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으로, 실제 VISA-K 도구를 통해 4요인과 6요인의 분류 결과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4요인 분류에서 약 42.1%의 '유예' 지위 유형이 탐색유예 지위 유형을 포함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이상희, 심희준, 2014).

유형 6의 경우 '전반적 진로탐색'이 .073, '심층적 진로탐색'은 .061, '진로몰입확신' -.080, '진로일체감' .177, '진로자기의심' -.925, '진로유연성' .455로 진로재고 측면에서의 비교적 낮은 '진로자기의심'과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진로유연성'을 제외하고는 진로탐색과 진로몰입의 모든 구성요소 값이 절댓값 .2 미만으로 거의 평균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전반적으로 중간을 맴도는 구성요소 값을 갖는다는 기존 연구들의 '미분화'지위 유형에 대한 설명과 거의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유형 6의 경우 유혜승(2016)의 연구에서 도출된 '무관심한 혼미', 강혜정(2021)의 연구에서의 '무관심(carefree) 미분화'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VISA-K 도구를 개발한 이보라 외(2014)의 연구에서 나타난 '미분화' 지위 유형과도 유사하게 진로몰입 측면이 약간 높은 형태를 나타냈다. 따라서 진로탐색과 진로몰입 측면에서는 명확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중간 수준을 보이며, 진로재고 측면에서도 큰 고민을 나타내지 않아 진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형 6은 '미분화' 지위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Ⅳ-1]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별 프로파일 (Z-Score)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화 분석자료를 종합하여 본 결과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주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유형화를 통해 분류된 6개 지위 유형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정체감의 프로파일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지위 유형별로 이 연구에서 투입한 6개 구성요소의 프로파일은 원점수와 Z-score 값을 통해 분석되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혼미' 지위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n=257), 두 번째로 많은 지위 유형은 '미분화' 지위 유형(n=232), 가장 수가 적은 지위 유형은 '탐색유예(n=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혼미' 지위 유형과 '미분화' 지위 유형이 상당히 많이 보고된 것이었다. 셋째, 이 연구에서의 결과는 분류 비율을 제외하고는 Porfeli 외(2011)를 비롯한 VISA 기반의 측정도구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지위 유형의 특징과 유사한 특징을 보고하였다.

3)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

각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명명 이후 유형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기술통계 및 일원분산분석(ANOVA)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Ⅳ-8〉).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지위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원분산분석 결과에서 역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은 표집에서 발생한 분포 차이가 상당하였으나, 확인 결과 대체로 전체 평균(남성 비율 30.5%)과 유사한 수준(25.7%~35.8%)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였다. 성별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에 불안과의 관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진로불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유예', '혼미', '탐색유예'지위 유형에서 남성 비율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혼미 지위 유형에서는 그러한 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이 연구에서 3, 4학년만을 표집하였고,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 전후로 발생하는 연령 차이와 이 연구에서의 성별에 따른 분포 차이를 고려했을 때 대체로 평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의 경우에도 대체로 절반 정도의 분포(전체 수도권 비율 45.9%)를 나타냈다. 탐색유예의 경우에만 수도권 비율이 34.2%로 편중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탐색유예에 분류된 개인의 수가 상당히 작아(n=38)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인다.

가장 큰 편차가 있었던 것은 전공 계열이었다. 이 경우에도 전체 평균(이공계 비율 47.5%)과의 차이는 10% 이내로 나타났다. 이공계 계열의 비중이 가장 큰 지위 유형은 유실(50.9%) 지위 유형이었으며, 다음으로 성취(47.6%), 미분화(48.3%), 유예(45.1%), 혼미(41.2%)로 나타났다. 이공계 계열 비중이 가장 적은 지위 유형은 탐색유예(34.2%)였다.

〈표 Ⅳ-8〉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

구성 요소	유형		평균 (s.d.)	전체 평균	F
성별	a	유형 1(성취)	.349 (.481)	.305	1.05
	b	유형 2 (유예)	.257 (.438)		
	c	유형 3 (유실)	.358 (.484)		
	d	유형 4 (혼미)	.353 (.481)		
	e	유형 5 (탐색유예)	.289 (.460)		
	f	유형 6 (미분화)	.323 (.469)		
연령	a	유형 1(성취)	22.86 (1.85)	22.92	.45
	b	유형 2 (유예)	22.81 (1.67)		
	c	유형 3 (유실)	23.04 (1.72)		
	d	유형 4 (혼미)	23.06 (1.96)		
	e	유형 5 (탐색유예)	22.92 (1.36)		
	f	유형 6 (미분화)	23.02 (2.13)		
지역	a	유형 1(성취)	.476 (.503)	.459	.78
	b	유형 2 (유예)	.451 (.499)		
	c	유형 3 (유실)	.509 (.505)		
	d	유형 4 (혼미)	.412 (.496)		
	e	유형 5 (탐색유예)	.342 (.481)		
	f	유형 6 (미분화)	.483 (.501)		
전공 계열	a	유형 1(성취)	.476 (.503)	.475	1.30
	b	유형 2 (유예)	.451 (.499)		
	c	유형 3 (유실)	.509 (.505)		
	d	유형 4 (혼미)	.412 (.496)		
	e	유형 5 (탐색유예)	.342 (.481)		
	f	유형 6 (미분화)	.483 (.501)		

2.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 직접효과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과 관련변인 간의 경로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크게 두 단계의 분석 과정을 거치고자 하였다. 먼저 '① 진로정체감 유형화' 단계를 통해 적정 유형의 수를 결정하고 6개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을 명명하였다. 다음으로는 '② 경로분석' 단계를 통해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을 범주형 종속변수로 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우선 유형화 결과를 원 데이터에 병합하여 자료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경로와 통제변인을 투입하여 경로모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고, 종속변수인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따라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로모형 분석 이전에 지위 유형에 따라 관련변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위 유형과 관련변인들의 관계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통제변인으로는 성별과 지역(대학 소재지)을 투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층화비율표집 방식을 통해 성별과 지역의 영향을 일부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비율표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러한 변수들을 분석 시에 추가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특히 성별의 경우 종속변수와는 약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진로불안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진로불안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원우 외, 2010). 해당 내용은 [부록 3]으로 제시하였다. 종속변인인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성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나 대체로 성별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로탐색 측면과 진로몰입 측면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진로탐색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들도 있다(Crocetti et al, 2013). 국내 연구들에서는 지위 유형의 성별을 비교적 최근 이루어진 몇몇 연구들에서만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었다(박진경, 2017; 이은비 외, 2020; 강혜정, 2021).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대체로 지위 유형 분류 비율은 남녀에 따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별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차이

경로모형 분석 이전에 각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별로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지위 유형별로 관련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일원분산분석(ANOVA)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Ⅳ-9〉). 성취 지위 유형의 경우 진로불안이 2.417, 자율적 진로동기가 4.453, 통제적 진로동기가 2.984, 전공 적합성이 4.107로 나타나 평균값보다 낮은 진로불안과 높은 자율적 진로동기 수준, 낮은 통제적 동기 수준을 보고하였으며, 전공적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예 지위 유형의 경우 진로불안이 3.577, 자율적 진로동기가 3.450, 통제적 진로동기가 3.781, 전공 적합성이 3.300으로 나타났다. Porfeli 외(2011)는 유예와 미분화 지위 유형이 미래에 갖게 될 잠재적인 일(work)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유예 지위 유형은 전체 지위 유형 중 혼미 지위 유형 다음으로 낮은 수준의 자율적 동기와 가장 낮은 전공 적합성 값을 보고하였다. 반면 진로불안 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며, 통제적 동기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실 지위 유형의 경우 진로불안이 2.349, 자율적 진로동기가 4.029, 통제적 진로동기가 3.295, 전공 적합성이 4.013으로 낮은 진로불안, 비교적 높은 자율적 동기, 전공적합성 수준을 보고하였으며, 성취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통제적 진로동기 수준을 나타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혼미 지위 유형의 경우 진로불안이 3.835, 자율적 진로동기가 2.891, 통제적 진로동기가 4.103, 전공 적합성이 2.424로 가장 높은 진로불안 수준을 보였다. 또한 자율적 동기 수준과 전공 적합성 수준은 가장 낮았으며, 통제적 동기 수준은 가장 높았다.

탐색유예 지위 유형의 경우 진로불안이 3.688, 자율적 진로동기가 4.079, 통제적 진로동기가 4.030, 전공 적합성이 3.905로 나타났다. Porfeli 외(2011)의 연구에서는 탐색유예 지위 유형은 일(work) 가치 부분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진로불안 평균값이 3.688로 전체 지위 유형 중 혼미 다음으로 높아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의 평균값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이보라 외, 2014). 반면 전공 적합성의 경우에는 지위 유형 중 성취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미분화 지위 유형의 경우 진로불안이 3.071, 자율적 진로동기가 3.807, 통제적 진로동기가 3.493, 전공 적합성이 3.660으로 나타났다. 미분화 지위 유형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진로불안을 보고하였으며, 평균과 비슷하나 다소 높은 자율적 진로동기, 다소 낮은 통제적 진로동기 수준을 나타냈다. 전공 적합성 역시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 연구에서 진로정체감과 함께 조사한 변인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한 결과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미분화' 지위 유형은 진로재고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평균값에 가까운 진로정체감 구성요소 값을 가지고 있으나 진로불안 수준은 낮았고, '탐색유예' 지위 유형은 오히려 비교적 높은 진로불안 값을 보고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대체로 지위 유형 간에는 관련변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에서 확인된 지위 유형 간 특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불안의 경우 수준이 높은 지위 유형인 '유예', '혼미', '탐색유예'와 '성취', '유실'등의 지위 유형에 차이가 있었으며, 자율적 진로동기는 수준이 높은 지위 유형은 '성취','유실', '탐색유예'지위 유형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혼미'지위 유형과는 모든 지위 유형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적 진로동기는 지위 유형 간 차이가 비교적 가장 적었는데, 낮은 수준인 '성취', '유실' 지위 유형이 비슷하였고, '유예', '혼미', '탐색유예', '미분화' 지위 유형과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공 적합성은 '유실', '탐색유예', '미분화'지위 유형이 중간에서 다소 높은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있으나 성취 지위 유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 '혼미' 지위 유형은 확연히 낮은 전공 적합성 수준을 보여 다른 모든 지위 유형과 차이가 있었다.

〈표 Ⅳ-9〉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별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차이

구성 요소	유형		평균 (s.d.)	전체 평균	F	Sheffe' 주)				
						a	b	c	d	e
진로 불안	a	유형 1(성취)	2.417 (.934)	3.248	57.90***					
	b	유형 2 (유예)	3.577 (.595)			○				
	c	유형 3 (유실)	2.349 (.943)				○			
	d	유형 4 (혼미)	3.835 (.621)			○		○		
	e	유형 5 (탐색유예)	3.688 (.964)			○		○		
	f	유형 6 (미분화)	3.071 (.720)			○	○	○	○	○
자율적 진로동기	a	유형 1(성취)	4.358 (.595)	3.670	48.44***					
	b	유형 2 (유예)	3.450 (.592)			○				
	c	유형 3 (유실)	4.029 (.847)				○			
	d	유형 4 (혼미)	2.891 (.771)			○	○	○		
	e	유형 5 (탐색유예)	4.079 (.754)				○		○	
	f	유형 6 (미분화)	3.807 (.606)			○	○		○	
통제적 진로동기	a	유형 1(성취)	2.984 (1.236)	3.624	18.18***					
	b	유형 2 (유예)	3.781 (.675)			○				
	c	유형 3 (유실)	3.295 (1.06)				·			
	d	유형 4 (혼미)	4.103 (.699)			○		○		
	e	유형 5 (탐색유예)	4.030 (.841)			○		△		
	f	유형 6 (미분화)	3.493 (.846)			△	·		○	·
전공 적합성	a	유형 1(성취)	4.107 (.871)	3.491	42.67***					
	b	유형 2 (유예)	3.300 (.691)			○				
	c	유형 3 (유실)	4.013 (.963)				○			
	d	유형 4 (혼미)	2.424 (.871)			○	○	○		
	e	유형 5 (탐색유예)	3.906 (.982)				△		○	
	f	유형 6 (미분화)	3.660 (.81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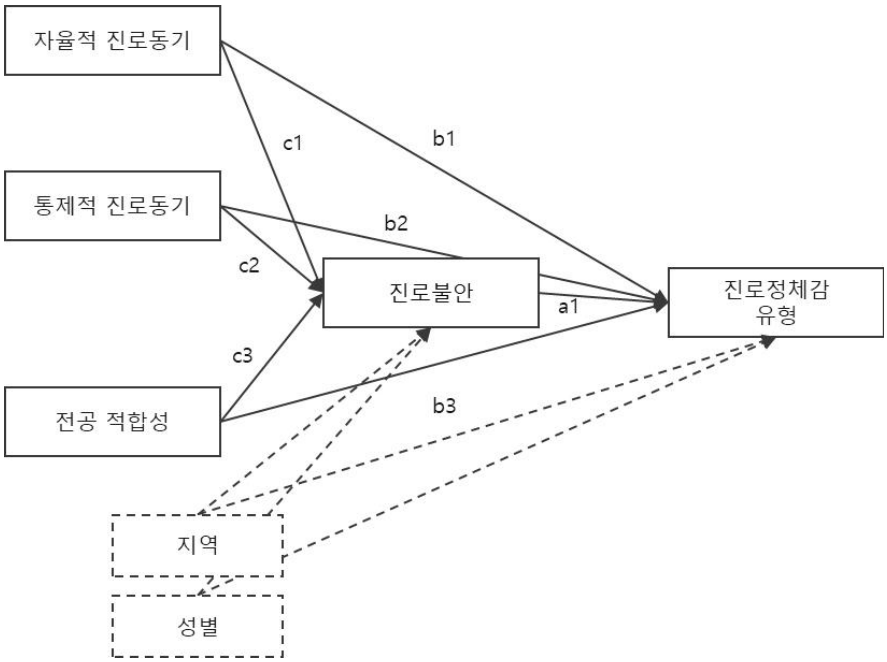
주) *** = p < .001, ○ = p < .001, △ = p < .01, · = p < .05

나. 분석모형 검증

이 단계에서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이후 종속변수인 지위 유형에 따른 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본적인 경로모형 분석을 시행하여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후 수정이 필요한지, 통제변수를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성별, 지역)를 포함한 분석모형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 Ⅳ-2]와 같다.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 설계한 비교모델인 '혼미' 지위 유형 대비 다른 유형을 전체적으로 투입해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외생변수로 투입된 자

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과의 관계를 우선 확인하였는데, 통제변수로 투입된 성별과 지역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p>.05), 모델의 적합도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χ^2=158.800(DF=3), RMSEA=.270, CFI=.710, TLI=-.931). 따라서 내생변수(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진로불안) 에만 통제변수의 영향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는 이론적으로도 부합하는데,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통제변수로 투입된 성별과 지역은 종속변수를 포함하여 내생변수이자 매개변수로 투입된 진로불안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과정에서는 이론적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내생변수에 통제변수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되 모델 수정을 위해 수정지수(MI)를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모형은 수정하지 않되 통제변수와 외생변수 간 상관을 0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아래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우선 카이제곱 값은 유의하지 않아 적절하였다(χ^2=10.018, DF=7). RMSEA 값은 .05 미만으로 매우 적절하며, CFI= 994, TLI= 983으로 모두 .95 이상의 매우 적합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W-RMR값은 .549로 이 지표는 MPLUS에서 제공하는 실험적 지표이며 특정 적합 범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MPLUS 패키지에서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경우 적합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소 주의가 필요한데, 분석 시에는 범주형 종속변수와 관련하여 모수추정시 몇 가지의 추정기(estimator) 종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WLSMV(weighted least squares estimator) 추정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Muthén et al., 2015). BAYES 추정기와 같은 일부 경우 적합도를 보고하지 않는 등의 이슈가 있다. 그러나 다른 추정기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경우 Orri 외(2019)에서의 서술 방식과 같이 WLSMV를 기초로 하여 적합도를 확인하되 다른 추정기를 통해 개선된 계수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Ⅳ-2] 분석모형

다음으로 제시한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각 지위 유형 간 비교를 위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지위 유형의 개수는 6개로, 연구문제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혼미(유형 4)'지위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는 5개의 모델을 통해 각각의 분석 결과가 도출되게 된다. 이 경우 앞 절에서 제시한 최종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모형과는 통계적으로 다른 적합도가 도출되므로, 5개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여 보고하였다(〈표 Ⅳ-10〉 참조). 이 연구에서 'χ^2 Test of Model Fit'으로 제시된 χ^2 값은 WLSMV 추정으로 도출된 것으로 일반적인 값과 달리 차이 검증에 활용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Ⅳ-10〉에서 제시한 경로분석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우선 RMSEA 값은 대부분 .500 수준으로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2의 경우 RMSEA 값은 .055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신뢰구간과 함께 판단했을 때에는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Chen et al., 2011). 특히 RMSEA와 같은 구조방정식의 적합도 지표는 범주형 종속변수를 다루는 경우에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에 들어서 연속형

변수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판단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기존에 적용되는 적정 기준(cut-off) 기준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모델 개선을 의미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Xia & Yang, 2019).

RMSEA의 경우 이론적으로 추정 가능한 최솟값이 .000으로 표시되므로, RMSEA의 신뢰 구간(CI)을 추정값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PLUS에서는 신뢰구간 값을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aris et al., 2009; Shi et al., 2022). 모델 5의 경우 .143으로 RMSEA 값이 적절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 경우 작은 자유도(df: degree of freedom)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최종 모델 자유도(df=7)는 2 이하의 매우 작은 수치는 아니지만,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통해 함께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Kenny et al., 2015). CFI(comparative fit index)는 범위가 0과 1 사이되는 표준 적합 지수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CFI ≥ .95이다. CFI가 1보다 큰 경우 1로 조정되어 제시된다. TLI(Tucker-Lewis index) 역시 ≥ .95 기준을 적용하나, 이 지표의 경우 1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다. CFI가 1보다 작으면 CFI는 항상 TLI보다 큰 값을 갖는다(West et al., 2012). 또한 이 연구에서와 같이 TLI는 1.000 이상으로 도출될 수 있다. TLI 지표가 1 이상의 값을 갖는 것은 MPLUS를 비롯한 여타 통계 패키지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결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유사한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로서 자문을 얻은 Orri 외(2019)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적합도 지수가 확인되었다(RMSEA = 0.000, (0.000~0.016) CFI=1.000, TLI=1.017). 일부 적은 수의 관측변수(관측변수 p<10)가 투입되는 경로모형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지표들이 정상 기준 이내일 경우 적절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MPLUS Discussion, 2010a).

〈표 Ⅳ-10〉 최종 경로분석 적합도 지수

기준	연구 모델				
	모델 1 (혼미 vs. 성취)	모델 2 (혼미 vs. 유예)	모델 3 (혼미 vs. 유실)	모델 4 (혼미 vs. 탐색유예)	모델 5 (혼미 vs. 미분화)
자료 수	131	325	121	106	300
χ^2 Test of Model Fit	6.935(df=7)	13.844(df=7)	3.070(df=7)	3.587(df=7)	50.011***(df=7)
RMSEA (신뢰구간)	.000 (.000 .107)	.055 (.000 .097)	.000 (.000 .055)	.000 (.000 .072)	.143 (.107 .182)
CFI	1.000	.967	1.000	1.000	.797
TLI	1.001	.902	1.085	1.129	.392
적합여부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주1) *p<.05, **p<.01, ***p<.001

주2) 적합도 판단기준 : χ^2 test(유의확률>.05),
RMSEA(≤.05: 매우 좋음, ≤.08: 좋은 편임, ≤.10: 적합)
CFI(≥.90), TLI(≥.90)

주3) 모델 4의 경우 적합도 지수는 WLSMV, 계수는 동일 모델에서 BAYES 추정기로 추정된 것을 보고하여 주의가 필요함.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여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설정한 경로모형 적합도를 검증한 후 연구 설계에서 제시한 대로 '혼미' 지위 유형과 다른 지위 유형을 비교하는 각각의 모델의 분석 결과를 개별적으로 보고하였다. 모델 추정 시 다소 적은 수의(n<100) 모델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보다 강건한 결과를 제공하는 BAYES 추정기를 사용하였다(모델 4: 혼미 vs. 탐색유예). BAYES 추정기는 범주형 종속변수의 경로모형에서 RR(risk ratio) 또는 OR(Odds ratio)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보고되고 있다(Nguyen et al., 2016). 이 연구에서는 경로모형 내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 연구문제에 따라 각 모델별로 직접효과와 함께 매개효과를 제시하였다. 매개효과의 경우 신뢰구간을 95% 기준으로 보고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종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추정한 모델 1-4까지의 적합도는 비교적 적절하였으나, 모델 5(혼미 대비 미분화)의 경우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분석 결과에서는 제외하였다.

다. 직접효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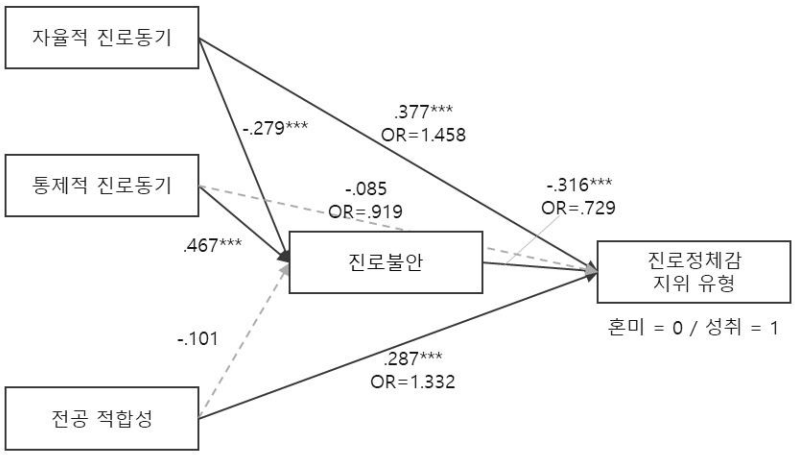
모델 1	‘혼미’ 대비 ‘성취’ 지위 유형

이 절에서는 분석모형을 통해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의 직접효과를 모델별로 확인하였다. ‘혼미’ 지위 유형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성취’집단과 비교한 결과 확인된 직접효과는 〈표 Ⅳ-11〉에 요약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진로불안과 자율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중 ‘혼미’ 대비 ‘성취’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종속변수이면서 범주형 변수인 ‘진로정체감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된 각 경로(a1, b1, b2, b3)의 경우 연결함수인 로지스틱 함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비표준 경로계수를 지수화하여 계산된 오즈비(Odds Ratio)를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오즈비와 베타 계수(β)를 함께 표기하였으며, 오즈비로 직접 변환이 가능한 비표준화 계수를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그림 Ⅳ-3] 참조). 따라서 진로불안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진로정체감 ‘혼미’지위 유형에 비해 ‘성취’ 지위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은 약 .729배이며, 자율적 진로동기의 경우 1단위 증가 시 1.458배, 통제적 진로동기의 경우 1단위 증가 시 .870배, 전공 적합성의 경우 1단위 증가 시 1.33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진로동기는 진로정체감 유형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전공 적합성 역시 진로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진로동기는 B=.279($p<.001$), 통제적 진로동기는 B=.467($p<.001$)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표 Ⅳ-11〉 직접효과 분석 결과 (혼미 대비 성취)

직접효과 경로	Odds Ratio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S.E.	t값
경로 a1.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유형	.729	-.316	**-.334*** **	.085	-3.939
경로 b1. 자율적 진로동기 → 진로정체감 유형	1.458	.377	**.379*** **	.072	5.231
경로 b2. 통제적 진로동기 → 진로정체감 유형	.919	-.085	-.096	.096	-1.001
경로 b3. 전공 적합성 → 진로정체감 유형	1.332	.287	**.346*** **	.057	6.099
경로 c1. 자율적 진로동기 → 진로불안	-	-.279	**-.265*** **	.087	-3.039
경로 c2. 통제적 진로동기 → 진로불안	-	.467	**.502*** **	.058	8.728
경로 c3. 전공 적합성 → 진로불안	-	-.101	-.116	.070	-1.661

주) *p<.05, **p<.01, ***p<.001



[그림 Ⅳ-3] 모델 1(혼미 대비 성취)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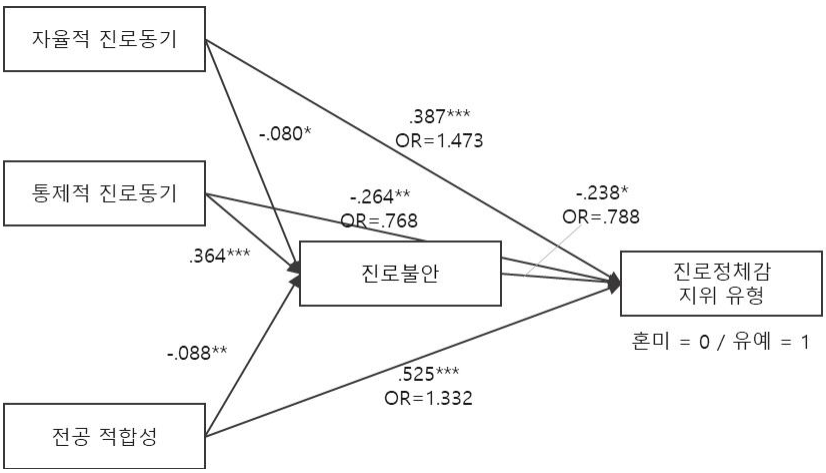
모델 2	‘혼미’ 대비 ‘유예’ 지위 유형

‘혼미’ 지위 유형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유예’ 지위 유형과 비교한 결과 확인된 직접효과는 〈표 Ⅳ-12〉와 같다. 결과적으로 진로불안과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은 모두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중 ‘혼미’ 대비 ‘유예’의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불안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진로정체감 ‘혼미’ 지위 유형에 비해 ‘유예’ 지위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은 약 .788배이며, 자율적 진로동기의 경우 1단위 증가 시 1.473배, 통제적 진로동기의 경우 1단위 증가시 .768배, 전공 적합성의 경우 1단위 증가 시 1.69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1(혼미 대비 성취)과의 차이점은 자율적 진로동기가 진로정체감 유형에 미치는 영향(B=.387(p〈.001))과 전공 적합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B=-.088(p〈.01))이 유의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공 적합성이 높아질수록 진로불안 수준이 낮아지며 자율적 진로동기가 높아질수록 혼미 대비 유예 지위 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1.473배) 해석할 수 있다.

〈표 Ⅳ-12〉 직접효과 분석 결과 (혼미 대비 유예)

직접효과 경로	Odds Ratio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S.E.	t값
경로 a1.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유형	.788	-.238	**-.145***	.069	-2.114
경로 b1. 자율적 진로동기 → 진로정체감 유형	1.473	.387	**.260*****	.060	4.337
경로 b2. 통제적 진로동기 → 진로정체감 유형	.768	-.264	**-.182****	.070	-2.598
경로 b3. 전공 적합성 → 진로정체감 유형	1.690	.525	**.426*****	.060	7.060
경로 c1. 자율적 진로동기 → 진로불안	-	.080	**.088***	.038	2.327
경로 c2. 통제적 진로동기 → 진로불안	-	.364	**.414*****	.039	10.560
경로 c3. 전공 적합성 → 진로불안	-	-.088	**-.117****	.048	-2.446

주) *p<.05, **p<.01, ***p<.001



[그림 Ⅳ-4] 모델 2(혼미 대비 유예)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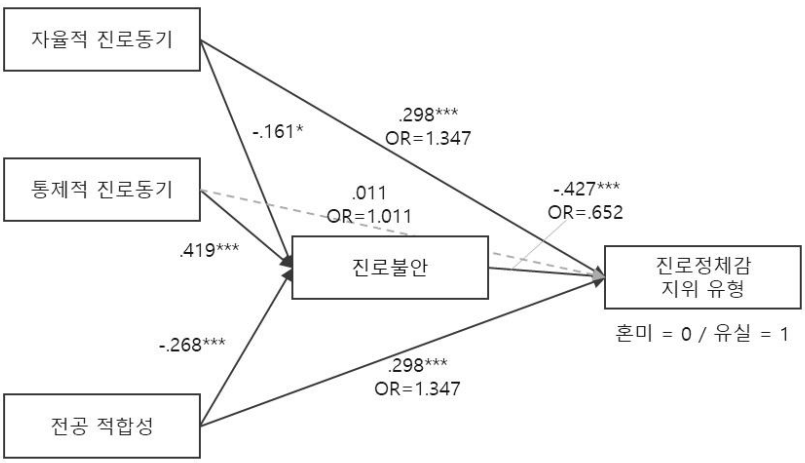
모델 3	'혼미' 대비 '유실' 지위 유형

'혼미'지위 유형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유실' 지우 유형에 속하는 집단과 비교한 결과 확인된 직접효과는 〈표 Ⅳ-13〉과 같다. 결과적으로 진로불안과 자율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중 '혼미' 대비 '유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불안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진로정체감 '혼미'지위 유형에 비해 '유실'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은 약 .652배이며, 자율적 진로동기의 경우 1단위 증가 시 1.347배, 전공 적합성의 경우 1단위 증가 시 1.34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였다. 모델 3(혼미 대비 유실)의 분석 결과는 모델 1(혼미 대비 성취)의 분석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였다. 동일하게 통제적 진로동기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진로정체감 유형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였다. 차이점은 전공 적합성이 진로불안에 유의한 영향(B=-.268(p〈.001))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표 Ⅳ-13〉 직접효과 분석 결과 (혼미 대비 유실)

직접효과 경로	Odds Ratio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S.E.	t값
경로 a1.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유형	.652	-.427	**-.456*** **	.085	-5.385
경로 b1. 자율적 진로동기 → 진로정체감 유형	1.347	.298	**.292*** **	.060	4.896
경로 b2. 통제적 진로동기 → 진로정체감 유형	1.011	.011	.011	.103	.107
경로 b3. 전공 적합성 → 진로정체감 유형	1.347	.298	**.358*** **	.065	5.508
경로 c1. 자율적 진로동기 → 진로불안	-	-.161	**-.147* **	.071	-2.078
경로 c2. 통제적 진로동기 → 진로불안	-	.419	**.375*** **	.064	5.864
경로 c3. 전공 적합성 → 진로불안	-	-.268	**-.301*** **	.070	-4.316

주) *p<.05, **p<.01, ***p<.001



[그림 Ⅳ-5] 모델 3(혼미 대비 유실) 분석 결과

모델 4	‘혼미’ 대비 ‘탐색유예’ 지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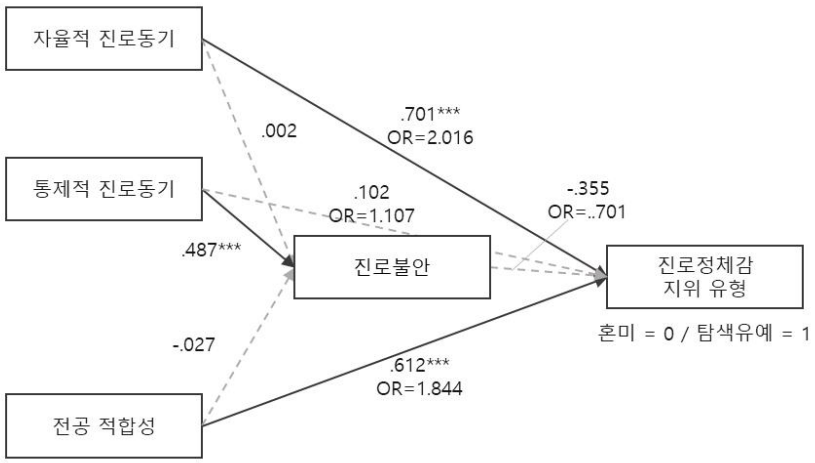
‘혼미’ 지위 유형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탐색유예’ 집단과 비교한 결과 확인된 직접효과는 〈표 Ⅳ-14〉와 같다. 결과적으로 자율적 진로동기와 전공 적합성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중 ‘혼미’ 대비 ‘탐색유예’의 지위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진로동기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진로정체감 ‘혼미’ 지위 유형에 비해 ‘탐색유예’ 지위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은 약 2.016배이며, 진로 적합성의 경우 1단위 증가 시 1.84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에서는 매개변인 역할을 할 것으로 설정한 진로불안이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시 BAYES 추정기를 사용하여 모델을 추정하였는데, 이는 비교적 적은 수의 관측치에 적절한 추정기 지표이다(Muthén et al., 2015).

〈표 Ⅳ-14〉 직접효과 분석 결과 (혼미 대비 탐색유예)

직접효과 경로	Odds Ratio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Posteriror S.D.	p-value
경로 a1.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유형	.701	-.355	-.155	.105	.083
경로 b1. 자율적 진로동기 → 진로정체감 유형	2.016	.701***	.363	.103	.000
경로 b2. 통제적 진로동기 → 진로정체감 유형	1.107	.102	.042	.095	.333
경로 b3. 전공 적합성 → 진로정체감 유형	1.844	.612***	.386	.115	.000
경로 c1. 자율적 진로동기 → 진로불안	-	.002	.002	.104	.494
경로 c2. 통제적 진로동기 → 진로불안	-	.487***	.449	.075	.000
경로 c3. 전공 적합성 → 진로불안	-	-.027	-.039	.111	.335

주1) *p<.05, **p<.01, ***p<.001

주2) BAYES 추정기(estimator) 활용에 따라 Posterior S.D.와 P-value를 보고함.



[그림 Ⅳ-6] 모델 4(혼미 대비 탐색유예) 분석 결과

3.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 관계에서 진로불안의 매개효과

모델 1	'혼미' 대비 '성취' 지위 유형

매개효과는 간접효과라고도 부르며 설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 이상의 변수가 매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추정 시 계산된 신뢰구간을 통해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다음 〈표 Ⅳ-15〉에서는 전체 효과에서 직접효과를 제한 간접효과만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통제적 진로동기와 진로정체감 유형(혼미 대비 성취)의 관계, 전공 적합성과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혼미 대비 성취)의 관계에서 진로불안이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자율적 진로동기는 진로불안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율적 진로동기는 혼미와 성취 지위 유형의 분류에서 직접적인 효과만을 가지며, 통제적 진로동기는 완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15〉 매개효과 분석 결과 (혼미 대비 성취)

효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S.E.	t값	신뢰구간[2] (하한-상한)
경로 c1*a1. 자율적 진로동기 →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유형	.088	.089***	.037	2.397	(.016 - .161)
경로 c2*a1. 통제적 진로동기 →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유형	-.148	-.167***	.046	-3.680	(-.257 - -.078)
경로 c3*a1. 전공 적합성 →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유형	.032	.039	.027	1.452	(-.013 - .091)

자율적 진로동기의 총효과: OR=1.592, B=.465, β=.467
통제적 진로동기의 총효과: OR=.792, B=-.233, β=-.264
전공 적합성의 총효과: OR=1.376, B=.319, β=.385

주1) *p<.05, **p<.01, ***p<.001

주2) MPLUS INDIRECT 옵션을 통해 계산된 신뢰구간임(표준화 기준). 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two-tailed p-value 추정치를 기준으로 유의도를 판단함.

모델 2	‘혼미’ 대비 ‘유예’ 지위 유형

다음 〈표 Ⅳ-16〉에서는 모델 2(혼미 대비 유예)에서의 간접효과를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통제적 진로동기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혼미 대비 유예)의 관계에서만 진로불안이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아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는 진로불안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통제적 진로동기만이 혼미와 유예 지위 유형의 분류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16〉 매개효과 분석 결과 (혼미 대비 유예)

매개효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S.E.	t값	신뢰구간[2] (하한-상한)
경로 c1*a1. 자율적 진로동기 →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유형	-.019	-.013	.008	-1.578	(-.029 - .003)
경로 c2*a1. 통제적 진로동기 →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유형	-.087	-.060*	.030	-2.028	(-.118 - -.002)
경로 c3*a1. 전공 적합성 →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유형	.021	.017	.012	1.463	(-.006 - .040)

자율적 진로동기의 총효과: OR=1.445, B=.368, β=.247
통제적 진로동기의 총효과: OR=.704, B=-.351, β=-.242
전공 적합성의 총효과: OR=1.726, B=.546, β=.443

주1) *p<.05, **p<.01, ***p<.001

주2) MPLUS INDIRECT 옵션을 통해 계산된 신뢰구간임(표준화 기준). 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two-tailed p-value 추정치를 기준으로 유의도를 판단함.

모델 3	'혼미' 대비 '유실' 지위 유형

다음 〈표 Ⅳ-17〉에서는 모델 3(혼미 대비 유실)에서의 간접효과를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자율적 진로동기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혼미 대비 유실), 통제적 진로동기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전공 적합성과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모든 매개관계에서 진로불안이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율적 동기와 전공 적합성은 높아질수록 진로불안 수준을 낮추며 이에 따라 진로정체감 유형이 혼미 대비 유실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통제적 진로동기는 높아질수록 혼미 대비 유실 지위 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 Ⅳ-17〉 매개효과 분석 결과 (혼미 대비 유실)

매개효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S.E.	t값	신뢰구간[2] (하한-상한)
경로 c1*a1. 자율적 진로동기 →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유형	.069	.067*	.034	1.956	(.000 - .134)
경로 c2*a1. 통제적 진로동기 →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유형	-.179	-.171***	.043	-3.981	(-.255 - -.087)
경로 c3*a1. 전공 적합성 →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유형	.298	.137***	.043	3.201	(.053 - .221)

자율적 진로동기의 총효과: OR=1.443, B=.367, β=.359
통제적 진로동기의 총효과: OR=.846, B=-.167, β=-.160
전공 적합성의 총효과: OR=1.511, B=.413, β=.495

주1) *p<.05, **p<.01, ***p<.001

주2) MPLUS INDIRECT 옵션을 통해 계산된 신뢰구간임(표준화 기준). 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two-tailed p-value 추정치를 기준으로 유의도를 판단함.

모델 4	'혼미' 대비 '탐색유예' 지위 유형

다음 〈표 Ⅳ-18〉에서는 모델 4(혼미 대비 탐색유예)에서의 간접효과를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자율적 진로동기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혼미 대비 탐색유예), 통제적 진로동기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전공 적합성과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모든 매개관계에서 진로불안이 이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7〉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진로불안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표 Ⅳ-18〉 매개효과 분석 결과 (흔미 대비 탐색유예)

매개효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B)	Posteriror S.D.	p-value	신뢰구간[2] (하한-상한)
경로 c1*a1. 자율적 진로동기 →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유형	-.001	.039	.481	(-.083 - .076)
경로 c2*a1. 통제적 진로동기 →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유형	-.164	.126	.083	(-.439 - .058)
경로 c3*a1. 전공 적합성 →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유형	.006	.034	.347	(-.057 - .085)

주1) *p<.05, **p<.01, ***p<.001

주2) MODEL CONSTRAIN 옵션을 통해 간접효과를 직접 계산하여 신뢰구간을 계산함(비표준화 기준). 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4.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 및 특성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여 온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대해 확인하고자 4년제 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을 잠재프로파일 분석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총 6개의 지위 유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명된 각각의 지위 유형(성취(achievement), 유예(moratorium), 유실(foreclosure), 혼미(diffusion), 탐색유예(searching moratorium), 미분화(undifferentiated)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는 지위 유형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성취 지위 유형은 높은 진로탐색과 진로몰입, 낮은 진로재고라는 보편적인 특징을 갖는다. 유예 지위 유형은 진로재고 측면을 포함하게 되었을 때 중간 수준의 진로탐색, 낮은 진로몰입과 높은 재고 수준을 보이며, 유실 지위 유형은 중간 또는 낮은 진로탐색과 비교적 높은 진로몰입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혼미 지위 유형 역시 낮은 진로탐색과 낮은 진로몰입, 높은 진로재고라는 명확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요인 연구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탐색유예 지위 유형 역시 성취와 유사하게 진로에 대한 탐색과 몰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스스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재고를 반복하는 상태로 명확히 해석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위 유형들은 함께 조사된 관련변인의 측면에서 대부분 기존의 지위 유형이 제공하는 설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불안 역시 성취, 유실 지위 유형에서 낮았고, 유예와 혼미 지위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율적 진로동기와 전공 적합성 등 긍정적인 선행요인의 경우에도 역시 성취, 유실 지위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예와 혼미 유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통제적 진로동기에 대한 부분은 낙관적이면서 동기 측면에서도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동일하게 유실 지위 유형에서 상당히 낮은 값을 나타냈다(Porfeli et al., 2011).

논의 1	유실 및 유예 지위 유형에 대한 논의

그러나 이러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연구에서 대표적인 것은 유예와 유실 지위 유형인데, 유실 지위 유형은 성취 다음으로 바람직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지위 유형으로 진로몰입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연구에서도 상당히 높은 진로몰입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중간 수준의 진로몰입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으며(Crocetti et al., 2014), 국내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였다(김유리, 이제경, 2016; 심희준, 이상희, 2016; 유혜승, 2016). 그러나 최근 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연구에서와 같이 중간 수준 이상의 '심층적 진로탐색', '진로몰입확신', '진로일체감' 값을 보고하고 있는 경우가 특히 국내 연구에서는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유실의 탐색적인 특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지위 유형으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홍월, 2020; 박한샘, 조화진, 2016; 이상희, 심희준, 2014). 이러한 최근 연구들은 모두 VISA 도구를 통해 연구되었는데, 달리 말하면 과거 연구들에서 유실 지위 유형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하는 근거로 제시한 탐색의 부재가 6요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비교적 약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유실' 지위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희, 심희준(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4요인에서 유실로 분류되는 경우는 명확히 중간 또는 낮은 탐색 수준과 높은 몰입의 특성을 나타내었으나, 6요인 결과에서는 오히려 '심층적 진로탐색' 구성요소 값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부정적인 진로탐색 측면을 보고한 개인들이 '미분화' 지위 유형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VISA 측정도구의 한국판(VISA-K)를 개발한 이보라 외(2014)의 연구에서도 '심층적 진로탐색' 측면은 중간 수준에 거의 근접하게 나타나 유사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진로재고의 유무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며, 6개 이상의 유형을 가정하였을 때 미분화 지위 유형이 일부 부정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몰입 특성을 보고한다면 유실 지위 유형의 경우에도 중간 수준 이상의 '심층적 진로탐색' 값을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유예 지위 유형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설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 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지위 유형을 면밀히 검

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예 지위 유형으로 분류된 경우 중간 수준보다 낮은 진로탐색과 낮은 진로몰입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국내 연구 중에서는 오보영과 이상희(2013)의 연구에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경우들이 있었다. 또한 Crocetti 외(2008b)의 연구에서도 '심층적 진로탐색'의 경우가 중간 수준보다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도 보고하였듯이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고하는 높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상태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연구와 같이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유예' 지위 유형보다 낮은 진로탐색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부정적인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예 지위 유형의 경우에는 6요인 연구들에서 추가된 '탐색유예', '미분화' 지위 유형과 함께 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손영미와 박정열(2021)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유예나 탐색유예에 분류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들의 경우 다른 진로를 탐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비교적 적은 비율로 분류되는 유실 지위 유형의 경우 미국 대학생들과 달리 외재적이고 부정적인 몰입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주의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논의 2	탐색유예 및 미분화 지위 유형의 확인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주요 결과는 기존부터 안정적으로 관찰되어 왔던 성취, 유예, 혼미, 유실의 4가지 지위 유형에 더하여 이보라 외(2014)의 연구, 정지후와 이상희(2014), Rhee 외(2016)의 연구와 같이 6개 지위 유형을 통해 도출된 탐색유예(searching moratorium)와 미분화(undifferentiated)지위 유형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Crocetti et al., 2008b).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에서는 탐색유예와 미분화 지위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나, 이는 명명하는 과정의 차이이며, 실제로 강혜정(2021)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재고하는 미분화'유형은 '유예' 지위 유형과, '무관심 미분화' 지위 유형은 '유실'지위 유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박진경(2017)의 연구에서 나타난 '방치' 지위 유형의 경우 모든 구성요소 값이 중간보다 낮아 독특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범계 대학생이라는 비교적 독특한 대상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 비율'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요인 구조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

한 국내 연구에선 대부분 5개 이상의 지위 유형을 분류하였다.

탐색유예 지위 유형은 진로불안과 통제적 동기, 전공 적합성이 모두 높아 개념적 정의와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탐색유예 지위 유형은 전공계열 중 인문계 계열이 가장 많은 지위 유형이었는데, 개인이 해당 전공에 대한 적합성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진로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 탐색유예 지위 유형에 분류되었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전공 측면에서의 고려가 상당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결과적으로 '유예' 지위 유형과 '탐색유예' 지위 유형의 유사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집분석과 달리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분석의 정확도를 할당 확률로서 제공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유예 지위 유형과 탐색유예 지위 유형은 상호간 분류가 중첩된 지위 유형으로 보인다(유예의 경우 탐색유예 할당 비율 .140, 탐색유예의 경우 .021). 이러한 결과는 프로파일 상으로 이들이 유사한 분포 패턴을 보이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가장 큰 차이는 지위 유형 내 평균값의 차이일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탐색유예의 특징인 유예와의 유사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탐색유예 지위 유형은 성취 유형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진로재고' 측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며 특히 '진로자기의심' 구성요소 값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성취 지위 유형보다 더 높은 진로탐색, 진로몰입 수준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자기의심, 높은 진로유연성 값을 보인 경우도 탐색유예로 명명된 경우가 있었다(김유리, 이제경, 2016).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성취 지위 유형보다도 더 긍정적인 지위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희와 오보영(2014)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탐색유예 단계의 대학생들은 성취 지위 유형보다는 유예 지위 유형에 가까운 특성을 보여준다고 보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진로몰입을 수정'하거나(Crocetti et al., 2008c), '정체감 성취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탐색을 하고 있는' 개인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타난 진로탐색과 진로몰입, 진로재고가 모두 높은 형태의 지위 유형으로 나타났다(Porfeli et al., 2011).

미분화 지위 유형은 명명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진로탐색과 진로몰입의 경향성이 없으며 진로재고 측면 역시 비교적 낮은,

진로발달 측면에서 제안된 탐색이나 몰입 차원에 무관심한 지위 유형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은 낮은 진로불안 수준과 중간 정도의 동기 수준을 나타냈으며, 다른 지위 유형과 비교하여서는 혼미나 유예 지위 유형과 비슷하나 다른 지위 유형의 경우 명확히 낮은 값을 보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Luycks et al., 2008). 이 연구에서는 미분화 지위 유형에서 역시 유예 지위 유형과 유사하게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할당 비율이 .1 이상 '성취'지위 유형에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미분화 유형에 포함된 개인은 어느 정도 성취 유형과의 유사성, 즉 전반적으로 높은 진로탐색과 진로몰입, 낮은 진로재고라는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평균적으로 중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진로발달 측면에서의 무관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강혜정(2021)의 연구에서도 언급한, 학과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무관심한(carefree) 미분화 지위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었다.

논의 3	지위 유형의 분류 비율에 대한 논의

마지막으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와 관련하여 논의할 만한 점은 6개 지위 유형의 분류 비율에 대한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Mancini 외(2015)를 비롯한 국외 연구에서는 지위 유형의 분류 비율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유예, 유실, 탐색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국내 연구로 한정지어 살펴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다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는 단순히 분류 비율만을 놓고 비교한 것이므로 적절한 통계정 검증을 거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미분화 지위 유형이 분류된 경우 미분화 지위 유형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유예 유형 역시 상당히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분화 지위 유형은 이보라 외(2014)의 연구에서는 약 22.9%, 정지후와 이상희(2014)의 연구에서는 약 22.2%, 오보영과 이상희(2013)의 연구에서는 약 22.9%, 강혜정(2021)의 연구에서는 '무관심 미분화' 지위 유형이 27.9%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전공 분포의 차이와 같이 설명되곤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전공의 비율이 거의 1:1로 표집되어 그러한 차이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 비교적 설득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한국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거나, 혹은 최근 큰 영향을 미친 COVID-1

9 등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훨씬 미분화 지위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약 32.6%). 또한 유예 지위 유형 역시 36.1%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 혼미(9.56%)와 더불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지위 유형이 2/3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혼미 지위 유형의 경우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Crocetti 외(2014)가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연령 증가에 따라 혼미 지위 유형의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오히려 이 연구에서와 같이 3, 4학년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유예 지위 유형과 미분화 지위 유형이 더욱 많이 분류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김유리와 이제경(2016)의 연구에서도 유예 지위 유형의 분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유예 단계가 대학생시기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몰입의 과정을 겪지 못하고 다양한 대안에 대한 탐색 위주의 재고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부정적인 지위 유형에서 성취와 같은 바람직한 지위 유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적 지원뿐만 아니라 수용적인 도전이 제공되는 상황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맥락적인 배경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Kroger, 2007).

나. 경로모형에서의 직접효과에 대한 논의

연구 결과 경로모형에서 진로불안과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은 진로정체감 유형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매개변수로 투입된 진로불안에도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해석에는 상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결과였다.

우선 진로불안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에 대체로 부적(-)인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진로불안이 높으면 혼미 지위 유형보다는 타 지위 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진로불안이 진로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설명들을 지지한다(Newman et al., 1989). 초기 특성(trait)불안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살펴본 여러 연구들은 불안이 일반적으로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들을 보고한 바 있다(Fuqua et al., 1988; Vignoli, 2015). 그러나 이 연구에서와 같이 특정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상당히 특수한 불안, 즉 상태(state)불안으로서의 진로불안의 경우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불안은 진로결정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주요한 정서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탐색유예 지위 유형에서 진로불안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였다. 이 모델의 경우 전반적인 적합도 자체는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진로불안이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 탐색유예 지위 유형이 명확히 높은 진로탐색 및 진로몰입 수준을 나타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외의 결과였다. 반면 자율적 진로동기와 전공 적합성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탐색유예 지위 유형의 분류에는 진로재고라는 특성이 크게 좌우되며, 진로정체감 혼미와 유사한 심리적 상태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탐색유예 지위 유형은 진로불안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자율적 진로동기와 전공 적합성과 같은 동기적, 맥락적 변인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념적으로 탐색유예 지위 유형이 성취나 유실 지위 유형에서 변하여 달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공과의 적합성이나 개인의 동기와 같은 요인 때문에 이러한 지위 유형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설명은 미분화 지위 유형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이 사회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떠한 개인이 선택한 진로분야에 큰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대학원과 같은 추가적인 진로재고의 상황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강혜정, 2021).

자율적 동기의 경우 모든 모델에서 분류에 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이는 자율적 동기가 높을수록 '혼미'지위 유형이라는 가장 부정적인 지위 유형보다는 다른 지위 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Yeager 외(2014)와 같은 연구에서는 동기적인 측면 중 '내재적'인 동기가 일부 자기 성찰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내재적인(intrinsic) 동기가 아닌 자율적(autonomous) 동기를 투입한 것으로서, 내재적 동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여러 유형 간에 진로몰입 측면의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탐색과 몰입 측면에서 자율적 측면의

동기 변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였다(조유희, 2016).

통제적 동기의 경우 총효과는 모든 모델에서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는 혼미 대비 유예(모델 2)에서만 부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통제적 진로동기를 혼미 지위 유형 대비 다른 지위 유형으로의 분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결과였다. 혼미 대비 유예(모델 2)에서만 직업효과가 유의한 것은 유예 지위 유형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통제적 동기의 진로탐색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외재적인 동기의 경우 경력성공에 대한 기대를 제공함으로서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였으며, 대체로 탐색에 대한 동기부여로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분류된 지위 유형 프로파일에서는 혼미와 유예 지위 유형에서의 진로탐색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미 대비 유실(모델 3)에서는 통제적 동기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총효과 크기 역시 가장 작아 몰입 측면에서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재적이고 통제적인 동기 역시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나, 대체로 내재적이고 자율적인 동기가 더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Waterman & Waterman, 1976; Van den Broeck et al., 2021).

모델 2를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설은 혼미와 유예 지위 유형이 진로재고를 제외하고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낮은 진로정체감 수준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정체감 형성이 되지 않고 위기(crisis)를 겪는 집단에서 특히 통제적 진로동기가 강한 효과를 갖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혼미를 벗어나 새로운 탐색을 경험하는 유예 지위 유형으로의 변화에 통제적 진로동기가 영향을 미치며, 발달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정체성 혼미 지위 유형에서 시작하는 진로정체감 발달의 시작점으로서 DFMA(혼미-유실-유예-성취) 변화 패턴의 중요한 동기 요인으로서 통제적 진로동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Waterman, 1982).

전공 적합성은 개념적으로 대학 재학 중의 여러 결과변수와 높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연구 결과 전공 적합성은 모든 모델에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전공적합성이 진로 실제 대학에서의 다양한 활동이라던지 경험, 개인의 노력 등의 과정을 거쳐 탐색과 몰입 측면에서 모두 진로정체감 형성에 전반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atcher et al., 1992; Ostoff, 1992;

Feldman et al., 2004; Rocconi et al., 2020). 또한 성취와 유실 지위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모델 1과 모델 3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지위 유형에서 가장 큰 차이는 '진로유연성'에서 드러나는데, 경로분석 결과에서는 전공 적합성의 평균적인 수준은 비슷하며 진로정체감 지위 분류에는 모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 적합성 수준이 진로재고 측면에서는 두 지위 유형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자율적 진로동기가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적 진로동기와 함께 설명이 가능한데, 모델 4(혼미 대비 탐색유예)를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불안에 부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통제적 진로동기는 불안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즉 자율적 동기가 높은 경우일수록 진로불안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통제적 동기가 높을수록 진로불안 수준은 높아지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는 정서적으로 진로결정 상황에서의 불안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전체적인 모델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Ariani(2017)에서의 연구 결과와 같이 통제적 동기의 경우 불안과 상관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와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전공 적합성의 경우 모델 1(혼미 대비 성취), 모델 2(혼미 대비 유예)와 모델 3(혼미 대비 유실)에서의 경로계수 패턴을 통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해볼 수 있다. 전공 적합성은 대체로 진로불안에 부적(-)인 영향이 있어 전공 적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로불안을 낮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혼미 대비 성취 유형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전공이라는 대학 내 환경(environment)과의 적합성 인식이 불안을 감소시키지만, 혼미와 성취 지위 유형 간의 차이는 그보다는 동기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성취 지위 유형에 속하는 개인은 다른 요인(e.g. 성격적 요인)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전공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불안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혼미 대비 미분화(모델 5)는 5개 모델 중 유일하게 모델 적합도가 유의하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해석하지 않았다.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 모델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혼미 지위 유형과 미분화 지위 유형의 3개

차원(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재고) 간 차이가 투입변수들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미분화 지위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32.63%), 유사한 프로파일을 공유하면서 각 차원의 점수만 조금씩 다른 여러 개인이 이 지위 유형에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명확한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다. 이처럼 미분화 지위 유형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러한 발달 과정 바깥에서 관망하는(wait and see) 상태로 볼 수 있으며(Adams et al., 2006; Luyckx et al., 2008), 이러한 지위 유형에 속하게 되는 것에는 개인의 진로에 대한 불안이나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외에도 다른 영향요인이 관여하고 있을 수 있다.

다. 경로모형에서의 간접효과에 대한 논의

연구 결과 경로모형에서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과 진로정체감 유형 간의 관계에서 진로불안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혼미 대비 성취(모델 1)와 혼미 대비 유실(모델 3) 모델에서는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가 모두 진로불안을 매개하여 진로정체감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율적 진로동기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상황에서 대체로 진로와 관련된 불안을 완화하며, 성취나 유실과 같이 혼미와 비교했을 때 보다 바람직한 지위 유형과의 차이에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Amoura et al., 2014; Fernet & Austin, 2014; Sandrin et al., 2019).

통제적 진로동기는 반대로 진로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진로정체감 지위 분류에, 특히 혼미 대비 바람직한 지위 유형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혼미 대비 유실(모델 3)에서는 통제적 동기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과 더욱 강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델 2(혼미 대비 유예)에서의 매개효과는 통제적 진로동기가 부정적인 지위 유형 간의 차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지위 유형 프로파일에 근거하면 혼미 지위 유형과 유예 성취 유형은 진로탐색 측면에서의 차이도 발견되지만 진로몰입 측면에서의 차이도 있으며, 진로재고 측면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러한 차이는 다른 지위 유형 간의 차이에 비해서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자율적인 동기보다는 통제적인 동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혼미 대비 성취(모델 1), 혼미 대비 유실(모델 3) 두 경우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두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으나. 간접효과를 비롯한 효과의 크기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모델 간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에는 실제 해당 지위 유형의 변인 분포를 고려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으나, 개별 모델에서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활용이 가능하다. 혼미 대비 성취(모델 1) 모델에서는 통제적 진로동기가 진로불안을 매개로 진로정체감 분류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영향(β =-.167, p<.001)이 자율적 동기의 간접효과(β =.089, p<.001)보다 컸으나, 자율적 진로동기의 직접효과(β =.377, p<.001)에 더하여 총효과는 자율적 진로동기의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혼미 대비 유실(모델 3) 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으나,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의 총효과 차이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혼미 지위 유형과 대비하여 진로정체감 성취 및 유실 지위 유형의 분류에는 자율적 진로동기가 높을수록 성취 지위에 분류될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가 함께 높은 경우에는 자율적 진로동기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효과의 크기 차이를 고려했을 때 진로동기과 지위 분류의 관련성은 성취 지위에서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두 지위 유형의 유형별 변인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높은 자율적 동기와 비교적 낮은 통제적 동기 수준은 높은 '진로유연성'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외생변인들이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 적합성의 매개효과는 모델 3(혼미 대비 유실)에서만 확인되었다. 모델 3에서는 모든 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공 적합성은 전공에서의 부적응과 불안감 등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에서의 '상호작용'에 따라 단기·중기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설정한 것과 같은 진로결정 상황은 해당 전공에서 학습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직무·직업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욱 강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주로 진로몰입 측면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다. 효과 크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전공 적합성의 총효과(β =.495)는 모델 3에서 가장 컸는데, 이에 따르면 전공 적합성이

매우 높은 개인의 경우 적절한 추가적 탐색이나 몰입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실 지위 유형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모델 1(혼미 대비 성취)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진로불안을 매개하여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가능한 설명은 성취 지위 유형에 비해 유실 지위 유형에 속하는 개인들이 더 진로몰입 측면에서 민감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로에 대한 탐색을 비교적 덜 경험했기 때문에 불안감에 따라서 유실 지위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실 지위 유형에서 중요한 진로몰입 차원은 개인의 일에 대한 동기와 더불어 사람이나 환경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 이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Guan et al., 2021).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을 분류하고,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 대비를 통해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의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해 구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명명한 후 진로정체감과 관련된 문헌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위 유형의 분류에 자율적 동기, 통제적 동기, 전공 적합성이 영향을 미치고 변인 간의 관계에서 진로불안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4년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둘째, 4년제 대학생의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이 진로불안을 매개하여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진로불안은 4년제 대학생의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과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가?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으로 설정하였다. 교육부에서 보고하고 있는 자료에 근거하였을 때 모집단은 총 190여 개 학교, 141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표집 방법은 층화비율표집을 사용하였고, 표집 기준으로는 지역, 전공, 성별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총 20개(수도권 학교 10개, 비수도권 학교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여 71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과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및 전공 적합성 도구를 포함한 설문지 형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조사하여 활용하였다. 문항은 총 80개 문항으로 각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대학생이라는 연구 대상과 진로결정 상황이라는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진로정체감 도구의 경우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고, 전공 적합성 도구의 경우 기존의 개인-직무 적합성과 전공 적합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단일 요인의 척도로 새로이 개발되었다. 모든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고 .8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이루어졌으며 본조사를 포함하여 11월 5일까지 약 2주 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결측치와 불성실 응답을 제거하고,

온라인 설문에서 표집 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1, 2학년, 교육·의약·예체능 전공 등)이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여 총 711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에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 간 상관관계, 기술통계를 확인하였다.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설계를 제안하였다. 먼저 자료를 정제한 뒤 첫 번째 단계로 '진로정체감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유형화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MPLU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을 투입하여 도출된 6개 지위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때 진로불안은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과 진로정체감 유형을 매개하는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다. 또한 내생변인을 통제하는 경로를 설정하여 성별과 지역을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년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6개의 지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위 유형의 수는 6개로 결정되었다. 이는 AIC 값(8111.816), BIC 값(8340.149) 그리고 Adjusted-BIC 값(8181.387) 등 적합도 값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LMR-LRT 값이 유의하여(60.831) k-1개의 모델보다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전체 분류 비율은 각각 8.86%(성취), 36.15%(유예), 7.45%(유실), 9.56%(혼미), 5.35%(탐색유예), 32.63%(미분화)로 나타났다.

둘째, 경로모형을 통해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과 함께 진로불안,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 변인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변인의 영향은 분석 모델에 따라 상이하였다. 전체 5개의 분석모델 중 모델 5(혼미 대비 미분화) 의 경우 모델 적합도가 적합하지 않아 분석 결과에서 보고하지 않고 제외하였다. 진로불안은 진로정체감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서 지위 유형의 분류에 대체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모델 4(혼미 대비 탐색유예)에서만 유의하지 않았다. 자율적 진로동기는 모든 모델에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에 정적(+)인 영향이 있어 자율적 동기가 높은 경우에 혼미 대비 타 지위 유형의 분류에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동기는 모델 2(혼미 대비 유예)에서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혼미 지위 유형과 비교하여

유예 유형에 분류될 확률에는 통제적 동기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경로모형에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과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 간의 관계에 진로불안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 역시 모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델 4(혼미 대비 탐색유예)에서는 진로불안의 직접효과와 더불어 모든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자율적 동기는 모델 1과 모델 3에서 진로불안을 매개하여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통제적 동기는 모델 1, 2, 3 모두에서 진로불안을 매개하여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유형화를 통해 도출한 4년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상하였던 것과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총 6개의 지위 유형이 확인되었으며, 각각 성취(achievement), 유예(moratorium), 유실(foreclosure), 혼미(diffusion), 탐색유예(searching moratorium), 미분화(Undifferentiated)로 명명되었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었던 지위 유형이 확인되어 미국을 비롯한 국외 연구들에서와 동일하게 국내에서도 유사한 지위 유형들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재차 검증하였다.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별 구성요소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역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유예(낮은 진로몰입이라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음)와 유실(심층적 진로탐색이 상대적으로 높음) 지위 유형이었으며 해석 시 이러한 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4년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특성은 대체로 선행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 지위 유형의 경우 높은 낮은 진로불안 수준과 높은 자율적 동기, 낮은 통제적 동기, 높은 전공 적합성 등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또한 각 관련변인의 값은 유사한 지위 유형의 경우(예: 진로불안 & 유예, 혼미)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위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4년제 대학생의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은 연구모형에서 진로불안과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지위 유형을 기준으로 설정한 5개 분석 모델 중 모델 5(혼미 대비 미분화)는 연구모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생변인으로 투입된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은 대체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공 적합성과 진로불안과의 관계는 혼미 대비 성취 지위 유형 모델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상황에 따라 영향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반면 동기와 불안과의 관계는 혼미와 탐색유예 지위 유형의 비교에서만 유의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일에 대한 동기가 불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4년제 대학생의 자율적·통제적 진로동기, 전공 적합성과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 관계에서 진로불안은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역시 분석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구 결과 가장 중요한 경로는 통제적 동기가 진로불안을 매개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지위 유형에서 통제적 동기와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간의 관계에 진로불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분석 모델 간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지위 유형의 구분에 맥락적·성격적 요인과 같이 진로동기와 전공 적합성 이전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의 영향이나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영향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련 요인들을 함께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학에서의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진로탐색과 진몰입, 진로재고라는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지위 유형에 대한 이해는 상담 현장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학에서

의 진로지원 프로그램 등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대학에서는 최근 진로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화·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일수록 명확한 방향성을 파악하여 특정 집단을 타게팅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 역시 경력개발센터나 상담 현장에서의 심리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될 수도 있으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변인과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의 분류를 함께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함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형화 후 유예 지위 유형에서 진로불안 수준을 다시금 확인한 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처럼 지위 유형 판단의 보조 지표로서 이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을 통해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 분류에서의 선행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Big5 성격 요인과 같은 다른 선행요인이 진로정체감 지위및 다른 선행요인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탐색은 개방성과 정적인 관계가, 신경증 성향은 탐색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성격적 특성과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Borghuis et al., 2020; 오보영, 이상희, 2013).

둘째, 전통적인 4개 지위 유형(성취, 유예, 유실, 혼미)외 에 더하여 최근 추가로 제안되고 있는 '탐색유예'와 '미분화' 지위 유형을 더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위 유형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설명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으나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결과 해석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 지위 유형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지위 유형과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K-VISA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관련 연구들을 참고하여 해석하였으나 이 도구들 역시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상을 통해 타당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탐색유예'와 같은 경우 이보라 외(2014) 등의 관련연구에서 상당히 가치가 높은 지위 유형으로 설명되지만 이 지위 유형이 진로정체감 발달이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유예-성취 사이클(MAMA cycle)에서 탐색유예 지위 유형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나타나는 프로파일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서로 다른 방법론을 통해 분석된 유형화 결과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각 구성요소에 대한 개별적 해석과 함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적극 확인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표집 시 성별의 차이로 인해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부록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실제 선행연구들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형 분류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진로정체감 측면에서만 설명되기는 어렵다. 또한 최근에는 각각의 구성요소(e.g. 진로자기의심, 진로유연성)가 개별적으로 투입되어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게 큰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진로재고 측면의 경우 '진로자기의심' 구성요소를 성취와 탐색유예 지위 유형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미분화나 유실 지위 유형에서는 낮은 상태가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진로자기의심과 진로유연성이 같은 차원으로서 해석되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부분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Porfeli 외(2013)의 연구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진로자기의심'과 '진로유연성'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재고(reconsider)의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연구문제에 따라 통제적 진로동기는 자율적 진로동기와 구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추가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진로탐색이나 진로몰입 측면에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통제적 진로동기의 영향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통제적 진로동기'의 경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연구에서의 결과는 전체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심리 변인의 일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해석의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미 대비 유예 모델에서는 통제적 진로동기의 경우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특정한 연구 맥락을 고려했을 때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가 같은 선상에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동기의 개념이 '일과 관련된 동기'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진로동기 개념을 '개인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와 같이 여겼으며, London(1983)이 제시한 개념을 차용하기도 하는 등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진로동기를 해석해 왔다. Guay(2005)의 진로결정자율성 개념 역시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귀영, 2022). 그러나 이는 진로정체감의 개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심층적인 탐색에 대한 행동이나 목표달성에 대한 행동이 낮게 나타날 수 있어 '진로몰입'이나 '진로재고' 측면을 연구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소 영향이 작게 측정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체감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 '일(work)'에 대한 동기인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부정적인 지위 유형과 관련하여 진로불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혼미 대비 성취에서보다 혼미 대비 유예, 혼미 대비 유실 지위 유형에서 진로불안이 매개변인으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기술된 부분들이 있으나 진로정체감 관점에서 본다면 혼미 지위 유형이나 미분화 지위 유형에서 벗어나 유예 또는 유실 지위 유형으로 발달하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진로탐색과 진로몰입 측면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입(intervention)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개입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불안과 같은 정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안은 진로몰입, 진로재고 차원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유예 단계의 개인이 장기적으로 해당 지위 유형에 남아있지 않도록 몰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진로탐색이나 몰입 차원에서의 개입에서 효과적인 방식과 시기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진로탐색을 촉진하기 위한 개입 방식에서 개인의 동기부여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 부정적인 지위 유형에서는 각 개인의 불안 수준을 함께 낮출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Porfeli 외(2013)가 제안한 것처럼 주변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개입 방식이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하자면 대학생들에게 인근 지역사회에서의 일자리, 창업에 관련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혼미 지위 유형이 많이 포함된 경우 단순히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 이 학생들의 전공이나 상황에서 실질적인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위 유형으로의 발달에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공 적합성과 관련하여 대학 입학 이전 단계의 진로지도가 더욱 강조된다. 초기에 개인의 성향과 흥미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이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진로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연구는 대학생 중에서도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시행하였고, 전공 적합성을 '직무와 유사한 단일 요소'로서 고려하였다. 즉 대학에서의 지원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배제하고서도 장기적으로 전공 적합성이 진로정체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전공 적합성(주전공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석 연구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표집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복수(부)전공 이수여부'를 통해 추가적으로 이를 해석하여 볼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위 유형별로 복수(부)전공을 이수한 경우는 약 24.5%~42.1%로, 탐색유예(42.1%)를 제외하고 30% 내외의 비율로 나타나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실제 복수전공 이수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전공 적합성은 장기적으로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가장 초기에 전공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질 때 적절한 전공을 선택하여 진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Meyer 외(2022)의 연구와 같이 대학에서의 부적응이나 전공 잔류와 같은 방식으로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위 유형의 분류에서 혼미와 유예, 미분화 지위 유형의 분류 비율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후속연구를 통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과 학년(3, 4학년)이 갖는 특징이거나 최근 엄청난 영향을 끼친 COVID-19의 영향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증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추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연구들이 축적된 후에는 VISA 또는 VISA-K를 활용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메타분석과 같은 정량적 방법으로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종단적 연구를 통해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따른 성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도 강조되어 왔던 부분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연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는 혼미→유예, 혼미→성취, 유실→성취와 같은 초기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진로정체감의 지위 유형 변화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종단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Kroger et al., 2010). 이 연구에서는 지위 유형 간 비교가 가능하지만 이는 분류

된 유형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에 가까우며 시간적으로 전·후에 대한 판단이나 인과관계를 가정할 수는 없다. 또한 대학교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져 연령에 따른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정체감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해 볼만한 것은 이 연구에서 분류된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이 이후 진로성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은경 외(2017), 정영미(2018), 김진아(2019) 등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의 '수준'에 기반하여서만 종단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이유영(2021)의 최근 연구 외에 거의 수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K-VISA 도구의 타당화 연구가 다양한 대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VISA 도구의 한국판 척도(K-VISA)를 개발한 이보라 외(2014)의 연구와 후속연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부분이다. 우선 여전히 연구의 부족으로 이 도구를 활용하여 발달단계별로 요인구조가 검증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어 추후 국외 연구들과의 비교를 위해서도 이러한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다른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진로정체감이라는 개념은 심리적 구조로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지위 유형을 제안하고 해석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결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미분화 지위 유형 같은 경우가 그러하며, 이러한 지위 유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연구 과정에서 새로이 타당화 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를 함께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진로동기와 통제적 진로동기, 진로불안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선행요인이나 관련변인이 있는지 탐색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이는 각 분석 모델에서 나타나는 직접관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통제적 진로동기와 같은 변인이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어떠한 맥락에서 불안과 같은 부정적 심리요인과 관련이 있는지,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이 있는지 등을 새로운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명희, 윤성혜, 김도희, 류다현. (2016).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진로동기간의 구조관계 규명: 진로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9**(2), 27-48.

강신철, 권경인. (2015).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6**(1), 41-60.

강원덕. (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61-175.

강혜영. (2011). 이공계 대학생의 흥미-전공일치도, 자기효능감과 전공적응도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2**(1), 115-127.

강혜정. (2021). 진로정체감 지위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영향요인 검증: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391-412.

고귀영. (2022). **전문대학생의 주도성, 미래시간관, 교수학생상호작용, 진로결정자율성 및 학습몰입과 진로적응력 간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홍월. (2020). 진로정체감 검사와 진로정체감 지위검사에 따른 진로정체감 특성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33**(3), 1-24.

권재기. (2011).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한국아동복지학, 34**, 95-126.

기수연, 최바올. (2019). 대학생의 특성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자기격려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2**(4), 93-115.

김관호. (2017). **진로정체감, 동기조절, 학업성취, 삶의 만족 간의 관계분석.**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미희, 신유형, 문철우. (2012). 개인-직무 적합성과 과업 및 맥락 성과 과업 중요성과 자율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20**(1), 93-128.

김민선, 연규진. (2014). 진로결정의 어려움 관련 정서 및 성격 척도의 한국 축소판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연구, 27**(3), 65-94.

김민선. (2018).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진로갈등과 진로결정 어려움의 관계: 부정적 진로기대와 진로결정 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2), 135-157.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김민정. (2013). **수술실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정체성 및 조직성과.**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민지. (2017). **대기업 HRD 담당자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개인-직무 적합성, 자기효능감, 경력개발지원 및 직무도전성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보경.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보경. (2017). **청소년의 삶의 목표, 삶의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봉환. (197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남, 김태환. (2018). 마이스터고 신입생의 진학동기 영향요인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3), 61-85.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학지사.

김순미, 이현림. (2008).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3), 27-48.

김순화. (1983). **부모의 자녀행동 통제양식의 지각과 자아정체수준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신정, 김성회. (2012).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3), 1425-1441.

김아영. (1998). 동기이론의 교육현장 적용 연구와 과제: 자기효능감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2**(1), 105-128.

김아영. (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16**(4), 169-187.

김아영. (2003). 교실에서의 동기. **교육심리연구, 17**(1), 5-36.

김예림. (2020). **대학생의 진로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유리, 이제경. (2016).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K) 모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5), 331-356.

김은영, 성소연, 최명구. (2014). 자기결정동기 유형에 따른 부모의 자율성지지 환경, 기본심리욕구, 자기결정동기, 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1**(5), 1-27.

김은영. (2006).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희, 안혜영, 엄미란, 이미영. (2010).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 업무수행, 전문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산업간호학회지, 19**(1), 50-59.

김정희, 정일환, 정진철, 주동범, 박세훈, 권동택, 강낙원, 이현민. (2017). 대학생의 교내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9**(2), 63-88.

김주석. (2019).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탄력성이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9), 99-118.

김지근, 이기학. (2016).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 및 성격 관련 진로 어려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7**(3), 205-223.

김지연, 이기학. (2014).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7**(3), 1-25.

김진희. (2014). 전공과 희망직업 불일치 대학생의 진로스토리에 나타난 진로결정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993-1021.

김창희, 김정이. (2020). 간호대학생의 실습소속감, 전공만족도, 직업가치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6**(3), 259-268.

김태선. (2003).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검사와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환. (2019).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헌수, 장기명, 이난. (2004).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적용이 대학생의 진로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18**(1), 261-278.

김혜영, 윤안순, 심지현. (2019). 내재적, 외재적 진로선택동기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7), 95-104.

김혜정. (200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과의 관련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홍석 (2012). **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나리길, 배소영. (2021). 코로나 19 로 인한 우울감과 취업불안이 호텔관광전공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33**(7), 275-291.

노윤신, 정철영. (2016). 대학생의 진로적응력과 주도적 성향, 진로탐색행동,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8**(2), 55-81

류지은. (2019). **대졸 신입사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유형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눈몬.

문지은, 이지혜, 이상민. (2015). 여자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스트레스: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1**(3), 233-255.

문화진. (2019).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불확실성에 대한인내력 부족과 진로 불안의 관계: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 797-815.

민경희, 김봉환. (2014). 4 년제 대학생용 정서 · 성격적 진로문제 (EPCD) 척도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27**(2), 109-131.

민경희. (2012). **대학생용 정서·성격적 진로문제(EPCD) 척도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자원. (2020). **개인-전공적합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_수업 내 기본심리욕구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지식. (2020).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진로결정 대처전략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박미란. (2009). **전문직 정체성이 직무만족 및 소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1), 417-435.

박미진, 김진희. (2014). 대학생의 의사소통 불안과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6), 2471-2490.

박병기, 이종욱, 홍승표. (2005). 자기결정성이론이 제안한 학습동기 분류형태의 재구성. **교육심리연구, 19**(3), 699-717.

박아청. (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정민사.

박아청. (1994). Marcia의 아이덴티티 지위면접을 활용한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1), 167-185.

박아청. (1996a). 한국청소년의 정체감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2), 68-78.

박아청. (1996b).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5(1), 140-162.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박연옥, 박수진, 허정. (2017).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7**(2), 103-124.

박영우. (1994). **대학생의 진로선택과 취업불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완성. (2005). 진로탐색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진로결정수준 · 진로정체감 ·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18**(2), 289-304.

박원우, 박희태, 김선태. (2010). 개인-환경 적합성의 개념분류,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연구. **경영논집, 44.**

박원우, 고동운, 윤은성. (2010). 연구의 인과성 제고: 통제변수의 의의, 활용 현상 분석 및 제언. Seoul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1, 1-49.

박정규. (2021. 10. 14.). **대학생 86% "취업목표 달성 위해 졸업유예 의향 있어".**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1866

박정아. (2019). **대학생의 자기결정성과 개인-전공적합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진경. (2017).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한샘, 조화진. (2016).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신경증, 다차원적 완벽주의 및 부모 진로지지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9**(2), 213-236.

배병렬. (2016). **Mplus 7.0 구조방정식모델링.** 도서출판청람.

배제현. (1984). **자아-아이덴티티와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백소희. (2019).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 성취목표지향성과 성취정서의 영향력 검증.**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유란,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비교 연구: 진로태도성숙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525-542.

성소연, 배성아.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22**(9), 277-299.

성지영, 박원우, 윤석화. (2008). 개인-환경 (조직, 상사, 동료) 적합성이 조직시민행동 및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공정성의 매개효과 검증. **인사조직연구, 16**(2), 1-62.

성태제. (1998).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학지사.

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7**(1), 109-125.

손영미, 박정열. (2021). 상호협조적-독립적 부모자녀관계가 진로정체감 지위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문화연구: 한국과 미국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7**(4), 27-59.

손은령. (2006). 한국 대학생의 진로 신화. **상담학연구, 7**(2), 447-465.

송보라, 이지원, 이기학. (2013).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동료애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1), 426-426.

송윤정, 조규판. (2016). 대학생의 내재적 전공선택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61-77.

송현심, 홍혜영. (2010). 대학상담: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송현아, 유순화, 윤경미. (2010).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11), 263-288.

송현아. (2010).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선임. (2018).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와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자기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1), 159-173.

신현규, 장재윤. (2003). 대학 4 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4), 815-827.

신혜진. (2016).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진로동기의 영향력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2), 349-373.

심희준, 이상희. (2016).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VISA) 에 따른 진로결정 프로파일 (CDP) 과 마음챙김 차이 연구. **인간발달연구, 23**(2), 63-83.

양은주. (2017).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미치는 영향: 학습몰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매개효과. **예술교육연구, 15**(4), 55-74.

양진희, 김봉환. (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2), 57-71.

오미진, 김봉환. (2021).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삶의 의미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29**(3), 180-203.

오보영, 이상희. (2013). 한국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자아존중감, 우울 및 대학적응의 차이: VISA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모형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6**(1), 47-67.

오충광. (2016).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와 학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일치모형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23**(1), 449-473.

오한솔, 이지혜. (2020). 고학년 대학생의 진로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매개효과와 생애목표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85-108.

유기은, 이기학. (2016).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 진로목표불일치와 자기격려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3), 407-429.

유기은. (2016). **사회비교경향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 진로목표불일치와 자기격려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순규, 김은주. (2016).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K-CESA 핵심역량,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29**(2), 1-26.

유혜승. (2016). 한국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분석: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진로장벽의 차이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7**(2), 183-309.

유혜승. (2016). 한국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분석: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진로장벽의 차이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2), 283-309.

윤경신. (2019).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리더-멤버 교환관계 (LMX) 와 업무부하의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경화(2015). **조리외식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가 인지된 적합성, 전공만족도,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멘토링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경화, 황정희. (2018). 조리외식전공 대학생이 인지하는 전공적합성이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21**(6), 223-248.

윤성원. (2017).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확증편향, 취업불안의 구조적 관계.**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정안, 서지윤. (2013). 대학생의 일희망과 진로동기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1), 55-81.

윤정욱, 양통일, 양현석. (2021). 태권도학과 재학생의 진로동기와 진로포부의 구조적 관계 연구.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2**, 47-68.

이덕현, 김수지, 염동식, 장원섭. (2014). 다양한 경력구성 사례를 통한 새로운 일의 교육적 의미탐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7**(2), 119-151.

이미균, 한향숙. (2020).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전공몰입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9*(6), 45-60.

이보라. (2019). 한국판 일유인가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1), 283-302.

이보라, 정지희, 이정림. (2014). 한국어판 진로정체감 지위 측정도구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K)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5**(3), 1163-1181.

이상희, 심희준. (2014). 진로정체감 유예지위에대한 고찰: 적응적 유예와 비적응적 유예의

비교. **청소년상담연구, 22**(1), 71-91.

이상희, 오보영. (2013). 4 개 차원에 따른 진로정체감 단계(status)와 진로태도성숙 및 직업정체감 연구: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연구, 26**(2), 21-42.

이상희, 오보영. (2014).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4 단계와 6 단계의 비교: 탐색유예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459-478.

이숙정, 유지현. (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2**(3), 589-607.

이승윤, 유성재, 박성주, 도보람. (2012). R&D 인력의 전문적 정체성과 직무 만족도: 과업 전문화와 과업기대 부응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19**(6), 1-22.

이영숙. (2002).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직업흥미 일관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비, 임소정, 표소휘, 김영재, 양은주. (2020).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타협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2), 1-17.

이정언. (2019). 갈등의 경험이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6), 325-333.

이정애, 황재규. (2012). 대학생의 흥미-학과 일치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와 학과적응 간의 관계. **인간이해, 33**(2), 107-121.

이정흔, 이명선. (2017). 실업팀 육상선수들의 진로불안이 운동몰입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0**, 371-381.

이준범. (2015. 1. 3). **졸업 유예 대학생 만 5천 여명..늦어지는 사회 진출.** MBC뉴스투데이. https://news.v.daum.net/v/20150103075707945

이지원, 이기학. (2017).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205-228.

이지원. (2011). **학습자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동기 요인, 심리적 중재 요인, 사회적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지혜. (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자기결정성,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 133-154.

이필남. (2016). 대학생의 졸업 소요기간 분석: 개인, 대학, 노동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4**(5), 223-247.

이현주. (2008). 대학생의 성별 및 사회불안 수준에 따른 진로개방성, 진로탐색활동, 진로정체감의 차이. **교육학연구, 46**, 79-99.

임선아, 강성은. (2013). 성취동기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7**(3), 575-593.

임은미, 송미숙, 이수진. (2011).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전공전환 준비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4**(4), 1-20.

전현진. (2017). 미용전공 대학생의 현장실습 만족도가 전문직 정체성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3**(6), 1205-1217.

정민아, 김희성, 김은혜. (2017). 사회복지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5**, 347-372.

정은교. (2021).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지후, 이상희. (2014). 진로정체감 6 개 단계에 따른 정체감 스타일, 진로신념, 우연기술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7**(1), 151-170.

조규판, 장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지연행동 수준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5**(2), 1-20.

조규판. (2008). 취업불안척도의 개발 및 타당도 연구. **교육학연구, 46**(2), 53-75.

조규형, 임정훈, 송수종, 정철영, 김진모. (2016). 서울지역 대학생의 자발적 졸업연기에 대한 질적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8**(2), 105-128.

조성연, 민경석. (2011). 성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차이 및 관계. **진로교육연구, 24**(3), 59-76.

조유희. (2016). **일반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자율성 지지와 자기결정성 동기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윤형, 정진철, 문명. (2013). 개인-학교, 개인-전공 적합성과 취업가능성,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멘토링의 조절효과. **대한경영학회지, 26**(3), 749-780.

조윤형, 정진철, 문명. (2013). 개인-학교, 개인-전공 적합성과 취업가능성,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멘토링의 조절효과. **대한경영학회지, 26**(3), 749-780.

조은주. (2001).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의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정희, 조옥희. (2021). 간호대학생의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9**(9), 435-444.

조한익, 김영숙. (2016).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와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구조관계. **교육심리연구, 30**(4), 783-810.

주명진, 김정남. (2011). 대학생의 불안과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27**, 157-174.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 대학생의 긍정적 정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8**(3), 65-83.

진미석, 정혜령, 이수영. (2010). 국내 4 년제 대학의 진로개발지원 현황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23**(1), 135-152.

차명진, 제석봉. (2009). 노인생활시설 사회복지사들의 직무 및 조직특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29**(2), 669-682.

채현순, 장유진. (2016).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3**(4), 167-192.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동주, 이묘숙. (2019). 외식조리전공 대학생이 인지하는 개인-전공적합성이 사회적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외식경영연구, 22**(6), 69-91.

표소휘, 양은주. (2020). 한국판 학생 진로구성척도 (Korean Student Career Construction Inventory) 의 타당화 연구: 초기 성인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2), 145-164.

하재영. (2019). **대학생의 진로탐색의도와 성격, 부모진로지지 및 사회인지요인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개발원. (2019). **2021 대학통계 16-5. 연령별 신입생수.**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21&menuSeq=3894&publSeq=2&menuCd=90156&itemCode=02&menuId=2_16_7&language=en

한국교육개발원. (2020). **2021 유초중등통계 16-5. 연령별 신입생수.**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21&menuSeq=3894&publSeq=2&menuCd=9

0156&itemCode=02&menuId=2_16_7&language=en

한국교육개발원. (2021). **2021 대학통계 16-1. 대학 개황.**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21&menuSeq=3894&publSeq=2&menuCd=90150&itemCode=02&menuId=2_16_1&language=en

한미옥, 조규판. (2021).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취업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95-104.

한주옥. (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경민, 이기학. (2017). 대학생의 개인정체화와 사회정체화가 진로정체감 성취수준을 매개로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0**(2), 17-40.

홍미영, 김정매. (2021). 관광전공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적합성의 매개효과. **관광진흥연구, 9**(3), 255-274.

홍민주, 전민경, 권수혜, 최금희. (2021). 보건의료 전공 대학생의 사이버시민성, 전문직간 핵심역량 인식, 전문직 정체성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877-896.

황매향. (2011). 직업적응이론의 한국 구직자에 대한 적용가능성 탐색. **진로교육연구, 24**(3), 1-19.

황정희, 이병철. (2019).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인지된 적합성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경기지역 2 년제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8**(3), 399-417.

Abraham, K. G. (1986). Ego-identity differences among Anglo-American and Mexican-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9*(2), 151-166.

Adams, G. R., Berzonsky, M. D., & Keating, L. (2006). Psychosocial resources in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The role of identity processes and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1), 78-88.

Adams, G. R., Shea, J., & Fitch, S. A. (1979).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objective assessment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2), 223-237.

Aflaki, K., Vigod, S., & Ray, J. G. (2022). Part II: A Step-by-Step Guide to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148*, 170-173.

Al-Owidha, A., Green, K. E., & Kroger, J. (2009). On the question of an identity status category order: Rasch model step and scale statistics used to identify category 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1), 88-96.

Amoura, C., Berjot, S., Gillet, N., & Altintas, E. (2014). Desire for control, perception of control: Their impact on autonomous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Motivation and Emotion, 38*(3), 323-335.

Ariani, D. W. (2017). Self-Determined Motivation, Achievement Goals and Anxiety of Economic and Business Students in Indonesia.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12*(23), 1154-1166.

Arora, R., & Rangnekar, S. (2016). Linking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career commitment dimensions: A study of the Indian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35*(9), 1134-1148.

Ashforth, B. E., & Schinoff, B. S. (2016). Identity under construction: How individuals come to define themselves in organizations.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3*(1), 111-137.

Baay, P. E., van Aken, M. A., van der Lippe, T., & de Ridder, D. T. (2014). Personality moderates the links of social identity with work motivation and job searching. *Frontiers in Psychology, 5*, 1044.

Balistreri, E., Busch-Rossnagel, N. A., & Geisinger, K. F. (1995).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Ego Identity Process Questionnaire. *Journal of adolescence, 18*(2), 179-192.

Barlow, D. H. (2000). Unraveling the mysteries of anxiety and its disorders from the perspective of emotion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5*(11), 1247.

Bartley, D. F., & Robitschek, C. (2000). Career exploration: A multivariate analysis of predic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1), 63-81.

Barrett, P. (2007).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djudging model fi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5), 815-824.

Batool, S. S., & Ghayas, S. (2020). Process of career identity formation among adolescents: components and factors. *Heliyon, 6*(9), e04905.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200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Basic books.

Bentler, P. M., and Chou, C. P.(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6*(1), 78-117.

Berzonsky, M. D. (1989). Identity styl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4*(3), 268-282.

Berzonsky, M. D. (2003). The structure of identity: Commentary on Jane Kroger's view of identity status transition.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3*(3), 231-245.

Berzonsky, M. D., & Kuk, L. S. (2000). Identity status, identity processing style, and the transition to universit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1), 81-98.

Berzonsky, M. D., & Neimeyer, G. J. (1994). Ego identity status and identity processing orientation: The moderating role of commit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4), 425-435.

Berzonsky, M. D., Soenens, B., Luyckx, K., Smits, I., Papini, D. R., & Goossens, L.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revised Identity Style Inventory (ISI-5):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Psychological assessment, 25*(3), 893.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Blau, G. J. (1988). Further exploring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3), 284-297.

Blustein, D. L. (1994). "Who am I?": The question of self and identity in career development. In M. L. Savikas & R. W. Lent (Eds.), *Convergence in career development theories: Implications for science and practice* (pp. 139-154).

CPP Books.

Blustein, D. L. (2013). The psychology of working: A new perspective for a new era. *The Oxford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working,* 3-18.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196-202. doi:10.1037/0022-0167.36.2.196.

Bohndick, C., Rosman, T., Kohlmeyer, S., & Buhl, H. M. (2018). The interplay between subjective abilities and subjective demands and its relationship with academic success. An application of the person?environment fit theory. *Higher Education, 75*(5), 839-854.

Boo, S., Wang, C., & Kim, M. (2021). Career adaptability, future time perspective, and career anxie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A cross-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Hospitality, Leisure, Sport & Tourism Education, 29*, 100328.

Borghuis, J., Bleidorn, W., Sijtsma, K., Branje, S., Meeus, W. H., & Denissen, J. J. (2020).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trait neuroticism and negative daily experiences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8*(2), 348.

Borghuis, J., Denissen, J. J., Oberski, D., Sijtsma, K., Meeus, W. H., Branje, S., ... & Bleidorn, W. (2017). Big Five personality stability, change, and codevelopment across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4), 641.

Bosma, H. A. (1985).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Coping with commitments [Doctoral dissertation, Rijksuniversiteit Te Groningen].

Bosma, H. A. (1992). Identity in adolescence: Managing commitments. In G. R. Adams, T. P. Gullotta, & R. Montemayor (Eds.),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pp. 91-121). Sage.

Bosma, H. A., & Kunnen, E. S. (2001). Determinants and mechanisms in ego identity development: A review and synthesis. *Developmental review, 21*(1),

39-66.

Bosma, H. A., & Kunnen, E. S. (2001). Determinants and mechanisms in ego identity development: A review and synthesis. *Developmental review, 21*(1), 39-66.

Bowen, N. K., Lee, J. S., & Weller, B. E. (2007). Social environmental risk and protection: A typology with implications for practice in elementary schools. *Children & Schools, 29*(4), 229-242.

Bowling, N. A., Eschleman, K. J., & Wang, Q. (2010). A meta-analytic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3*(4), 915-934.

Bradford, K., Vaughn, L. B., & Barber, B. K. (2008). When there is conflict: Interparental conflict, parent-child conflict, and youth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Family Issues, 29*(6), 780-805.

Brewer, M. B. (1991).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5), 475-482.

Brown, D., & D. Brown & L. Brooks and Associates. (1996). A holistic, values-based model of life role decision making and satisfaction. In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Jossey-Bass.

Brown, S. D., & Hirschi, A. (2013). Personality, career development, and occupational attainment.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99-328.

Burke, P. J. (1991). Identity processes and social st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36-849.

Burke, Peter J., Stets, Jan E. (2009). *Identity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Cable, D. M., & DeRue, D. S. (2002). Th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subjective fit percep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5), 875.

Cable, D. M., & Judge, T. A. (1997). Interviewers' perceptions of person?organization fit and organizational selection decis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4), 546.

Campbell, J. P., & Pritchard, R. D. (1976). Motivation theory in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3*, 130.

Carter, M. J., & Mangum, H. (2020). Role identities: Measurement and outcomes of conventional vs. idiosyncratic balance. *Current Psychology*, 1-12.

Chaves, A. P., Diemer, M. A., Blustein, D. L., Gallagher, L. A., DeVoy, J. E., Casares, M. T., & Perry, J. C. (2004). Conceptions of work: the view from urban you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3), 275.

Ch□vez, R. (2016). Psychosocial development factor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an d vocational identity between infancy and adolescence. *Adolescent Research Review, 1*(4), 307-327.

Cheek, J. M., & Briggs, S. R. (1982). Self-consciousness and aspects of ident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6*(4), 401-408.

Chen, F., Bollen, K. A., Paxton, P., Curran, P. J., & Kirby, J. B. (2001). Improper solution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Causes, consequences, and strateg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4), 468-508.

Chen, F., Curran, P. J., Bollen, K. A., Kirby, J., & Paxton, P. (2008).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use of fixed cutoff points in RMSEA test statistic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6*(4), 462-494.

Chen, A., & Yao, X. (2015). Socialization tactics, fit perceptions,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4), 615-629.

Chen, Z., & Solberg, V. S. H. (2018). Pathways from caring and engaging adults to youth vocational identity: The mediational role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goal capacity. *Youth & Society, 50*(6), 780-800.

Clancy, S. M., & Dollinger, S. J. (1993). Identity, self, and personality: I. Identity statu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3), 227-245.

Collins, L. M.,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ley.

Côté, J. E. (1996).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identity formation: The culture-identity link and identity capital. *Journal of adolescence, 19*(5), 417-428.

Côté, J. E., & Levine, C. G. (2014). *Identity, formation, agency, and culture: A social psychological synthesis.* Psychology Press.

Covington, M. V. (2000). Intrinsic versus extrinsic motivation in schools: A reconcilia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22-25.

Cramer, P. (2000). Development of identity: Gender makes a differ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1), 42-72.

Creed, P. A., & Hennessy, D. A. (2016). Evaluation of a goal orientation model of vocational identit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4*(4), 345-359.

Crocetti, E., Rubini, M., Luyckx, K., & Meeus, W. (2008a). Identity formation in early and middle adolescents from various ethnic groups: from three dimensions to five status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8), 983-996. doi:10.1007/s10964-007-9222-2.

Crocetti, E., Avanzi, L., Hawk, S. T., Fraccaroli, F., & Meeus, W. (2014). Personal a nd social facets of job identity: A person-centered approach. *Journal of Busi ness and Psychology, 29*(2), 281-300.

Crocetti, E., Avanzi, L., Hawk, S.T., Fraccaroli, F., & Meeus, W. (2014). Personal and social facets of job identity: A person-centered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9*, 281-300.

Crocetti, E., Klimstra, T., Keijsers, L., Hale, W. W., & Meeus, W. (2009). Anxiety trajectories and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fiv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6), 839-849.

Crocetti, E., Palmonari, A., & Pojaghi, B. (2011). Work identity, wellbeing, and time perspective of typical and atypical young workers. In M. Cortini, G. Tanucci, & E. Morin (Eds.), *Boundaryless careers and occupational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pp. 181-190). Palgrave MacMillan.

Crocetti, E., Rubini, M., & Meeus, W. (2008b). Capturing the dynamics of identity

formation in various ethnic group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ree-dimensional model. *Journal of adolescence, 31*(2), 207-222.

Crocetti, E., Rubini, M., Luyckx, K., & Meeus, W. (2008c). Identity formation in early and middle adolescents from various ethnic groups: From three dimensions to five status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8), 983-996.

Crocetti, E., Schwartz, S. J., Fermani, A., & Meeus, W. (2010). The Utrecht-Management of Identity Commitments Scale (U-MICS): Italian validation and cross- national comparison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6*, 172-186.

Crocetti, E., Sica, L. S., Schwartz, S. J., Serafini, T., & Meeus, W. (2013). Identity styles, dimensions, statuses, and functions: Making connections among identity conceptualizations.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63*(1), 1-13.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Dawis, R. V. (2005). *The Minnesota Theory of Work Adjustment.*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3?23). John Wiley & Sons, Inc..

Deci, E. L., & Ryan, R. M. (1990).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p. 237-288).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Deci, E. L., & Ryan, R. M. (1994). Promoting self-determined educ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8*(1), 3-14.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Deci, E. L., & Ryan, R. M. (2008a). Facilitating optimal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ross life's domains.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49*(1), 14.

Deci, E. L., & Ryan, R. M. (2008b). Self-determination theory: A macrotheory of human motivation, development, and health.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49*(3), 182.

Deci, E. L., Koestner, R., & Ryan, R. M. (1999). A meta-analytic review of experiments examining the effects of extrinsic rewards on intrinsic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5*(6), 627.

Di Maggio, I., Ginevra, M. C., Nota, L., & Soresi, S.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assess future orientation and resilience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51*, 114-122.

Dietrich, J., Lichtwarck-Aschoff, A., & Kracke, B. (2013). Deciding on a college maj or: Commitment trajectories, career exploration, and academic well-being. Di skurs Kindheits-und Jugendforschung/Discourse. *Journal of Childhood and Ad olescence Research, 8*(3), 11-12.

Dorn, F. J. (1992). Occupational wellness: The integration of career identity and personal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2), 176-178.

Dorn, F. J. (1992). Occupational wellness: The integration of career identity and personal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2), 176-178.

Duffy, R. D., Autin, K. L., & Bott, E. M. (2015). Work volition and job satisfaction: Examining the role of work meaning and person-environment fi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3*(2), 126-140.

Duffy, R. D., Douglass, R. P., & Autin, K. L. (2015). Career adaptability and academic satisfaction Examining work volition and self efficacy as media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0*, 46-54.

Durr II, M. R., & Tracey, T. J. (2009). Relation of person-environment fit to career certain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2), 129-138.

Edwards, J. R. (1996). An examination of competing versions of the person-environment fit approach to str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9(2), 292-339.

Edwards, J. R., Caplan, R. D., & Van Harrison, R. (1998). Person-environment fit theory. *Theories of organizational stress, 28*(1), 67-94.

Ensign, P. C. (2001). The concept of fit in organizational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 Theory & Behavior, 4*(3/4), 287-306.

Erikson,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Norton.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 7).* WW Norton & company.

Etzel, J. M., & Nagy, G. (2016). Students' perceptions of person-environment fit: Do fit perceptions predict academic success beyond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2), 270-288.

Feather, N. T. (1992). Values, valences, expectations, and ac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48*(2), 109-124.

Feldman, K. A., Smart, J. C., & Ethington, C. A. (2004). What do college students have to lose? Exploring the outcomes of differences in person-environment fit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5*(5), 528-555.

Fernet, C., & Austin, S. (2014). Self-determination and job stress. In M. Gagn (Ed.), *The Oxford handbook of work engagement,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pp. 231-244). Oxford University Press.

Flum, H. (1994). The evolutive style of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4), 489-498.

Fredricks, J. A., Blumenfeld, P. C., & Paris, A. H. (2004).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1), 59-109.

Fuller, J. B., Barnett, T., Hester, K., & Relyea, C. (2003).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3*(6), 789-791.

Fuqua, D. R., Newman, J. L., & Seaworth, T. B. (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2), 154.

Fusco, L., Sica, L. S., Boiano, A., Esposito, S., & Aleni Sestito, L. (2019). Future orientation, resilience and vocational identity in southern Italia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9*(1), 63-83.

Gagn□, M., & Deci, E. L. (2005).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work motiv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4), 331-362.

Gagn□, M., Forest, J., Gilbert, M. H., Aub□, C., Morin, E., & Malorni, A. (2010). The motivation at work scale: Validation evidence in two languag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70*(4), 628-646.

Gagn□, M., Forest, J., Vansteenkiste, M., Crevier-Braud, L., Van den Broeck, A., Aspeli, A. K., , Bellerose, J., Benabou, C., Chemolli, E., G□ntert, S. T., Halvari, H., Indiyastuti, D. L., Johnson, P. A., Molstad, M. H., Naudin, M., Ndao, A., Olafsen, A. H., Roussel, P., Wang, Z. & Westbye, C. (2015). The Multidimensional Work Motivation Scale: Validation evidence in seven languages and nine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4*(2), 178-196.

Gati, I., & Asher, I. (2001). Prescreening, in-depth exploration, and choice: From decision theory to career counseling pract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0*(2), 140-157.

Gati, I., & Asher, I. (2005). The PIC Model for Career Decision Making: Prescreening, In-Depth Exploration, and Choice. In *Contemporary Models in Vocational Psychology* (pp. 15-62). Routledge.

Germeijs, V., & Verschueren, K. (2006).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udy choice task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 449-471.

Germeijs, V., Verschueren, K., & Soenens, B. (2006). Indecisiveness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Longitudinal associations and the mediational role of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397.

Gilbreath, B., Kim, T. Y., & Nichols, B. (2011). Person-environment fit and its effects on university students: A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study.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2*(1), 47-62.

Gonul, B., & W□ngqvist, M. (2022). 'I Felt Like Being Upgraded' : Emerging Adults' Experiences of Socioeconomic Resources in Relation to Their Vocational Identity Development in Turkey. *Emerging Adulthood, 10*(1), 173-187.

Goossens, L. (1995). Identity status development and students' perception of the university environment: A cohort-sequential study. In *The self in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ulture: Development and processes* (pp. 19-32). Springer.

Green, Z. A.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well-being between generalized self-efficacy and vocational ident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20*(2), 215-241.

Grotevant, H. D., & Adams, G. R. (1984). Development of an objective measure to assess ego identity in adolescence: Validation and replic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5), 419-438.

Guan, Y., Deng, H., Fan, L., & Zhou, X. (2021). Theorizing person-environment fit in a changing career world: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6*, 103557.

Guay, F. (2005). Motivations underlying career decision-making activities: Th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 (CDMA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77-97.

Guay, F., Sen□cal, C., Gauthier, L., & Fernet, C.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165.

Gupta, A., Chong, S., & Leong, F. T. (20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vocational identity measur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1), 79-90.

Hagenaars, J. A., McCutcheon, A. L. (2002).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gerty, B. M., Lynch-Sauer, J., Patusky, K. L., & Bouwsema, M. (1993). An emerging theory of human relatedness. *Image: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5*(4), 291-296.

Haibo, Y., Xiaoyu, G., Xiaoming, Z., & Zhijin, H. (2018). Career adaptability with or without career identity: How career adaptability leads to organizational success and individual career succ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6*(4), 717-731.

Hammond, M. S., Lockman, J. D., & Boling, T. (2010). A test of the tripartite model of career indecision of Brown and Krane for African Americans incorporat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positive affec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2), 161-176.

Hardin, E. E., Varghese, F. P., Tran, U. V., & Carlson, A. Z. (2006). Anxiety and career exploration: Gender differences in the role of self-construa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2), 346-358.

Hargrove, B. K., Creagh, M. G., & Burgess, B. L. (2002).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s predictors of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2), 185-201.

Hatcher, L., Kryter, K., Prus, J. S., & Fitzgerald, V. (1992). Predicting college student satisfaction, commitment, and attrition from investment model construc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16), 1273-1296.

Hayduk, L. A., & Littvay, L. (2012). Should researchers use single indicators, best indicators, or multiple indicator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12*(1), 1-17.

Heider, F., & Weiner, B. (2002). Attribution theory, In *The Motivation Handbook* pp.(31-36). Cromwell Press.

Heinemann, L., & Rauner, F. (2008). *Identität und engagement: Konstruktion eines instruments zur beschreibung der Entwicklung beruflichen engagements und beruflicher Identität.* FG Berufsbildungsforschung (IBB).

Heinrich, C. J., & Holzer, H. J. (2011). Improving education and employment for disadvantaged young men: Proven and promising strategie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35*(1), 163-191.

Hill, K. G., White, H. R., Chung, I., Hawkins, J. D., & Catalano, R. F. (2000). Early adult outcomes of adolescent binge drinking: Person-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of binge drinking trajectories. *Alcoholism. Clinical & Experimental Research, 24*, 892-901.

Hirschi, A. (2011). Relation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es to interest structure among Swiss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8*(5), 390-407.

Hirschi, A. (2012a). Callings and work engagement: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work meaningfulness, occupational identity, and occupational self-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3), 479.

Hirschi, A. (2012b). Vocational Identity Trajectories: Differences i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of Well-Being.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6*(1), 2-12.

Hirschi, A., & Herrmann, A. (2012). Vocational identity achievement as a mediator of presence of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3), 309-321.

Hirschi, A., & L□ge, D. (2007). The relation of secondary students' career-choice r eadiness to a six-phase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4*(2), 164-191.

Hjemdal, O., Friborg, O., Stiles, T. C., Rosenvinge, J. H., & Martinussen, M. (2006). Resilience predicting psychiatric symptoms: A prospective study of protective factors and their role in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 Practice, 13*(3), 194-201.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Prentice-Hall.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G. (1980a). *My vocational situation.*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Holland, J. L.,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b).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91-1200.

Holland, J. L., Johnston, J. A., & Asama, N. F. (1993). The Vocational Identity Scale: A diagnostic and treatment too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1-12.

Howard, J. L., Bureau, J., Guay, F., Chong, J. X., & Ryan, R. M. (2021). Student motivation and associated outcomes: A meta-analysis from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6*(6), 1300-1323.

Jackson, C. C., & Neville, H. A. (1998). Influence of racial identity attitudes on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vocational identity and hop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3*(1), 97-113.

Jensen, D. H., & Jetten, J. (2015). Bridging and bonding interactions in higher education: social capital and students' academic and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6*, 126.

Jiang, Z., Newman, A., Le, H., Presbitero, A., & Zheng, C. (2019). Career exploration A review and future research agend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0*, 338-356.

Jo, H., Ra, Y. A., Lee, J., & Kim, W. H. (2016). Impact of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vocational identit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4*(4), 333-344.

Joanes, D. N., & Gill, C. A. (1998). Comparing measures of sample skewness and kurtosi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D, 47*(1), 183-189.

Johnson, J. A. (1987). Influence of adolescent social crowds on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1*(2), 182-199.

Johnson, P., Buboltz, W. C., & Nichols, C. N. (1999). Parental divorce, family

functioning, and vocational ident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6*(2), 137-146.

Johnson, P., Schamuhn, T. D., Nelson, D. B., & Buboltz Jr, W. C. (2014). Differentiat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Effects on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1), 70-80.

Jordaan, J. P. (1963). Exploratory behavior: The formation of self and occupational concepts.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42-78.

Jordan, K. (2018). *Factor Structure of Career Adaptability and Vocational Identity Development and Relationship to Vocational Interests* [Doctoral Dissertion, University of Minnesota].

Josselson, R. E. (1996). *Revising herself: The story of women's identity from colleg e to midlife.* Oxford University Press.

Jowdy, D. P. (1994). *The influence of family structure, separation from parents, and ego identity formation, on career identity development and career exploration*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Judge, T. A., Bono, J. E., Erez, A., & Locke, E. A. (2005). Core self-evaluations and job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self-concordance and goal attain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2), 257.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Kang, C. K., & Seog, C. H. (2021). Exploring the Three-Dimensional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Major Fit Based on the SAFE model.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APJCRI), 7*(12), 159-171.

Kaplan, A., & Garner, J. K. (2017). A complex dynamic systems perspective on identity and its development: The dynamic systems model of role identity. *Developmental psychology, 53*(11), 2036.

Keijzer, R., Admiraal, W., Van der Rijst, R., & Van Schooten, E. (2020). Vocational i dentity of at-risk emerging adults and its relationship with individual charact

eristic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20*(2), 375-410.

Keijzer, R., Admiraal, W., Van der Rijst, R., & Van Schooten, E. (2020). Vocational i dentity of at-risk emerging adults and its relationship with individual charact eristic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20*(2), 375-410.

Kenny, D. A., Kaniskan, B., & McCoach, D. B. (2015). The performance of RMSEA in models with small degrees of freedom.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4*(3), 486-507.

Kim, J. A., & Cho, E. Y.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of Career and Job-seeking Stress to College Students. *Information, 19*(5), 1633.

Kimes, H. G., & Troth, W. A. (1974). Relationship of trait anxiety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4), 277.

Kline,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ition ed.). The Guilford Press.

Knapp, J. R., Masterson, S. S., & Kedharnath, U. (2020). Where and how does fitting in matter? Examining new students' perceived fit with their university, instructors, and classmat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22*(1), 49-70.

Koestner, R., Otis, N., Powers, T. A., Pelletier, L., & Gagnon, H. (2008). Autonomous motivation, controlled motivation, and goal progress. *Journal of personality, 76*(5), 1201-1230.

Kristof, A. L. (1996). Person?organization fit: An integrative review of its conceptualizations,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Personnel psychology, 49*(1), 1-49.

Kristof-Brown, A. L., Zimmerman, R. D., & Johnson, E. C. (2005). Consequences OF Individuals' fit at work: A meta-analysis of person-job, person-organization, person-group, and person-supervisor fit. *Personnel psychology, 58*(2), 281-342.

Kroger, J. (1993). The role of historical context i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late adolescence. *Youth & Society, 24*(4), 363-376.

Kroger, J. (1997). Gender and identity: The intersection of structure, content, and context. *Sex roles, 36*(11), 747-770.

Kroger, J. (2007). Why is identity achievement so elusive?.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ASEARCH, 7*(4), 331-348.

Kroger, J., & Green, K. E. (1996). Events associated with identity status change. *Journal of adolescence, 19*(5), 477-490.

Kroger, J., & Haslett, S. J. (1991). A comparison of ego identity status transition pathways and change rates across five identity domain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2*(4), 303-330.

Kroger, J., Martinussen, M., & Marcia, J. E. (2010). Identity status change during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A meta-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33*(5), 683-698.

Kroger, J., Martinussen, M., & Marcia, J. E. (2010). Identity status change during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A meta-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33*(5), 683-698.

Krumboltz, J. D. (1992). The wisdom of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239-244.

Krumboltz, J. D., & Worthington, R. L. (1999). The school-to-work transition from a learning theory perspectiv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7*(4), 312-325.

Kuha, J., & Goldthorpe, J. H. (2010). Path analysis for discrete variables: the role of education in social mobilit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Statistics in Society), 173*(2), 351-369.

Kuha, J., Bukodi, E., & Goldthorpe, J. H. (2021). Mediation analysis for associations of categorical variables: The role of education in social class mobility in Britain. *The Annals of Applied Statistics, 15*(4), 2061-2082.

Laman, M. S. (1987). *Autonomy and relatedness in young adult/parent relationships and young adult career identity status* [Doctoral dissertation,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Latham, G. P., & Pinder, C. C. (2005). Work motivation theory and research at the dawn of the twenty-first centu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485-516.

Le, H., Robbins, S. B., & Westrick, P. (2014). Predicting student enrollment and persistence in college STEM fields using an expanded PE fit framework: A large-scale multilevel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9*(5), 915.

Lee, Y., Kim, Y., Im, S., Lee, E., & Yang, E. (2020).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vocational identity process and career goal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0894845320955237.

Legault, L., Green-Demers, I., & Pelletier, L. (2006). Why do high school students lack motivation in the classroom? Toward an understanding of academic amotivation and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3), 567.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

Lent, R. W., Brown, S. D., Brenner, B., Chopra, S. B., Davis, T., Talleyrand, R., & Suthakaran, V.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74.

Leong, F. T., & Morris, J. (1989). Assess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Holland, Daiger, and Power's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22*(3), 117-125.

Levett-Jones, T., & Lathlean, J. (2008). Belongingness: A prerequisite for nursing students' clinical learning. *Nurse education in practice, 8*(2), 103-111.

Li, X., Hou, Z. J., & Jia, Y. (2015). The influence of social comparison on career

decision-making: Vocational identity as a moderator and regret as a mediat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6*, 10-19.

Lian, L., Guo, S., Wang, Q., Hu, L., Yang, X., & Li, X. (2021). Calling, character strengths, career identity, and job burnout in young Chinese university teachers: A chain-mediating model.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20*, 105776.

Lillevoll, K. R., Kroger, J., & Martinussen, M. (2013). Identity status and anxiety: A meta-analysis. *Identity, 13*(3), 214-227.

Lo, Y., Mendell, N., & Rubin, D.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 767-778.

Locke, E. A., & Latham, G. P. (1990). Work motivation and satisfaction: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Psychological science, 1*(4), 240-246.

London, M. (1983).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4), 620-630.

Lopez, F. G. (1989). Current family dynamics, trait anxiety, and academic adjustment: Test of a family-based model of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1), 76-87.

Lounsbury, J. W., Huffstetler, B. C., Leong, F. T., & Gibson, L. W. (2005). Sense of identity and collegiate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5), 501-514.

Lounsbury, J. W., Tatum, H. E., Chambers, W., Owens, K. S., & Gibson, L. W. (1999). An Investigation Of Career Decidedness In Relation ToBig Five'Personality Constructs And Life Satisfaction. *College Student Journal, 33*(4).

LOZANO-GUTI□RREZ, J. L., PACHECO-AMIGO, B. M., SOL□S-REC□NDEZ, E. P., & RODR□GUEZ-GARC□A, F. J. (2021). Vocational Decision Making and Anxiety during the Coronavirus 19 Pandemic. *Journal of University Policies*, 5-14.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 Soenens, B. (2006a). Brief report: the ego identity process questionnaire: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convergent

validity in Dutch-speaking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9*(1), 153-159.

Luyckx, K., Goossens, L., Soenens, B., & Beyers, W. (2006b). Unpacking commitment and exploration: Preliminary validation of an integrative model of late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9*(3), 361-378.

Luyckx, K., Lens, W., Smits, I., & Goossens, L. (2010). Time perspective and identity formation: Short-term longitudinal dynamics i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4*(3), 238-247.

Luyckx, K., Schwartz, S. J., Berzonsky, M. D., Soenens, B., Vansteenkiste, M., Smits, I., & Goossens, L. (2008). Capturing ruminative exploration: Extending the four-dimensional model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58-82.

Luyckx, K., Schwartz, S. J., Goossens, L., Beyers, W., & Missotten, L. (2011). *Processes of personal identity formation and evaluation.* In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77-98). Springer.

Macht Jantzer, A., Stalides, D. J., & Rottinghaus, P. J. (2009). An exploration of social cognitive mechanisms, gender, and vocational identity among eighth grader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6*(2), 114-138.

Magidson, J., & Vermunt, J.K. (2001). Latent class factor and cluster models, bi-plots and related graphical displays. *Sociological Methodology, 31*, 223-264.

Mahmud, M. S., Talukder, M. U., & Rahman, S. M. (2021). Does 'Fear of COVID-19' trigger future career anxiety? An empirical investigation considering depression from COVID-19 as a mediato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7*(1), 35-45.

Mancini, T., Caricati, L., Panari, C., & Tonarelli, A. (2015). Personal and social aspects of professional identity.: An extension of Marcia's identity status model applied to 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9*, 140-150.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Adelson, J.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109-137). Wiley.

Marcia, J. E. (1993). The status of the statuses: Research review. In *Ego identity* (pp. 22-41). Springer.

Marcia, J. E. (2002). Identity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in adulthood.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2*(1), 7-28.

Marcia, J. E., Waterman, A. S., Matteson, D. R., Archer, S. L., & Orlofsky, J. L. (Eds.). (1993). *Ego identity: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 Springer Verlag.

Marini, M. M., Fan, P. L., Finley, E., & Beutel, A. M. (1996). Gender and job values. *Sociology of Education,* 49-65.

Masyn, K. E. (2013). 25 latent class analysis and finite mixture modeling. *The Oxfor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s, 2*, 551.

McArdle, S., Waters, L., Briscoe, J. P., & Hall, D. T. T. (2007). Employability during unemployment: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and human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2), 247-264.

McClelland, D. C. (1965). Toward a theory of motive acquisition. *American psychologist, 20*(5), 321.

Meeus, W. (1993). Occupational identity development, school performance,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ce: Findings of a Dutch study. *Adolescence, 28*(112), 809-819.

Meeus, W. (1996). Studies on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n overview of research and some new dat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5), 569-598.

Meeus, W., & Dekovic, M. (1995). Identity development, parental and peer support in adolescence: Results of a national Dutch survey. *Adolescence, 30*(120), 931-945.

Meeus, W., Iedema, J., Helsen, M., & Vollebergh, W. (1999). Patterns of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Review of literature and longitudin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9*(4), 419-461.

Meijers, F. (1998). The development of a career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for t 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0*(3), 191-207.

Meijers, F., Kuijpers, M., & Gundy, C.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ompetencies, career identity, motivation and quality of choice.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3*(1), 47-66.

Melgosa, J. (198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occupational identit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10*(4), 385-397.

Meyer, J., Leuze, K., & Strauss, S. (2022). Individual Achievement, Person-Major Fit, or Social Expectations: Why Do Students Switch Majors in German Higher Education?.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63*(2), 222-247.

Miller, A. D., & Rottinghaus, P. J. (2014). Career indecision, meaning in life, and anxiety: An existential frame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2*(2), 233-247.

Milsom, A., & Coughlin, J. (2017). Examining person-environment fit and academic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20*(3), 250-262.

Mor, S., Day, H. I., Flett, G. L., & Hewitt, P. L. (1995). Perfectionism, control, and components of performance anxiety in professional artis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2), 207-225.

Morales, P. C. (1993). *Acculturation and vocational identity: The influence of Hispanic families on vocational decis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MPLUS Discussion. (2005). Single indicator latent variables!. http://www.statmodel.com/discussion/messages/11/596.html?1572390676

MPLUS Discussion. (2010a). CFI/TLI > 1. http://www.statmodel.com/discussion/messages/8/5908.html?1587578179

MPLUS Discussion. (2010b). Model Fit Index WRMR.

http://www.statmodel.com/discussion/messages/9/5096.html?1321986275

Mullis, R. L., Graf, S. C., & Mullis, A. K. (2009). Parental relationships, autonomy, and identity processe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0*(4), 326-338.

Musch, E. (2013). *The impact of perfectionism type on the career self-efficacy, vocational identity, and interest differentiation of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Muth□n, B. (1983).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categorical data. *Journal of Econometrics, 22*(1-2), 43-65.

Muth□n, L. K., & Muth□n, B. O. (2010). Mplus user' s guide. 7th. Los Angeles, CA: Muth□n & Muth□n, 19982006.

Nagin, D. S., & Nagin, D.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Negru-Subtirica, O., Pop, E. I., & Crocetti, E. (2015).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reciprocal associations between career adaptability and vocational identity: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with adolesc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8*, 131-142.

Newman, J. L., Fuqua, D. R., & Seaworth, T. B. (1989). The role of anxiety in career indecision: Implication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Ngoma, M., & Dithan Ntale, P. (2016). Psychological capital, career identity and graduate employability in Uganda: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20*(2), 124-139.

Nguyen, T. Q., Webb-Vargas, Y., Koning, I. M., & Stuart, E. A. (2016). Causal mediation analysis with a binary outcome and multiple continuous or ordinal mediators: Simulations and application to an alcohol interven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3*(3), 368-383.

Nicolson, C. E., & Bess, J. L. (1997). *Stress and Anxiety in Adult Learners in Professional and Liberal Arts Schools: An Exploration of*

Person-Environment Fit Theory. ASHE Annual Meeting Paper.

Nooner, K. B., Litrownik, A. J., Thompson, R., Margolis, B., English, D. J., Knight, E. D., & Roesch, S. (2010). Youth self-report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A latent class analysis. *Child Abuse & Neglect, 34*(3), 146-154.

Nurmi, J. E. (1991). How do adolescents see their future? A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future orientation and planning. *Developmental review, 11*(1), 1-59.

Nye, C. D., Leong, F., Prasad, J., Gardner, D., & Tien, H. L. S. (2018). Examining the structure of the career adapt-abilities scale: The cooperation dimension and a five-factor mode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6*(3), 549-562.

Nylund-Gibson, K., & Choi, A. Y. (2018). T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latent class analysis.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4*(4), 440.

Nylund-Gibson, K., & Masyn, K. E. (2016). Covariates and mixture modeling: Results of a simulation study exploring the impact of misspecified effects on class enumer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3*(6), 782-797.

O'Donnell, M. L., Schaefer, I., Varker, T., Kartal, D., Forbes, D., Bryant, R. A., ... & Steel, Z. (2017). A systematic review of person-centered approaches to investigating patterns of trauma expos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57*, 208-225.

Orri, M., Galera, C., Turecki, G., Boivin, M., Tremblay, R. E., Geoffroy, M. C., & C□t□, S. M. (2019). Pathways of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irritability and adolescent suicidal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8*(1), 99-107.

Ostoff, C.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ttitudes and performance: an organizational level 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6), 963-974.

Owen, R. G. (1984). *Ego Identity Status Distributions Of Anglo And*

Cuban-american College Males And Tests Of Status-by-culture Interaction On Measures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Paixao, O., & Gamboa, V. (2021). Autonomous Versus Controlled Motivation on Career Indecisi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14.

Park, H. I., Beehr, T. A., Han, K., & Grebner, S. I. (2012). Demands-abilities fit and psychological strain: Moderating effects of person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9*(1), 1-33.

Pawlowska, D. K., Westerman, J. W., Bergman, S. M., & Huelsman, T. J. (2014). Student personality, classroom environment, and student outcomes: A person-environment fit analysi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180-193.

Petraitis, P. S., Dunham, A. E., & Niewiarowski, P. H. (1996). Inferring multiple causality: the limitations of path analysis. *Functional ecology*, 421-431.

Pisarik, C. T., Rowell, P. C., & Thompson, L. K. (2017). A phenomenological study of career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5*(4), 339-352.

Porfeli, E. J. (2009). *A five-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for adolescents.* In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Porfeli, E. J., & Lee, B. (2012). Career development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2012(134)*, 11-22.

Porfeli, E. J., & Savickas, M. L.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US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 to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748-753.

Porfeli, E. J., & Skorikov, V. B. (2010). Specific and diversive career exploration du 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1), 46-58.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7). Development of Work Values. In *Career*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105-126). Brill Sense.

Porfeli, E. J., Lee, B., & Vondracek, F. W. (2013). Identity Development and Careers in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Content, Process, and Structure. In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pp. 149-170). Routledge.

Porfeli, E. J., Lee, B., Vondracek, F. W., & Weigold, I. K. (2011).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34*(5), 853-871.

Praskova, A., Creed, P. A., & Hood, M. (2015). Career identity and the complex mediating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preparatory actions and career progress marke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7*, 145-153.

Qodariah, L., & Pebriani, L. V. (2017). *The Relationship of Identity Status to Peer Relation during Adolescence.* In Official Conference Proceedings on The Asian Conference on Psychology & the Behavioral Sciences.

Raggi, M., Stanghellini, E., & Doretti, M. (2021). Path Analysis for Binary Random Variabl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00491241211031260.

Reise, S. P., Waller, N. G., & Comrey, A. L. (2000). Factor analysis and scale revis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2*(3), 287.

Rhee, E., Lee, B. H., Kim, B., Ha, G., & Lee, S. M. (2016). The relationship among the six vocational identity statuses and five dimensions of planned happenstance career skill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3*(4), 368-378.

Rocconi, L. M., Liu, X., & Pike, G. R. (2020). The impact of person-environment fit on grades, perceived gains, and satisfaction: an application of Holland' s theory. *Higher Education, 80*(5), 857-874.

Rotheram-Borus, M. J. (1989). Ethnic differences in adolescents' identity status and associate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dolescence, 12*(4), 361-374.

Rudolph, C. W., Lavigne, K. N., & Zacher, H. (2017). Career adaptability: A meta-analysis of relationships with measures of adaptivity, adapting responses, and adaptation res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8*, 17-34.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Ryu, E. (2011). Effects of skewness and kurtosis on normal-theory based maximum likelihood test statistic in 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ehavior research methods, 43*(4), 1066-1074.

Saka, N., Gati, I.,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4), 403-424.

Salami, S. O. (2008). Gender, identity status and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in Southwest Nigeria. *Journal of Social Sciences, 16*(1), 35-49.

Sandrin, □., Gillet, N., Fernet, C., Leloup, M., & Depin-Rouault, C. (2019). Effects of motivation and workload on firefighters' perceived health, stress, and performance. *Stress and Health, 35*(4), 447-456.

Santisi, G., Magnano, P., Platania, S., & Ramaci, T. (2018). Psychological resources,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in the work transition: an outlook on Sicilian college students.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11*, 187.

Santos, P. J. (2003). Goal instability, self-esteem, and vocational identity of high school Portuguese students. *An□lise Psicol□gica, 21*(2), 229-238.

Saris, W. E., Satorra, A., & Van der Veld, W. M. (2009).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or detection of misspecific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6*(4), 561-582.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r, J. P., & Reardon, R. 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2), 288-298.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661-673.

Savickas, M. L., Nota, L., Rossier, J., Dauwalder, J. P., Duarte, M. E., Guichard, J., ... & Van Vianen, A. E. (2009). Life designing: A paradigm for career construc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39-250.

Sawitri, D. R., & Dewi, K. S. (2015). Academic fit,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and career exploration in university students. *Procedia Environmental Sciences, 23*, 105-109.

Schachter, E. P. (2005). Erikson meets the postmodern: Can classic identity theory rise to the challenge?. *Identity, 5*(2), 137-160.

Schultheiss, D. E. P. (2003). A relational approach to career counseling: Theoretical integr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1*(3), 301-310.

Schwartz, S. J. (2001). The evolution of Eriksonian and, neo-Eriksonian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A review and integration.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1*(1), 7-58.

Scott Rigby, C., Deci, E. L., Patrick, B. C., & Ryan, R. M. (1992). Beyond the intrinsic-extrinsic dichotomy: Self-determination in motivation and learning. *Motivation and emotion, 16*(3), 165-185.

Scott, A. B., & Ciani, K. D. (2008). Effects of an undergraduate career class on men's and women'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4*(3), 263-285.

Serling, D. A., & Betz, N. E. (1990).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measure of fear of commi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91-97.

Sheldon, K. M., & Houser-Marko, L. (2001). Self-concordance, goal attainment,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Can there be an upward spir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1), 152.

Shi, D., DiStefano, C., Maydeu-Olivares, A., & Lee, T. (2022). Evaluating SEM model fit with small degrees of freedom.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7*(2-3), 179-207.

Shin, Y. J., & Kelly, K. R. (2013). Cross-cultural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optimism, intrinsic motivation, and family relations on vocational identit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1*(2), 141-160.

Skorikov, V. B. (2007). Continuity in adolescent career preparation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 8-24.

Skorikov, V. B., & Vondracek, F. W. (2007). Vocational identity. In *Career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143-168). Brill

Skorikov, V. B., & Vondracek, F. W. (2011). Occupational identity. In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693-714). Springer.

Skorikov, V. B., & Vondracek, F. W. (2012). Occupational identity.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693-714). Springer.

Slaten, C. D. (2011). *Belongingn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A path analysis* [Da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Smart, J. C., Feldman, K. A., & Ethington, C. A. (2006). *Holland's theory and patterns of college student success. In Commissioned report for the national symposium on postsecondary student success.* NPEC.

Smitina, A. (2010). The link between vocational identity, study choice motivation and satisfaction with studie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 1140-1145.

Soenens, B., Berzonsky, M. D., Vansteenkiste, M., Beyers, W., & Goossens, L. (2005). Identity styles and causality orientations: In search of the motivational underpinnings of the identity exploration proces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9*(5), 427-442.

Solomontos-Kountouri, O., & Hurry, J. (2008). Political, religious and occupational identities in context: Placing identity status paradigm in context. *Journal of adolescence, 31*(2), 241-258.

Song, B., Kim, D. W., & Lee, K. H. (2016). Contextual influences on Korean college students' vocational identity development.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7(1), 175-184.

Spielberger, C. D. (1966). Theory and research on anxiety. In *Spielberger, C. D. (Ed.), Anxiety and behavior* (pp. 3-19). Academic Press.

Spielberger, C. D. (1983).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Adults (STAI-AD)* [Database record]. APA PsycTests. https://doi.org/10.1037/t06496-000

StataCorp, L. P. (2005). *Stata base reference manual: release 14.* College Station: StataCorp LLC.

Stephen, J., Fraser, E., & Marcia, J. E. (1992). Moratorium-achievement (Mama) cycles in lifespan identity development: Value orientations and reasoning system correlates. *Journal of adolescence, 15*(3), 283-300.

Stets, J. E., & Burke, P. J. (2014). Self-esteem and identities. *Sociological Perspectives, 57*(4), 40

Strauser, D. R., Lustig, D. C., & □ift□i, A. (2008). Psychological well-being: Its relation to work personality,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though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2*(1), 21-35.

Stringer, K. (2008). Career decision-making: implications for emerging adults' career identity development [Master Thesis, Auburn University].

Su, X., Wong, V., & To, S. M. (2021). Factor structure of the Chinese Career Adapt-Abilities Scale in youth with a longer spell of status of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Child & Youth Services, 42*(3), 250-267.

Super, D. E., Savickas, M. L., & Super, C. M. (1996). The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 121-178.

Sweitzer, V. (2009). Towards a theory of doctoral student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A developmental networks approach.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80*(1), 1-33.

Takil, N. B., & Sari, B. A. (2021). Trait anxiety vs career anxiety in relation to attentional control. *Current Psychology, 40*(5), 2366-2370.

Talib, M. A., & Aun, T. K. (2009).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among Malaysian undergraduate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8*(2), 215-224.

Tiede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Tosado II, L. A. (2012). *An exploratory study of a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for Spanish-speaking persons* [Doctoral Dissrtion, University of Maryland].

Tracey, T. J. (2002). Personal Globe Inventory: Measurement of the spherical model of interests and competence belief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1), 113-172.

Tracey, T. J., & Robbins, S. B. (2006). The interest-major congruence and college success relatio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1), 64-89.

Tremblay, M. A., Blanchard, C. M., Taylor, S., Pelletier, L. G., & Villeneuve, M. (2009). Work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 Scale: Its value for organizational psychology research.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 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41*(4), 213-226.

Tremblay, M. A., Blanchard, C. M., Taylor, S., Pelletier, L. G., & Villeneuve, M. (2010). "Work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 Scale: Its value for organizational psychology research": Correction to Tremblay et al (2009).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 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42*(1), 70.

Tsai, C. T., Hsu, H., & Hsu, Y. C. (2017). Tourism and hospitality college students' career anxiety: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Education, 29*(4), 158-165.

Van den Broeck, A., Howard, J. L., Van Vaerenbergh, Y., Leroy, H., & Gagn□, M. (2021). Beyond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A meta-analysis on self-determination theory's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work motivation. *Organizational Psychology Review, 11*(3), 240-273.

Van den Broeck, A., Vansteenkiste, M., & De Witte, H. (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overview in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Houdmont, J., & Leka, S. (Eds), In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European perspectives on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 (pp.

63-88). Nottingham University Press.

Van den Broeck, A., Lens, W., De Witte, H., & Van Coillie, H. (2013). Unraveling the importance of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of workers' motivation for well-being: A person-centered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2*(1), 69-78.

van Esbroeck, R., Tibos, K., & Zaman, M. (2005). A dynamic model of career choice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5*, 5-18.

Velki, T. (2011). The correlation considering the degree of autonomous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mental health. *Croatian Journal of Education, 13*(3), 56-87.

Vignoles, V. L., Regalia, C., Manzi, C., Golledge, J., & Scabini, E. (2006). Beyond self-esteem: Influence of multiple motives on identity constru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2), 308-333.

Vignoli, E. (2015).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exploration among older French adolescents: The specific role of general trait anxiety and future school and career anxie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9*, 182-191.

Vignoli, E., & Mallet, P. (2012). Les peurs des adolescents concernant leur avenir scolaire et professionnel: structure et variations selon le niveau scolaire, le sexe et la classe sociale. *Les cahiers internationaux de psychologie sociale, 2012/2*, 249-282.

Voight, L. (1999). Parental attachment and ego identity as antecedents of career identity [Doctoral Disser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Vondracek, F. W. (1992). The construct of identity and its use in career theory and research.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2), 130-144.

Waterman, A. S.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

Waterman, A. S. (199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identity formation: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In: J. E. Marcia, A. S. Waterman, D. R. Matteson, S. L. Archer, & J. L. Orlofsky (Eds.), *Ego identity: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 (pp. 42-68). Springer-Verlag.

Waterman, A. S. (2007). Doing well: the relationship of identity status to three conceptions of well-being.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7*(4), 289-307.

Waterman, A. S. (2015). What does it mean to engage in identity exploration and to hold identity commitments? A methodological critique of multidimensional measures for the study of identity processes. *Identity, 15*(4), 309-349.

Waterman, A. S., & Waterman, C. K. (1971). A longitudinal study of changes in ego identity status during the freshman year at college. *Developmental Psychology, 5*(1), 167.

Waterman, A. S., & Waterman, C. K. (1976). Factors related to vocational identity after extensive work experie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1*(3), 336.

Weller, B. E., Bowen, N. K., & Faubert, S. J. (2020). Latent class analysis: a guide to best practice. *Journal of Black Psychology, 46*(4), 287-311.

Wendling, E., & Sagas, M. (202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Identity Development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690727211063374.

Werts, C. E., & Linn, R. L. (1969). The path analysis of categorical data. *ETS Research Bulletin Series, 1969*(2), 1-15.

West, S. G., Taylor, A. B., & Wu, W. (2012). Model fit and model selection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andbook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 209-231.

Whitbourne, S. K., & Tesch, S. A. (1985). A comparison of identity and intimacy statuses in college students and alumni.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39.

Wickramasinghe, V.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related dimensions and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health*

organization and management, 30(3), 408-420.

Winship, C., & Mare, R. D. (1983). Structural equations and path analysis for discrete dat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1), 54-110.

Wu, M. S. R. (1994). *College women's career commitment in relation to their ego identity statu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Iowa].

Xiao, W., Zhou, L., Wu, Q., Zhang, Y., Miao, D., Zhang, J., & Peng, J. (2014). Effects of person-vocation fit and core self-evaluation on career commitment of medical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or roles of anxiety and career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systems, 8*(1), 1-6.

Xie, Y. (1989).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ordinal variables: an analysis of occupational destination.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7*(4), 325-352.

Xu, H., & Lee, J. C. K. (2019). Exploring the contextual influences on adolescent career identity formation: a qualitative study of Hong Kong secondary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6*(3), 219-234.

Yeager, D. S., Bundick, M. J., & Johnson, R. (2012). The role of future work goal motives in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A longitudinal mixed-methods investig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7*(3), 206-217.

Yeom, E. Y., & Seong, J. A. (2016). The influence of career identity, job-seeking stress, self control on test anxie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7*(2), 57-69.

Yoon, J., Je, N. J., & Park, M. (2021). Correlation between Self-determination, Major Suitability, and Lecture Immersion of College Students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Journal of Advanced Researches and Reports, 1*(3), 15-22.

Yorgason. J., (nd). **Troubleshooting problems with SEM models that have "Heywood" cases such as negative variance parameters and non-positive definite covariance matrices.** https://brightspotcdn.byu.edu/ba/fd/65505714418ebf6c0ad09f579b60/working-with-difficult-errors-in-sem.pptx

Yu, K. Y. T. (2009). Affective influences in person-environment fit theory: Exploring the role of affect as both cause and outcome of PE fi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4*(5), 1210-1226.

Yuen, M., & Yau, J. (2015). Relation of career adaptability to meaning in life and connectedness among adolescents in Hong Ko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1*, 147-156.

Zhang, J., Chen, G., & Yuen, M. (2019). Validation of the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 using Chinese technic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7*(4), 675-692.

〔부 록 1〕 문항개발 수정표(진로정체감)

구인	원 문항(영문) (Porfeli et al., 2011)	한국판 도구-원 문항 (이보라 외, 2014)	예비조사 문항 (1차 수정)	수정의견	예비조사 문항 (2차 수정)
전반적 진로탐색	Casually learning about careers that are unfamiliar to me in order to find a few to explore further.	조금더 탐색해볼만 한 진로가 있을까하여 내가 잘 모르는 진로에 대해서도 무심코 알아본다.	나는 조금 더 탐색해볼만 한 진로가 있을까 하여 잘 모르는 진로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탐색해볼만 한" 표현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수정 • "폭넓은" 등의 표현으로 수정 가능할 것 • 문장 구조를 변경	나는 조금 더 알아볼만한 다른 진로가 있을까 하여 내가 잘 모르는 진로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Trying to have many different experiences so that I can find several jobs that might suit me	삭제	-	-	-
	Thinking about how I could fit into many different careers.	여러 가지 진로 가운데 내가 어느 것에 잘 맞을지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여러 가지 진로 가운데 내가 어느 것에 잘 맞을지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 "가지" 라는 표현을 삭제 • "어느 것에" → "어떤 것이" • 현재형으로 수정	나는 여러 진로 가운데 어떤 것이 나에게 잘 맞을지에 대해 생각한다.
	Learning about various jobs that I might like.	내가 좋아할만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알아본다.	나는 내가 좋아할만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알아본다.	-	나는 내가 좋아할만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알아본다.
	Keeping my options open as I learn about many different careers.	다양한 진로에 대하여 알아보면서도 내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나는 다양한 진로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내 선택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 "선택" → "진로선택" • "가능성" → "다양한 가능성"	나는 진로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능한 다양한 선택지들을 고려한다.

구인	원 문항(영문) (Porfeli et al., 2011)	한국판 도구-원 문항 (이보라 외, 2014)	예비조사 문항 (1차 수정)	수정의견	예비조사 문항 (2차 수정)
심층적 진로탐색	Identifying my strongest talents as I think about careers.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내 최고의 재능이 무엇인지 찾고자 한다.	나는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내가 가장 잘 하는 것(재능)이 무엇인지 고려하고자 한다.	• 현재형으로 수정	나는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내가 가장 잘 하는 것(재능)이 무엇인지 고려한다.
	Learning as much as I can about the particular educational requirements of the career that interests me the most.	내가 제일 흥미가 있는 진로의 특정 교육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한 나는 알아본다.	나는 흥미있는 진로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교육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가능한 알아본다.	• “흥미” → “관심” • “특정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쉬운 표현으로 변경 • “교육요구” 표현을 검토	나는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에서 요구하는 교육들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Learning what I can do to improve my chances of getting into my chosen career.	내가 선택한 진로에 들어가기 위한 기회를 높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에 들어가기 위한 가능성를 높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 영문 번역체 “진로에 들어가기 위한”을 수정 • “들어가기~” → “가기~”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로 가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Trying to find people that share my career interests.	나와 진로 흥미가 비슷한 사람들을 찾으려 노력한다.	나는 나와 진로 흥미가 비슷한 사람들을 찾으려 노력한다.	• “흥미가 비슷한” → “비슷한 흥미를 가진”또는 “유사한 진로분야”에 대한 흥미	나는 나와 유사한 진로분야에 대해 흥미를 가진 사람들을 찾으려 노력한다.
	Thinking about all the aspects of working that are important to me.	내가 일에서 중요시 하는 모든 측면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내가 일에서 중요시 하는 모든 측면에 대해 생각한다.	•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 • 무엇에 대한 고려인지 명시 • “측면” → “요소”로 수정 • “생각한다” → “고려한다”	나는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내가 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한다.

구인	원 문항(영문) (Porfeli et al., 2011)	한국판 도구-원 문항 (이보라 외, 2014)	예비조사 문항 (1차 수정)	수정의견	예비조사 문항 (2차 수정)
진로몰입 확신	I know what kind of work is best for me.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 나는 안다.	나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 잘 안다.	• 번역체 표현을 수정	나는 어떤 일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잘 알고 있다
	No other career is as appealing to me as the one I expect to enter	삭제		-	
	I have known for a long time what career is best for me.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가 무엇인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가 무엇인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	나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가 무엇인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No one will change my mind about the career I have chosen.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 "사람" → "다른 사람" • 문장 순서 변경 필요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를 다른 사람 때문에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I have invested a lot of energy into preparing for my chosen career. Identification with Career Commitment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쏟아왔다.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쏟아 왔다.	• "~ 위해" → "~하는 데" • "에너지를 많이" → "많은 에너지"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를 준비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 왔다.

구인	원 문항(영문) (Porfeli et al., 2011)	한국판 도구-원 문항 (이보라 외, 2014)	예비조사 문항 (1차 수정)	수정의견	예비조사 문항 (2차 수정)
진로일체감	My career will help me satisfy deeply personal goals.	나의 진로는 내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가 내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선택한" 이라는 표현이 어색함. "나의 진로~"와 같이 수정	나는 나의 진로가 내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My family feels confident that I will enter my chosen career.	내가 선택한 진로로 들어설 것이라고 우리 가족은 확신한다.	우리 가족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진로로 들어설 것이라고 확신한다.	• 영문 번역체 "진로에 들어설"을 수정 • 문항 삭제 검토 의견 • "확신한다" → "믿고 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진로 분야에 종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Becoming a worker in my chosen career will allow me to become the person I dream to be.	내가 선택한 진로의 종사자가 되는 것은 내가 꿈꿔왔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진로의 종사자가 되는 것은 내가 꿈꿔왔던 사람이 되는 것이다.	• 포괄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 "진로"→"진로 분야"로 수정 • "사람이 되는 것" 이라는 표현 수정	내가 선택한 진로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내가 꿈꿔왔던 것이다.
	I chose a career that will allow me to remain true to my values.	나는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했다.	나는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했다.	-	나는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했다.
	My career choice will permit me to have the kind of family life I wish to have. Career Reconsideration	내가 선택한 진로는 내가 원하는 가정생활을 누릴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내가 선택한 진로는 내가 원하는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 전반적으로 문장의 표현과 구성을 변경 • "가정생활" → "생활" 또는 "삶, 인생" 등으로 수정 • "미래" 표현은 기존	내가 선택한 진로 분야에서 일한다면 나는 미래에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구인	원 문항(영문) (Porfeli et al., 2011)	한국판 도구-원 문항 (이보라 외, 2014)	예비조사 문항 (1차 수정)	수정의견	예비조사 문항 (2차 수정)
				문항을 유지	
진로자기 의심	Thinking about choosing a career makes me feel uneasy.	진로를 선택하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진로를 선택하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 "선택하려고 생각하면"이라는 표현 수정 → 때,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수정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연구자의 판단이 필요	나는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When I tell other people about my career plans, I feel like I am being a little dishonest.	내 진로계획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조금은 솔직하지 않다고 느낀다.	내 진로계획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조금은 솔직하지 않다고 느낀다.	• "조금은" 이라는 표현 삭제 • 문장순서 변경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진로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내가 솔직하지 않다고 느낀다.
	People who really know me seem doubtful when I share my career plans with them.	나를 잘 아는 사람들과 나의 진로 계획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의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	나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의 진로 계획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의심스러워 한다고 생각한다.	• "사람들", "나의 계획을" 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어색함. • "의심스러워", "생각한다"는 표현을 수정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진로 계획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 같다.
	I doubt I will find a career that suits me.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나는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	나는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I may not be able to get the job I really want.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할 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할지도	• "진정으로" → "정말"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할지도

구인	원 문항(영문) (Porfeli et al., 2011)	한국판 도구-원 문항 (이보라 외, 2014)	예비조사 문항 (1차 수정)	수정의견	예비조사 문항 (2차 수정)
			모른다고 생각한다.		모른다고 생각한다.
진로유연성	My work interests are likely to change in the future.	내 직업 흥미는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	내 직업 흥미는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	• "내" → "나의" • "바뀔" 의 다른 표현 고려	나의 직업 흥미는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What I look for in a job will change in the future.	내가 직업에서 추구하는 바가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	내가 직업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	-	내가 직업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
	I will probably change my career goals.	나의 진로 목표를 변경할 수도 있다.	나의 진로 목표는 앞으로 변경될 수 있다.	-	나의 진로 목표는 앞으로 변경될 수 있다.
	My career choice might turn out to be different than I expect.	내 진로 선택은 내가 지금기대한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진로는 내가 지금 기대한 것와는 다를 수도 있다.	-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진로는 내가 지금 기대한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
	I need to learn a lot more before I can make a career choice.	삭제		-	

〔부 록 2〕 조사 도구

조사 설문지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귀하의 심리적 상태와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 결과는 진로교육 분야에서 대학 진로지도를 위한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9쪽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20분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에 있는 모든 문항은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수준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설문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사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정성이 담긴 응답은 본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민 지 식
지도교수 최 수 정

1. 다음은 귀하가 스스로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이 때 '진로' 란 특정한 직업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진로 분야(Career field)를 말합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조금 더 알아볼만한 다른 진로가 있을까 하여 내가 잘 모르는 진로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는 여러 진로 가운데 어떤 것이 나에게 잘 맞을지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나는 내가 좋아할만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는 진로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능한 다양한 선택지들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는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내가 가장 잘 하는 것(재능)이 무엇인지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에서 요구하는 교육들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로 가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⑧ 나는 나와 유사한 진로분야에 대해 흥미를 가진 사람들을 찾으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나는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내가 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⑩ 나는 어떤 일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⑪ 나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가 무엇인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⑫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를 다른 사람 때문에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⑬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를 준비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 왔다.	①	②	③	④	⑤
⑭ 나는 나의 진로가 내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⑮ 우리 가족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진로 분야에 종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⑯ 내가 선택한 진로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내가 꿈꿔왔던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⑰ 나는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⑱ 내가 선택한 진로 분야에서 일한다면 나는 미래에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⑲ 나는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⑳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진로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내가 솔직하지 않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㉑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진로 계획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㉒ 나는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㉓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㉔ 나의 직업 흥미는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㉕ 내가 직업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㉖ 나의 진로 목표는 앞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㉗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진로는 내가 지금 기대한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귀하의 진로와 관련하여 느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최근 느꼈던 자신의 감정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이미 고려하고 있는 진로가 있지만 그것이 내 능력과 맞지 않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는 이미 고려하고 있는 진로가 있지만 그것이 내 성격과 맞지 않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나는 이미 고려하고 있는 진로가 있지만 그것이 내 선호와 맞지 않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는 이미 고려하고 있는 진로가 있지만 그것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를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⑤ 직업선택을 명쾌하게 결정하기 어려워서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내게 적합한 다른 직업들을 모른채 한 직업을 결정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는 내게 적합한 진로를 그냥 지나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⑧ 나는 이후에 내 선택을 후회하고 그 실수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까봐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⑨ 나는 내게 가장 잘 맞는 직업에 종사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⑩ 나는 내가 최선의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⑪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⑫ 나는 어떤 수업이나 직업이 내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⑬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⑭ 나는 어느 정도 진로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를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⑮ 나는 진로선택과 같이 중요한 결정을 이 시점에서 내리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⑯ 나는 내가 대학을 졸업한 후 무슨 일을 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⑰ 나는 내가 무엇을 더 공부하거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⑱ 나는 진로 의사결정을 포함한 복잡한 과정을 겪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⑲ 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원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⑳ 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원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귀하가 미래의 직업과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최근까지 생각하고 있던 내용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학업을 마친 후 장래에 취업이나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					
① 일하면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② 일하는 것 자체가 재밌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내가 하고자 하는 일(직업)이 내게는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④ 일하면서 겪는 도전들이 흥미로울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싶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일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⑦ 일하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⑧ 일하는 것이 삶의 일부로서 가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일하는 것이 나의 삶을 보다 의미있게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학업을 마친 후 장래에 취업이나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					
⑩ 일하지 않으면 남들 보기에 창피할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⑪ 일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⑫ 일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⑬ 일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무능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⑭ 일하지 않으면 주변 친구들(혹은 동기들)에 비해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할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⑮ 일하기 싫어도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⑯ 일하기 싫지만, 일함으로써 얻는 보상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⑰ 일하지 않으면 사는 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귀하가 현재 재학 중인 주전공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내용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현재 전공 분야에서 학습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성향과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내가 가진 지식, 기술, 능력은 현재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와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③ 현재 전공 분야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은 나의 직업적 관심사과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현재 전공으로부터 나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얻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는 전공분야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나의 재능, 능력 및 기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아래 질문에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① 남자 ____② 여자

6.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_____)세(만)

7. 귀하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_____)학년

8. 귀하는 현재 어떤 계열, 어떤 과(주전공)에 재학하고 있습니까?

(애매한 경우 기타에 응답해 주십시오)

____① 인문·사회계열(인문계)

____② 자연·공학계열(이공계)

____③ 기타

(_____)과(전공)

9. 귀하는 복수(부)전공을 이수하고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_____)과(전공)

10. 귀하는 복수(부)전공으로 이수하는 전공 분야로 진출하고자 합니까?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___① 예 ____② 아니오

11.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____② 비수도권

12. 귀하가 현재 대학교, 현재 학과(주전공)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____① 내가 원하던 분야이므로
____② 성적에 맞추어 현실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____③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____④ 유망한 전공이라서, 또는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서
____⑤ 특별한 이유 없음.
____⑥ 기타
(_____)

13. 현재 귀하의 학적상태는 어떠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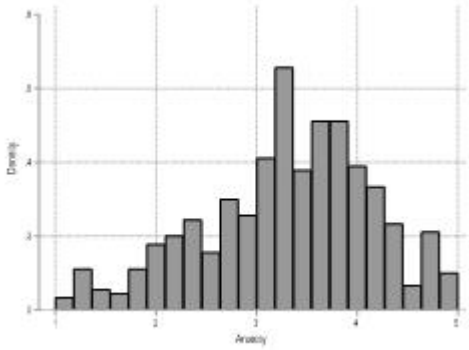
____① 재학 중
____② 과정 중 휴학
____③ 졸업은 가능하나 유예 중

- 감 사 합 니 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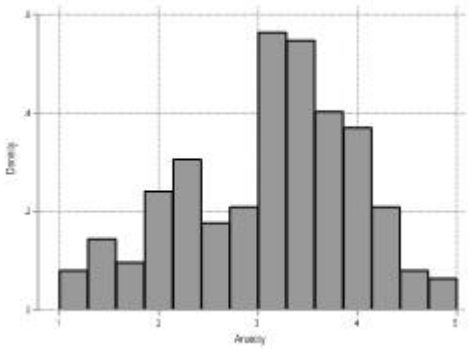
[부 록 3]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 기술통계

〈부록 표 1〉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 기술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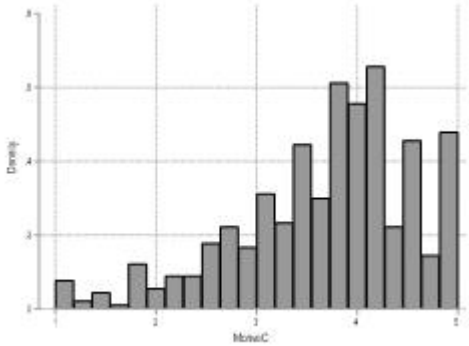
구분	여학생					남학생					t	p
	평균	s.d.	중간값	왜도	첨도	평균	s.d.	중간값	왜도	첨도		
진로불안	3.308	.843	3.350	-.420	2.766	3.112	.879	3.200	-.445	2.595	2.814**	.005
자율적 동기	3.667	.764	3.778	-.524	3.417	3.676	.708	3.667	-.199	2.832	-.149	.882
통제적 동기	3.681	.883	3.875	-.775	3.350	3.494	.882	3.625	-.667	3.256	2.601**	.009
전공 적합성	3.459	.919	3.571	-.676	3.143	3.563	.904	3.714	-.712	3.348	-1.391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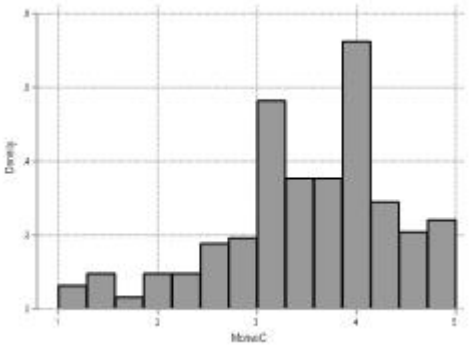
[부록 그림 1] 여학생의 진로불안 히스토그램



[부록 그림 2] 남학생의 진로불안 히스토그램



[부록 그림 3] 여학생의 통제적 진로동기 히스토그램



[부록 그림 4] 남학생의 통제적 진로동기 히스토그램

Abstract

A Path Analysis of Career Anxiety,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Controlled Career Motivation, Person-Major Fit and Career Identity Status Type of University Students

By Jisik Min

Disserttation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3

Major Advisor: Sujung Choi,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status types of career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nxiety,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controlled career motivation, person-major fit, and career identity status type. Through latent profile analysis, the status type of career identity is determined. After that, previous literature was thoroughly reviewed in order to construct a research model. Third and fourth graders enrolled in a four-year university is a target group of this study. A total of 20 universities—10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10 outside of it—were used.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were requested to complete an online survey. The remainder responded on paper survey form. The 80-question survey was designed to measure person-major fit, career anxiety, autonomous and controlled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identity statuses. A 5-point Likert scale was used to

rate every item.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design was suggested to investigate the research problem. The first step is conducting latent profile analysis and creating "status type of career identity" variable to merge with original data. The next step was to conduct a path analysis with six status types using career anxiety,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controlled career motivation, and person-major fit as independent variables. Career anxiety was then used as a mediator for relationship between person-major fit,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controlled career motivation, and status tupe of career identity. In order to establish a path to control endogenous variables, gender and region were also examined as control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main study, university students status type of career identity was first derived into six types that were similar to those suggested by existing studies. In total, the classification ratios were 8.86%(acheived), 36.15%(moratorium), 7.45%(foreclosure), 9.56%(diffusion), 5.35%(searching moratorium) and 32.63%(undifferentiated) respectively. Second, it was found that some variables directly affected the classification of career identity status types. after examining career anxiety,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controlled career motivation.

Depending on the analysis model, these variables had different effects. Career anxiety was a leading variable that mainly influenced career identity, and had a generally negative (-) effect on the classification of status types when we use 'diffusion' type as a reference group. It was not significant only in Model 4 (searching moratorium vs diffusion).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classification of career identity status types in all models, so when autonomous motivation is high, it is found that it is highly likely to be classified as another type in the classification of other status types compared to diffusion. Controlled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ly on Model 2 (moratorium vs diffusion). Compared to the diffusion status type,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rolled motivation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being classified as a moratorium type. Third, in the path model, career anxiety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career identity status,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controlled career motivation, and person−major fit. This also showed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analysis model.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we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research findings and for additional study. The first step in offering career guidance at universities is to comprehend the status type of career identity and related factors together. Second, The recently proposed status types such as "searching moratorium" and "undifferentiated" need to be carefully considered as well,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four status types. Thirdly, it's crucial to compare earlier studies that were carried out using various methodologies critically. Researchers should also actively seek out effects of variations in both psychological and demographic traits as well as unique interpretations of each variables. Fourth,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while keeping in mind that controlled and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can be used separately, depending on the research problems. Fifth, it's important to emphasize more how important career anxiety is in relation to the different types of unachieved status type such as diffusion. Sixth, when it comes to career exploration or commitment, it's crucial to consider the timing and strategy of the intervention. Finally, in relation to the person−major fit, career guidance is more stressed during the pre−university entrance stage.

The following ar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rough follow−up studies why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classification ratio of status types in a various of of studies in Korea. Second, it is necessary to directly confirm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status type through longitudinal research. Third, research on the validation of the K-VISA tool should be conducted through various subjects. Finally, additional antecedent factors or related variable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patter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controlled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anxiety.

Keywords: *University Students, Career Identity Status Type, Career Identity, Career Anxiety,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Controlled Career Motivation, Person-Major fit, Latent Profile Analysis, Path Analysis*

Student Number: *2020-37455*